금주의 법구–〈건의경〉
열매를 얻으려면 씨를 뿌려라.
선을 심으면 복을 얻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얻는다.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4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5월 7일)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며** 불교계 대표적인 종합 공연예술 행사인 영산재(靈山齋) 시연회가 현충일인 6월 6일 서울 신촌의 태고종 봉원사서 봉행됐다. 33회째를 맞은 올해 영산재는 '세계인류평화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행사로 열렸다. 영산재보존회장 원허 스님(봉원사 주지)은 "오늘 시연되는 영산재는 국민 대통합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소중한 기원을 담고 있다"며 "산사에 울려 퍼지는 부처님을 향한 범패 소리를 통해 대승보살도를 얻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담아가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노덕현 기자

# 청각장애인에겐 애국가도 '찬송가'

## 한국표준수화 '애국가' 종교편향 논란

**'하느님이 보우하사' 구절서**
**기독교 유일신으로 통역 돼**
**의미 표현할 대체어 부재해**

**표준수화 이전 1900년대엔**
**'하늘'+'님' 으로 수화 표현**
**"의도적 왜곡" 의혹 제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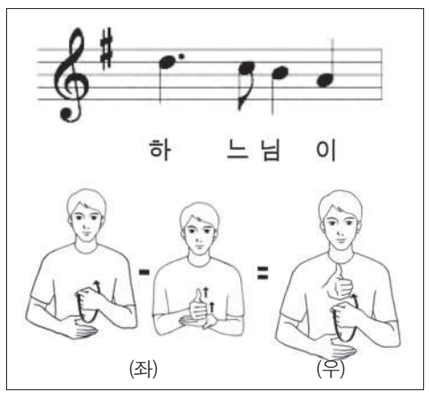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 국가인 '애국가'가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사실상 '기독교 찬송가' 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국가를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수화(수어)로 통역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이 종교적 의미를 담은 수화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애국가 1절의 '하느님이 보우하사' 구절이다.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정립한 '수화로 하는 애국가'에 따르면, 해당 구절의 '하느님'은 기독교 유일신인 '하나님(야훼)'을 뜻하는 수화로 표현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한국표준수화를 기준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화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가 발간한 한국수화사전에 '하느님'과 관련한 수화단어는 공식적으로 두 가지다. '기독교에서 믿는 유일신(야훼)'의 의미를 지닌 '하나님'과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한다고 믿어지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의미를 지닌 '하느님'이다. 이 중 애국가의 '하나님이 보우하사'는 문맥상 '하늘(天)'을 어원으로 한 보통명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해당 구절은 '하느님'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현재 표준수화에서 두 단어는 모두 기독교적 의미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표현된다. 이는 기독교수화사전의 '하나님(유일신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과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적이며 인격적인 존재)' 수화 표현과도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은 애국가 공식통역에서 자연히 기독교의 하나님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애국가의 표준수화가 오히려 청각장애인들을 종교자유를 침해하거나 종교편향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의 '수화로 하는 애국가'에 게재된 '하느님'의 수화표현(좌)과 한국수화사전 · 기독교수화사전의 '하나님' 수화 표현(우)이 동일하다.

불자 청각장애인 하영준 씨는 "일반인들이 보면 단어 하나의 오류일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이를 통해 애국가 자체를 종교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조계종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회장 김철환)는 최근 논평을 통해 종교편향적 수화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철환 원심회장은 "보통명사로서 '하느님'을 표현할 수 있는 수화 단어가 추가로 정립돼야 한다"며 "한국수화사전 개정판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그 이전이라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애국가의 수화 통역이 의도적으로 왜곡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표준수화가 제정되기 전 1900년 후반, 농아학교에서는 애국가의 '하느님'을 '하늘'과 '님'을 뜻하는 수화를 조합한 표현으로 교육했다는 것이다. 당시 농아학교 등에서 수화를 배운 청각장애인들의 상당수가 애국가의 수화통역을 '하늘+님'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정작 표준수화에서는 기독교적 하나님으로 정립된 셈이다.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에서 불교수화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한휘 씨는 "나 역시 과거 농아학교에서 애국가를 배울 때 '하늘+님'의 표현으로 수화를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적지 않다"며 "표준수화 제정 이후 오히려 청각장애인에게 종교편향적인 요소가 발생한 것은, 당시 표준수화 제정 추진위원회에 기독교계 인사들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광림사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은 "과거 왜곡되거나 비하의 의미로 잘못 사용되는 불교수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데 공력을 쏟다보니 다른 종교의 수화가 공적영역에서 잘못 사용되는 부분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며 "문제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위례 상월선원 7월 첫 삽 뜬다

## 원명 스님 9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한국불교 도심 속 포교와 선풍 진작의 터전이 될 위례 상월선원 착공식이 7월 초 열린다. 공기는 1년으로 상량 시기는 가을로 예상된다.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6월 9일 봉은사 다래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월선원 착공 소식과 지난 5월 발족한 제1기 수미산원정대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원명 스님은 "상월선원은 불교 중흥의 핵심"이라며 "상월선원은 수행 정신이 전해지는 곳으로 향후 비구 스님 선원, 재가 선원 등을 구성해 선종불교 참선을 하는 수행선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월선원 불사에는 난관이 많았다. 종교부지 불하 이후 불사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여론 등이 거셌다. 스님은 "상월선원은 결국 지역이 발판이 돼 불자조직들이 지역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방면으로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고, 포교하면서 불사를 통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전했다.

착공식 후에는 대웅전과 요사채 불사가 1차로 진행되며, 2차와 3차 불사는 종단과의 협의를 통해 차후 진행된다. 대웅전 뒤편 원미륵대불은 상월결사 상징으로 보존된다.

**1차 대웅전, 요사채 건립**
**향후 문화공간 확충 계획**

1차 불사소요액은 약 52억 원으로 봉은사는 상월선원 불사를 위한 모연도 착공 후 진행할 예정이다.원명 스님은 "상월선원이 들어서면 봉은사 국악합주단 공연 등 문화공간으로 전통문화를 알리는 곳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상월선원은 외형적인 불사와 함께, 내부적인 불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원명 스님은 최근 1기 교육을 입재한 수미산원정대가 상월선원의 주축이 될 것임을 밝혔다,

스님은 "그동안 포교 최전선임에도 불구하고, 포교는 등한시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수미산원정대를 이끌면서 이제 조금 포교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스님들과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포교 전진기지로서 힘을 모으고 있다. 부처님 말씀을 단지 혼자 아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자하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끝으로 "교육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수행 등 다양한 것을 통해서 불교를 알아가게 될 것"이라며 "상월선원과 봉은사를 중심으로 수미산원정대 활동을 통해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포교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위례 상월선원 조감도.


# 백만원력 결집불사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합니다.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불교 병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을 건립 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칭)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법은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조감도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세종시 광제사 대웅전 조감도

대한불교조계종

모연동참안내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ARS 060-700-0012(1통화,3천원)
- 후원계좌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백만원력결집불사 모연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서 기부됩니다.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www.buddhism.or.kr

# 불교가치, 대국민 기후대안으로 확대

## ‘생명전환 불교행동’ 어떻게 진행되나

**조계종 담화문으로 본 기후대안**
**이례적으로 구체적 전략 담아내**
**“사찰 차원서 실천 이끌어낼 것”**
**불교적 삶의 방식 대사회적으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발표한 담화문은 기후위기 시대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과 실천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환 · 지족 · 순환 · 참여 4가지 전략기조를 토대로 ‘기후위기 극복 탄소 중립을 위한 조계종 생명전환 불교행동’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를 통해 불교계가 불교적 가르침을 기반으로,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삶과 사회적 전환을 이끌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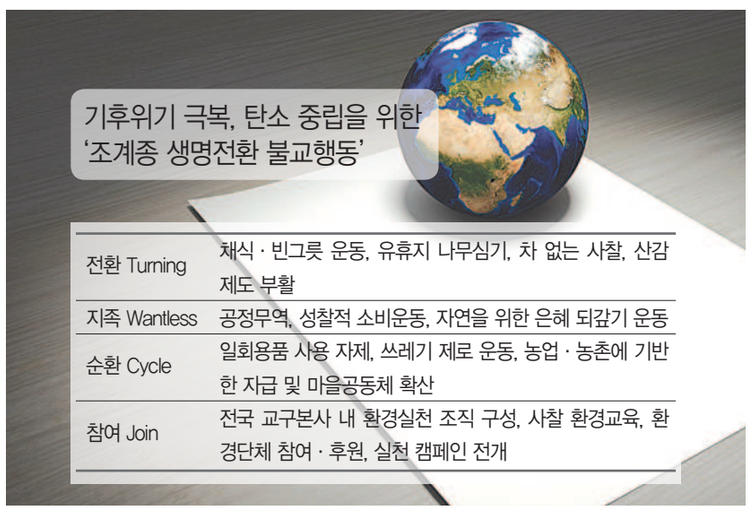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조계종 생명전환 불교행동’의 일환에서 국민들에게 전하는 구체적인 의제를 던졌다는 점이다. 전환, 지족, 순환, 참여 네 가지 전략기조는 향후 10년간 종교계와 국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향후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환’은 탄소제로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생명살림 사회로의 전환, 음식문화 생활의 전환으로 꼽힌다. 이는 석탄 기반 에너지 사용을 자제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에너지 절약은 물론, 유휴지 나무심기, 차 없는 사찰 운동, 산감제도의 부활, 태양광 시설 등이 사찰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실천적인 방안도 점진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인권을 넘어 자연권 · 생명권 옹호를 통한 생명살림 인식 확대도 과제로 제시됐다.

음식문화의 전환은 불교적 식습관의 사회화 운동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바로 육식 자제, 채식으로의 전환이다. 발우공양 문화에 토대를 둔 빈그릇 운동과 소식 운동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불교계가 이끌어 갈 수 있는 실천방안 중 하나다.

불교적인 식습관인 채식과 발우공양을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대국민 실천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지족’은 이미 불교의 미덕으로 알려져 있는 생활방식이다. 청빈한 소비와 무소유, 나눔, 함께 협동하는 나눔공동체 등이 대표적이며, 조계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감사와 고마움을 기후위기 시대의 희망으로 보고 자연과 생명의 은혜를 되갚는 ‘은혜 되갚기 운동’도 제안했다.




‘순환’은 비닐, 플라스틱 등 썩지 않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용품 사용을 확대하는 ‘썩히기, 거름되기 운동’이다. 조계종은 이를 위해 쓰레기 제로 사회를 목표로 삼을 것을 제시하고 안 쓸 물건 거절하기, 재활용과 재사용, 오래쓰기 등을 권유했다.

마지막 전략기조인 ‘참여’에는 전국 사찰과 불자들을 시작으로 대사회 전환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 있다. 전국 교구본사 환경실천 단위를 구성해 지역별 환경 사안에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교구 본말사 법회에서 스님들이 환경을 주제로 법문하거나 스님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매년 1회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제로 포럼을 열거나 사찰과 함께하는 실천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이 이번 담화문에서 각 의제에 대한 실천안을 추가로 제시한 것은, 일반적인 선언을 넘어서 보다 대사회적이고 대국민적인 차원의 실천적인 계획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종단 차원에서 사찰과 불자, 국민들의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핵심 과제는 다소 모호하다는 점에서 후속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향후 불교계와 이웃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는 가운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인도 분황사 건립불사, 코로나에도 순항

## 6월 1일 총도감 부다팔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서 보고



부처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서 진행중인 분황사 건립 불사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부다가야 건립 총도감 부다팔라(본원) 스님은 6월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그동안의 공사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사진〉 분황사 건립불사는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점사업이다.

부다팔라 스님에 따르면 현재 분황사는 대웅전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붕 서까래 및 창호조립을 앞두고 있다. 요사채와 보건소는 부지정비 및 기초공사를 마쳤으며 향후 지붕공사 및 단청, 조경공사 등이 예정된 상황이다.

분황사 건립불사는 최근 인도의 폭염과 코로나19 감염자수 급증 등의 상황으로 우려를 낳았다. 부다팔라 스님은 이에 대해 원행 스님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처님 가피로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헌신적으로 불사에 동참하고 있는 박철수 도편수 등 한국 기술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한 데 이어 부다팔라 스님과 건립 관계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전했다. 특히 “인도 현지의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공사를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분황사 건립공사가 향후 인도 현지에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를 전파하는 거점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행 스님은 부다팔라 스님에게 향후 분황사 상량식에 사용할 상량문을 전달했다. 송지희 기자

# “코로나로 위기 처한 남방불교 도와요”

## 로터스월드 · 전국비구니회, 긴급캠페인 전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사찰 공양물 끊겨 운영위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남방불교 전통을 잇는 불교국가 사찰과 스님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사찰 운영의 근본적인 토대인 탁발공양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스님들의 생계는 물론 수행을 지속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로터스월드와 전국비구니회가 위기에 처한 남방불교 스님들을 위한 긴급캠페인을 전개한다. 한국불교계의 정성을 모아 남방불교 수행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6월 14일부터 캄보디아 · 미얀마 · 라오스 사찰 긴급지원 캠페인 ‘탁발이 어려워진 불교국가 스님들의 발심출가를 지켜주세요’를 전개한다. 모연된 후원금은 각 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로터스월드 지부를 통해 현지 사찰에 전달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로터스월드는 현지 사찰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며, 가장 상황이 열악한 사찰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탁발을 진행하지 못하는 남방불교 사찰과 스님들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남방불교 전통에 따르면 스님들은 공양물이 아닌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 먹지 못하며 공양을 요구할 수 없다. 탁발공양이 급감하면서 스님들의 생계는 물론, 사찰 운영 및 사찰 차원의 사회적 회향인 복지사업에도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지원금은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지부를 통해 현지로 전달돼 사찰과 스님들을 위한 식료품 공양을 위해 사용된다. 이와 함께 사찰의 도움으로 살아온 고아 등 취약계층에게도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로터스월드 각 지부는 현재 지원 대상 사찰을 선정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로터스월드측은 “지원의 시급함을 고려해 일정 규모의 후원금이 모아지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각 사찰별 후원 규모는 대략 월 2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캠페인 종료 시기는 해당 국가의 코로나19상황과 사찰의 독자적인 운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02)725-4277, 농협, 301-0059-6339-11, 예금주 : 로터스월드 송지희 기자

# 불교문화 견인할 ‘한국불교예술문화총연합회’ 창립

## 6월 7일 증명 원행 스님
## 초대회장엔 정광진 감독
## 공연 예술 포교활동 추진

불교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들이 결집해 불교문화 발전을 통한 포교활동에 나선다. 그동안 문화계 각 분야별 불자 예술인들의 모임은 있었지만,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연합회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한국불교예술문화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총연합회)는 6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사진〉 새롭게 출범한 총연합회에는 문화예술계 12개 분야 120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회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총연합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증명으로 모신 가운데, 도법 스님과 전무송 배우가 명예회장을 맡았다. 또 배우 이대로 · 박웅 · 최종원 · 강부자 · 선우용녀 · 전원주, 강인덕 씨를 비롯해, 이원욱 국회정각회장, 구본일 BTN 사장,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홍봉구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등 문화예술계와 인연이 있는 각 분야 인사들이 고문으로 참여했다.

총연합회는 향후 불교공연예술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홍포하고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불교문화 창달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총연합회는 설립취지문에서 “1700년 유구한 한국불교 역사는 다양한 문화예술이 화엄으로 꽃피었던 시간이었지만 현대사회에 이르러 역사적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불교문화는 정체되고 빛을 잃어갔다”며 “불자 문화예술인들은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불교예술문화의 부흥을 꿈꾸며 총연합회 창립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총연합회는 각 회원들의 기량을 통해 삼보를 찬탄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불자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하고 지원 · 육성할 뿐 아니라 불교 종단과 단체, 지역사찰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불교예술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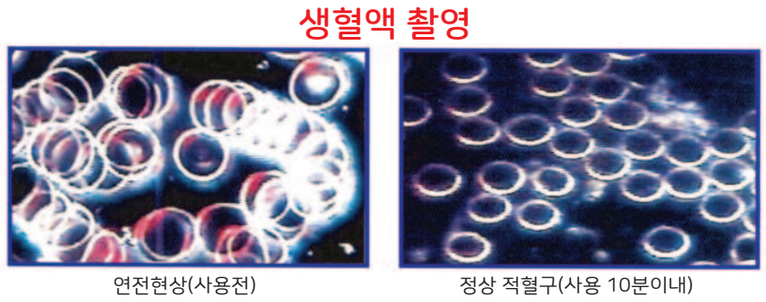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불자문화 예술인의 결집과 화합, 보호 및 지원, 삼보 외호 등을 당부했다. 특히 스님은 “연합회가 사찰과 불교 단체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가 되어 사찰이 지역문화의 구심이 되고 불교단체가 새로운 불교문화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광진 초대회장은 “총연합회 활동을 통해 모든 색이 태어나 작용하고 공으로 돌아가는 만물의 본행을 궁구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불교문화예술을 꽃피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지희 기자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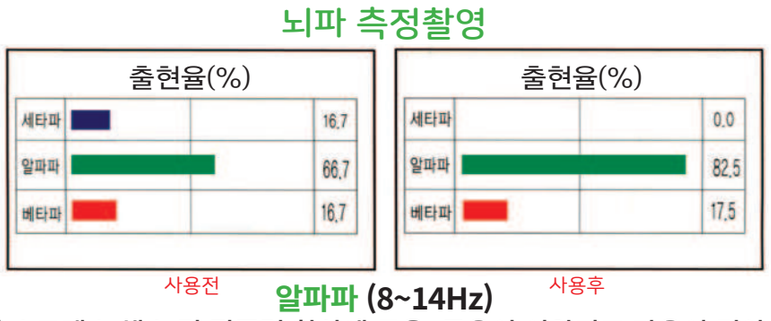
폐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체험사례

◎ 개발자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를 90년대 말에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0여년간 감기나 몸살로 약을 먹어본 적도, 드러누워 본 적도 없이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 BLOOD MATE®를 사용하기 전에는 안경을 써야 신문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안경을 쓰지 않고 신문을 보고 있으며 눈동자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 BLOOD MATE®를 설명서대로 사용하고 누워있으면 세포 움직임(혈액순환)이 손바닥에서 스물스물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어깨, 목, 허리 통증을 없애주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BLOOD MATE® 순비누:120g 9개 270,000원 ➡ 100,000원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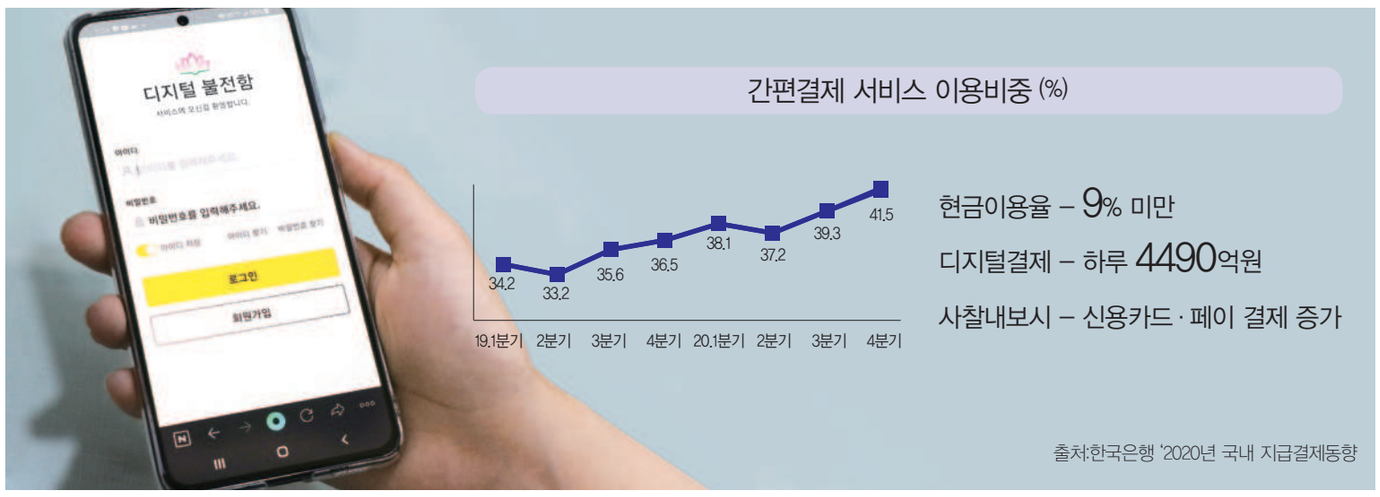
(주)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주)에이스삼강

# 디지털 불전함, 보시문화 변화 이끈다

## 조계사, 해인사, 화계사 등 디지털 불전함 설치 '눈길'

### 오프라인 '키오스크' 설치 확대
### 온라인 '오픈뱅킹' 불전함 첫선
### "신도 편의 증대, 이미지 쇄신"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울 조계사에 다니는 60대 이 모 씨에게는 최근 작은 기쁨이 생겼다. 자녀에게 부탁해 배운 '페이' 결제로 사찰에 보시하는 것이다. 종무소나 무인단말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결제가 되니 무겁기만 한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게 된 것이다.

무현금 사회가 본격 도래한 가운데, 디지털 불전함 설치 등 불교계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4월 28일 발표한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현금 이용률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페이' 결제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간편결제 이용이 하루 평균 449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2016년 210만 건에서 2020년 1454만 건으로 확대되는 디지털 결제 확대에 사찰에서도 최근 디지털 보시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 #오프라인 '키오스크' 설치

불교계가 도입 중인 디지털 불전함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 오프라인인 사찰에서의 디지털 불전함은 코로나 기간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도입된 키오스크(무인단말기)가 담당한다.

서울 조계사는 1월 키오스크 불전함을 도입했다. 전자지불결제사업을 주로 하는 KG이니시스 제안으로 조계사에 이어 합천 해인사와 화성 항하사 등 3곳에 설치된 상태다.

합천 해인사의 경우 유튜브채널인 해인사TV를 통해 키오스크 불전함 설치를 알리기도 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영상을 통해 "참배객과 탐방객 중 신발을 벗기 힘들거나 거동이 힘든 분들,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보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신도님들이 권유하셨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조계사서 키오스크로 시주한 김영임 씨는 "요즘 대형마트에 가도 키오스크를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는데, 최근에는 카드와 페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편하다"고 말했다.

키오스크를 활용한 오프라인 디지털 결제는 불전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찰 내 결제에 활용되고 있다. 양양 낙산사와 고창 선운사, 부안 내소사 등 주요 관광사찰은 5월 18일 사찰 입장료를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 키오스크를 설치하기도 했다.

#### #온라인 '오픈뱅킹 보시함' 도입

키오스크 불전함이 오프라인 보시문화 변화를 이끈다면 온라인상에서는 오픈뱅킹 불전함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화계사(주지 수암)는 6월 2일 사찰 최초로 온라인 디지털 불전함을 공개했다. KB국민은행과 함께 개발한 디지털 불전함은 QR코드 스캔과 링크주소, 웹사이트 등을 통해 오픈뱅킹 방식으로 접속가능하다. 인터넷 뱅킹과 다르게 회원 가입 시 연결한 계좌에서 비밀번호를 기입하면 스마트폰 등에서 바로 보시가능하다.

디지털 불전함 회원가입은 카카오톡 계정으로도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뒤 신분증 인증과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이뤄진다.

화계사 총무 원정 스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시작하게 되었지만 디지털화를 준비하자는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다"며 "비록 초기 단계로 고령의 신도분들이 회원가입 등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점차 사용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바일 내 디지털 불전함은 은행권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서울 조계사 또한 2020년 11월 5일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조계사 전용 기부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보시 시스템을 개시한 바 있다.

#### #무현금 사회, 디지털 보시 정립 필요

교계에서는 간편결제를 축으로 무현금 사회 흐름이 빨라지는 만큼 디지털 보시문화를 확대해 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도 편의성 증대와 함께 디지털 결제에 익숙한 젊은 층들에게 불교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2019 한국은행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서에 따르면 연령별로는 20~40대에서 현찰 사용이 줄어든다고 본 비중이 40%를 웃돌았다. 더 간편하고 빠른 결제 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현금 사용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다.

조기룡 동국대 교수는 "사찰 내에만 보아도 10여 년 전부터 불전함 보시금 외에는 사찰 용품 결제 등에서 카드결제가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 사회의 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확대는 신용카드 사용 때와 같이 사찰내 결제방식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무현금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디지털 보시문화를 사찰이 만들어 가야 한다. 기부와 봉사 등과 연계한 디지털 보시는 불교활동을 알리는 계기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행선 수행론과 불교사상 상관관계는

## 개원 5주년 맞은 대행선연구원 기념학술대회

### 6월19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 대행선과 불교 사상 비교 · 고찰
### 제 3회 묘공학술상 시상식 열려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수행론과 불교사상을 비교 ·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6월 19일 오전10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불교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론'을 주제로 제5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행선연구원의 개원 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대행선의 수행방법을 정토 · 화엄 · 법화 · 유식 · 선 등의 불교사상과 비교해 대행선의 수행법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연구 논문들이 공개된다.

김재성 능인대학원대학 교수는 '초기불교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론'을, 이기운 동국대 교수는 '천태학에서 바라본 대행선', 박보람 충북대 교수는 '여래장과 여래출현을 통해 본 대행선의 수행관'을, 차상엽 경북대 교수는 '공과 여래장, 그리고 주인공'을, 김호귀 동국대 교수는 '대행선과 묵조선 수행의 심리적 성격 고찰'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최동순 동국대 교수, 김천학 동국대 교수, 남수영 능인대학원대학 교수, 이상호 박사 등이 참여한다. 주제발표가 마무리되면 모든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토론광장도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식전행사로 제3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제3회 묘공학술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도 열린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추어 입장 인원을 제한한다. 학술 대회 현장은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에서도 생중계로 만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행선연구원 개원 5주년

제5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깨달음의 삶을 가르치는 붓다의 가르침은 진정한 인간의 삶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중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계도하기 위하여 정토·화엄·법화·유식·선 등의 다양한 사상으로서 나타났고,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들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존의 여러 불교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법을 비교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대행선 수행법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이 시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교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론

■ 일시 : 2021. 06. 19(토) 10:00 - 17:0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3층

1부 개회식(10:00 ~ 10:45)
· 묘공학술상 시상식
· 묘공학술장학 증서수여식

2부 오전 학술발표(11:00 ~ 12:20)
좌장 : 박경준 명예교수(동국대)
· 발표: 김재성교수(능인대학원대학교)
· 논제: 초기 불교 사상과 대행선의 수행론
· 논평: 정준영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

· 발표: 이기운교수(동국대)
· 논제: 천태학에서 바라본 대행선
· 논평: 최동순교수(동국대)

2021년 6월 19일(토)
(10:00 ~ 17:00)
YouTube
유튜브 한마음선원 채널 생중계
https://www.youtube.com/user/HanmaumTemple
※자료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3부 오후 학술발표(13:30 ~ 15:40)
좌장 : 김용표 명예교수(동국대)
· 발표: 박보람교수(충북대)
· 논제: 여래장과 여래출현을 통해 본 대행선의 수행관
· 논평: 김천학교수(동국대)

· 발표: 차상엽교수(경북대)
· 논제: 공과 여래장, 그리고 주인공
· 논평: 남수영교수(능인대학원대)

좌장 : 서윤길 명예교수(동국대)
· 발표: 김호귀교수(동국대)
· 논제: 대행선 & 묵조선 수행의 심리적 성격 고찰
· 논평: 이상호박사(서강대)

토론광장 15:50 ~ 16:50
좌장 : 김응철교수(중앙승가대)

폐회식 16:50 ~ 17:00
총평 / 마무리인사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031)470-3276/3277 E-Mail : ds7788@hanmaum.org


# "반복되는 산재사망, 고리 끊어야"

## 조계종 사노위, 故 이선호 노동자 49재

### 6월 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서
### '중대 재해처벌법' 개선 촉구도

평택항에서 일하던 중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故 이선호 노동자의 49재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엄수됐다.〈사진〉 故 이선호 노동자의 49재는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법석이자, 또다시 반복된 산재 사망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6월 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故 이선호 노동자의 49재를 봉행했다. 위원 스님들은 염불과 기도로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으며, 참석자들은 헌양과 헌화로 추모의 뜻을 전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심상정 의원,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등도 참석해 유족을 위로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학생이었던 故 이선호씨는 지난 4월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 현장에서 작업 중 300kg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사망후 49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사고책임자에 대한 처벌, 진심어린 사과 등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그의 시신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이날 49재에서 故 이선호 노동자의 아버지 이재훈 씨는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영혼을 떠나보냈지만 육신을 보내지 못하는 아비의 찢어지는 심정을 하늘은 헤아려 줄 것"이라며 "우리 아이는 물론,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산재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수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있다. 우리 아이의 죽음이 중대재해법을 강화해 잘못된 법안을 바로잡는 초석이 된다면 이 땅의 노동자들을 위했다는 위안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위원장 지몽 스님은 "불가에서는 사람이 죽어 영혼이 다음 생으로 가기 전 49일동안 이곳 중음세계에 머문다고 한다"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임에도 여전히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진정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애통하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 군불교 중심 홍제사 불사 '본격 시동'

##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6월 9일 불사 현장서 기원재

**선묵 혜자 스님 "불교 중심 터전"**
**청년 포교 및 템플스테이도 가능**
**62억모연, 2022년 6월완공 예정**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불교 중심터전이 될 홍제사의 교육관 건물 앞에서 군종특별교구 주요 스님들이 불사현황을 브리핑받고 있다.

한국불교 군포교의 중심이 될 홍제사 불사가 본격 막을 올린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6월 9일 육·해·공 삼군 본부 영외법당인 계룡대 호국 홍제사 원만 성취와 회향을 기원하는 기원재를 불사 현장에서 개최했다.

군종특별교구는 당초 설계 확정에 이어 착공을 겸해 기원재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군 특별방역으로 기원재를 연기해 왔다. 홍제사 불사는 2020년 11월 24일 기공식에 이어 4월 16일 착공 허가와 함께 불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기원재에는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을 비롯해 국방부 군종실장 정우 이정우 법사, 군종특별교구 종책실장 보운 김종봉 법사, 홍제사 주지 진홍 스님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법당 불사가 한창이었다.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홍제사 불사로 군불교는 한 차원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청년 포교를 비롯하여 군포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 층 한 층 불자들의 정성으로 쌓아 올리면 부처님 법이 가득하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도량이 탄생할 것이다. 호국 홍제사에 십시일반 힘을 모으는 종단 대덕 스님들과 불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선묵 혜자 스님은 "엄정하고 공정한 시공 감리 선정에 이어 남은 불사도 여법하고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원재에서 경과를 보고한 홍제사 주지 진홍 스님도 "홍제사는 법당과 신행공간, 교육관은 템플스테이도 가능한 숙영공간이 될 계획"이라며 "영외법당으로써 내년 6월 경 완성이 되면 군불교 총본산으로, 포교 도량으로 젊은 청년불자들이 찾아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홍제사 법당은 대지면적 2만 8868㎡(8733평), 연면적 3483㎡(1054평) 규모로 지상3층 1개동으로 지어진다. 건물 내에는 대법당과 소법당, 회의실, 다목적실과 식당, 카페 등이 들어선다. 법당 예산은 총 62억여 원으로 불자들의 불사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제사 법당 옆에는 현재 교육관이 국방부 지원으로 건립되고 있다. 교육관은 대지면적 4845㎡(1465평), 연면적 1429㎡(432평) 크기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어진다. 25개 객실과 소법당 등으로 구성되며 장병 및 일반인 교육과 템플스테이 등이 가능하다. 현재 52% 공정으로 올해 10월 8일 완공될 예정이다.

# 대한불교진흥원, 하반기 4대 공모사업

## 대원상 · 청년불자상 시상
## 대원불교학술콘텐츠지원도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불교 진흥을 위해 2021년 하반기에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4대 공모사업은 △제18회 대원상(大圓賞) △제3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제4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제3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이다.

먼저 제18회 대원상은 2003년 제정돼 범적으로 포교 활동을 펼치는 출가자 및 재가자를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는 것으로 출가와 재가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한다.

대상에게는 2000만 원의 상금이, 특별상 1000만 원, 장려상 500만 원이 수여된다.

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직접 및 우편으로 신청 접수 가능하다.

제3기 대원청년 불자상 · 리더상 공모는 청년불자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과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불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불교 장학금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학금 및 활동비 지원 금액은 대학생 · 대학원생 등 개인에게는 300만 원, 초등학생 불교 동아리 50만 원, 중 · 고등학생 불교 동아리 100만 원, 대학생 · 대학원생 불교 동아리 100만 원 등이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이메일(kbpf2606@daum.net) 접수가 가능하다.

제4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사업은 불교를 오늘에 맞게 연구하는 연구자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불교 학술 부문은 저서 5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번역서 3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불교 콘텐츠 부문에서 만화 · 동화 · 소설 · 찬불가 작사 작곡 ·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에 각각 500만원부터 1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7월 12일부터 8월 13일로 역시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제3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 공모사업은 각 분야의 소모임이나 단체를 비롯해 불교 진흥을 위한 단체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기관 혹은 1개 단체별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다.

노덕현 기자

# 코로나19 희생자 위한 천도재 봉행

## 생명나눔실천본부 6월 6일 불암사서


불암사에 모인 불자대중들이 코로나19 희생자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탑돌이를 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사에서 장기기증자와 코로나19 희생자 및 순국선열의 영가를 축원하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이번 천도재에는 기증자 유가족을 비롯해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과 회원, 불암사 신도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및 현장접수를 받은 영가 304위를 모시고 의식이 진행됐다.

일면 스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기증을 통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장기기증자와 코로나19 희생자,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원 분들의 영가를 위로하고 천도해야 세상이 가벼워진다"면서"이제 생사의 슬픔을 벗어나 평안을 찾고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평화의 세상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된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비롯한 호국영령들과 이름 없는 영가들의 넋을 함께 기리며 그 의미를 더하고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당시 육사생도들의 나라사랑의 정신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원하고자 이들 영가를 천도하는 재를 봉행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선교난동' 개신교계에 대책 촉구

## 종평위, 6월 8일 입장문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봉행된 조계사에서 발생한 예수재단과 개신교인들의 '선교난동'과 관련,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개신교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는 6월 8일 '부처님오신날 예수재단 집단시위사태에 대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회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적대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종평위는 "부처님오신날은 세상의 자비와 평화의 상징이자, 불자들 모두에게 축제의 날"이라며 "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사에서 봉행된 법요식은 각계의 초청 손님들과 불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여법하게 봉행음에도, 일부 개신교인의 지성인답지 못한 행동으로 종교갈등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평위는 "법요식이 진행되는 조계사 앞에서 '예수재단' 소속 신자들이 피켓을 들고 찬송가를 부르며 불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전도행위는 종교갈등을 일으키는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즉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종평위는 "해당 교단은 물론이고 교단을 대표하는 연합기구는 종교간의 화합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이자 지혜로운 종교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참회와 성찰, 다짐으로 국가의 발전과 화합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종교 화합을 해치는 사안이 발생할 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 "신입 대학생 불자, 웰컴!"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들에 웰컴박스 발송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안현민)가 신입회원들을 위한 언택트 선물을 전달했다. 대불련은 최근 1차와 2차에 걸쳐 총 45개학교 391명의 학생에게 웰컴박스를 발송했다.

웰컴박스는 대불련이 현장 대면 활동 중단으로 인한 방편으로 올해 도입한 신입회원 환영 선물이다. 웰컴박스에는 A4파일 케이스와 듀얼티슈, 메탈스티커 3종, 불교동아리 가이드북, 방역세트 등 대학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물품과 불교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LED 희망연등세트, 종이팔모등만들기 세트, 연꽃포스트잇, 단주, 발우저금통 등이 함께 담겼다.

한편, 대불련은 연등회보존회와 함께 전승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교육을 6월 진행한다. 용산구 백년손님 식당 건물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6월 12일 연꽃과 연꽃등 제작, 6월 19일 수박등 제작, 6월 26일 초롱등, 팔모등, 지화 제작 등으로 이어진다. (02)2011-1744

노덕현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출가자와 종도를 모집합니다.
수행의 문턱에서 서로 위로하고 탁마를 함께 하실 도반의 인연이 없고,
어느 종단에 이 한 몸을 의지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
또는 발심출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
출가는 했는데 은사와의 인연이 박복 하신 분!
도첩이나 호계첩이 없는 분!
여법한 각종의식 진행방법을 모르는 분! 등
승려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저희 종단에서는
가족같이 교육하고 지도하여 정법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니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총무원장 성곡 지운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 총본산 및 총무원 : 무등산 미륵사
· 부설기관 :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산길7번길 5-11
· 전 화 : 062)234-9834 팩스 062)223-9233
· 손 전 화 : 010-5479-5607 / 010-8623-3010

❋ 출가행자 및 종도모집 안내
기 간 : 상시
자 격 : 신체 건강한 남 · 여 내국인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 “고령사회 요양·임종복지, 포교 방편”

##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원장 취임한 수안 스님



수안 스님은 …충북 보은 출생. 출가 전에는 건국대 국문학과를 다니며 문학소녀를 꿈꿨다. 당시 지도교수의 영향으로 국문학 석사과정에 들어갔으나 교수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후 ‘평생 죽지 않는 스승’을 찾았고 지리산 산청 대원사에서 행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출가 후에는 은사 스님이 “사회 환원할 수 있는 공부하라”는 조언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했다. 군포 매화종합사회복지관장, 구례군장애인복지관장, 거제 중증장애요양시설 반야원장,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을 역임했고, 현재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복지 일선에서 활동하면서도 학업을 이어가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불교사회복지학 석사를, 동국대 일반대학원에서 성운 스님(동국대 석좌교수)을 지도교수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취득했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인간은 늙고 병들어 결국 죽는다. 태자였던 석가모니 부처님도 동서남북 네 곳의 성문 밖에서 ‘생로병사’의 광경을 목도하고 고뇌하다가 출가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생사의 순환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세대는 아무래도 노년의 어르신들이다. 늙고 병들어 가는 노년을 안정적이며 편안하게 보내는 것은 개인 인생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원장으로 6월 1일자로 취임한 수안 스님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6월 7일 원장실에서 만난 수안 스님은 취임 소감을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 연명치료 선호않을수록 행복

“여러 지역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의 운영해 봤지만, 노인요양센터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노인 연명치료에 대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관련 분야를 꾸준히 공부해왔습니다. 그 인연으로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원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수안 스님은 출가 이후 꾸준하게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 · 공부한 불교 복지 전문가다. 현장과 이론이 겸비했다고 평가받는 것은 스님이 이력을 보면 할 수 있다. 수안 스님은 군포매화종합사회복지관장, 구례군 장애인복지관장, 거제 중증장애요양시설 반야원장,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동국대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석 ·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은 올해 초 ‘노인의 연명치료 선호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죽음불안, 우울, 종교 및 경제적 수준의 조절효과’이다. 해당 논문은 경기 지역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65세 이상 어르신 295명에 대한 연명치료 선호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스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명치료를 선호하지 않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수명을 억지로 연장하지 않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이 노인의 자아통합감 형성에 주요하다는 것이다.

“연명치료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치료입니다. 이런 치료는 대부분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많은 의료비가 지출된다는 것인데, 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 자녀에게도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더불어 수안 스님은 노인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연명치료에 대한 시스템이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명치료에 대한 선택문제는 2018년도 연명의료결정법이 개정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연명치료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해요. 외국의 경우 치료에 대한 보조가 나옵니다. 경제적 문제가 있으니 연명치료를 받기란 쉽지 않죠.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노인들이 자기 삶의 만족도를 높여서 자아통합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 불교, 요양 · 임종복지에 관심을

수안 스님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과 기고문 등에서 현대 노인에 맞는 웰다잉 교육과 전국 교구본사별 노인요양원 · 요양병원 설립 등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노인복지 · 요양복지 · 임종복지 삼박자가 불교 포교 해법”이라는 것이다. 스님이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한 개인에 대한 불교적 임종케어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평안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고, 이는 포교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저는 전국교구본사 별로 요양원, 요양병원이 한 곳씩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함께 가야 하거든요. 현재 요양병원은 개신교계가 장악하고 있죠. 지금은 집이 아닌 병원에서 죽는 게 일반적입니다. 의사의 사망선고가 있어야 해서죠. 그래서 노인들이 처음에는 요양원에 왔다가 요양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길게는 요양원에서 10년 정도 사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집이 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요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불교적 요양복지 · 임종케어가 잘 이뤄진다면 노인 분의 가족들도 불교를 좋게 볼 수밖에 없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존중받고 임종하시는 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불교가 가족들에게 전승될 수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 · 요양복지 · 임종복지’라는 삼박자 복지 포교를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 복지 분야 꾸준히 활동**
**‘노인 연명치료’ 연구로 박사**
**전공인연…요양센터장 취임**

**출가초 투병하며 주경야독**
**“사회 환원 할 공부하라”는**
**은사 스님 조언, 복지 선택**

**전국 본사 요양병원 건립해**
**요양 복지 인프라 확대해야**

### 제 평생 스승은 4명입니다

이내 수안 스님이 노인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 스님은 “남의 일 같지 않아서”라고 짧고 굵게 답했다.

“복지관에 10년 있었는데, 점차 일반종합복지관도 노인복지관이 되어가더군요. 그래서 평소 이 분들이 어른 대접을 받으면서 삶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제 은사 스님과 부모님도 연배가 높으시고요. 주변 지인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큰 문제임을 체감했습니다.”

수안 스님이 출가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매진하게 된 것은 은사 스님의 영향이 크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스님의 출가로 넘어갔다.

본래 수안 스님은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문학소녀’였다. 여기서 평생의 스승으로 모실 만한 교수님과 인연이 돼 학업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떴다. 전공 교수의 갑작스러운 부재에도 석사학위를 마치고 한글학회에 입사했으나 모든 것이 허무했다. ‘죽지 않는 스승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찾아보니 그런 스승은 부처님과 예수뿐이었다. 본래 불자 집안이었기에 부처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지리산 산청 대원사에서 행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출가 전까지 자유롭게 살다가 갑작스레 시작한 출가 생활은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랬던 탓일까. 몸에 큰 병이 났다. 그럼에도 스님이 되기 위한 공부는 멈추지 않았다. 이런 근기를 본 은사 행돈 스님은 어느 날 스님을 불러 “탁자밥 먹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공부를 하라”고 충고했다. 은사의 충고에 고민을 거듭한 수안 스님은 ‘사회복지’ 분야에 매진하기로 결심한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불교사회복지학 석사를 받은 스님은 전국의 복지관에서 관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면서도 동국대 일반대학원에 진학해 성운 스님(동국대 석좌교수 · 삼천사 회주)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박사학위를 틈틈이 준비했다. 낮에는 복지관장으로 복지 일선을 책임지고 밤에는 학업에 매진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지난해 박사 학위를 받게 됐다.

“제게는 평생의 스승이 네 분 계십니다. 대학 때 국문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저를 불문(佛門)으로 이끌어주신 부처님, 저의 은사 행돈 스님, 지도교수 성운 스님이죠. 훌륭한 스승에 누가 되지 않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죠.”

수안 스님은 불교 노인복지 분야 연구와 발전에 노력하려 한다. 우선, 새로 원장으로 부임한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를 ‘우리는 어르신 위해 존재한다’는 기조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가 어느 기관에 가든 종사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세요’라고 답해요. ‘어르신들을 위해 이렇게 좀 잘해주세요’라고 답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르신과 복지 수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말미 수안 스님은 “임종케어 부분에서 종교성이 연결되지 않은 점이 안타까웠다”며 말을 이었다. “죽음과 불교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지를 더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관련 저서를 발간하거나 강연도 하고 싶고요. 꿈은 야무지죠. 하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 | 1일차(9월 8일, 수) | 2일차 (9월 9일, 목) | 3일차 (9월 10일, 금) |
|---|---|---|---|
| 09:00~12:00 | |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 마음과 과학 특강 |
| 14:00~17:00 |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 현대인을 위한 포교 | |
| 18:30~20:30 |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 |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1 안양시 시민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

제7기 행복한 부모되기
마음 치유와 자녀심리 이해

대상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선착순 40명)
기간 2021년 5월 25일 ~ 2021년 7월 13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한마음선원과학원 3층(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신청 및 문의 함께하는 진화 홈페이지 edu.hansi.org
전화 031-470-3198, 3200
매주 월요일 휴무
수강료 무료교육(안양시 지원금으로 교육진행)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 | |
|---|---|---|
| 1회 | (5/25) | 괜찮아(수용하기) |
| 2회 | (6/1) | 다그치지 말아요(무의식 이해하기) |
| 3회 | (6/8) | 평가하지 말아요(마음 자각하기) |
| 4, 5회 | (6/15) | 쉼(관계의 통찰) & 걷기명상 |
| 6회 | (6/22) |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
| 7회 | (6/29) | 고맙습니다(부모 역할 자각) |
| 8회 | (7/6) | 우리, 안아줘요(건강한 가족) |
| 9, 10회 | (7/13) | 내 안의 꽃을 피워요(성찰과 비전) |

# 울산서 펼쳐진 생명살림 환경콘서트

## 울산불교환경연대, 6월 6일 천그루 축제 개최

### 생명 위한 탄소 중립 강조
### 임현정·라마 등 환경공연
### "생활속 습관의 개선필요"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울산불교환경연대가 6월 6일 울산 울주군 녹색사찰 백련사 대웅전 앞 마당 특설무대에서 '천그루 축제 환경 콘서트'를 개최했다.

탄소중립과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환경콘서트가 진행됐다.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는 6월 6일 울산 울주군 녹색사찰 백련사 대웅전 앞 마당 특설무대에서 '천그루 축제 환경 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과 광주전남 공동대표 해오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창립준비위 안도 스님 등 각 지회 운영위원과 사무처 활동가들이 모였다. 또 조병철 남부 지방 산림청장, 노옥희 울산광역시 교육감, 이선호 울주군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환경콘서트는 나무를 위한 콘서트였다. 탄소를 흡수하고 맑은 산소를 배출해 지구의 온난화를 막아주는 탄소흡수림을 소원하고 지키기 위한 생명콘서트였다. 이번 콘서트를 위해 울산환경연대 주지 천도 스님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현정과 환경을 위한 음악가·그린 아티스트 '라마'를 초청했다.

또 백련사는 콘서트 뿐 아니라 환경행사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 현장에서는 NO플라스틱 작품전이 진행돼 플라스틱 사용의 위험성을 알렸으며, 지구 환경 구호를 적은 피켓도 사찰을 장엄했다.

백련사 측은 EM발효액과 부채 등을 나눠주며 환경을 위한 생활 변화도 촉구했다. 이번 행사서는 많은 대중의 참여에도 일회용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 환경콘서트다운 모습을 보였다.

본격적인 콘서트에서 가수 라마는 곡 '나쁜 사람', '천지인', '어디서 왔니?' 등을 부르며 대중들에게 환경 메시지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아울러 울산환경연대의 구호 '지구는 시원하게 마음은 따뜻하게'를 가사로 붙여 만든 '지구송'을 대중과 함께 불렀다.

임현정 피아니스트는 '리스트 초절기교 에튀드 10번',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7번 1악장', '드뷔시 꿈', '베토벤 운명 교향곡 피아노 버전', 임현정 작곡의 아리랑판타지 등 다양한 곡을 선사했다. 임현정 피아니스트의 연주에 대중들은 숨을 멈춘 듯 집중했고 곡이 끝날 때마다 큰 박수로 화답하며 호응을 보냈다.

참가한 대중들은 "새로운 방향의 신선한 환경운동 사례를 접했다"며 "노플라스틱 전시와 다채로운 활동 등을 통해 탄소흡수림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 받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도 스님은 "우리의 집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예전과 같은 일상을 원한다. 지구의 아파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중환자를 치료하듯 생활 속 전환을 해야 할 때"라며 "자비심을 발현해 상처를 치료하는 작업이 오염된 곳을 정화하고 나무를 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천그루 축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홍법사, "호국영령이여! 영면하소서"

## 제31회 허공마지 홍법 바라밀재 봉행


홍법사는 6월 6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제31회 허공마지 홍법 바라밀재'를 봉행했다.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법석 '허공마지 홍법 바라밀재'가 개최됐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6월 6일 경내 대광명전에서 '제31회 허공마지 홍법 바라밀재'를 봉행했다.

행사는 불공에 이어 개회사 및 헌다로 시작해 △삼귀의 △보현행원 △우리말반야심경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 △경과보고 및 내빈소개 △기념사 △인사말 △음성공양 △시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지 심산 스님,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창건주 가족을 비롯해 김희만·김건웅·유수재 홍법사 고문, 김수현 여성개발원 원장, 이대원성 보살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허공이 진리임을 이해하고 허공을 향해 마지를 올리며 호국영령을 기렸다. 허공처럼 부처님의 법이 널리 퍼지기를 발원하며 바라밀재를 올린 지 31년이 되었다"며 "허공마지 바라밀재는 창건주인 하도명화 보살의 원력이었다. 그 신심과 원력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 사업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1989년에 부산불교장학회가 창립되고 이듬해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이 창립됐다. 1991년부터 영주암에서 제1회 홍법바라밀재를 개최하여 홍법대상을 시상하고 장학금 및 불교단체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1996년부터 청소년 불교지도자와 포교 공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열린 제1회 홍법 어울림 마당을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라 명하고 두구동 신창농원(현, 홍법사)에서 봉행했다. 1999년부터 홍법바라밀재와 홍법어울림 마당의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를 통합해 호국영령을 천도하고 불법홍포를 아우르는 현재의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행사를 봉행하게 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대강백 백운스님 추모 1주기 다례제 봉행

송광사, 화엄사, 범어사 등 평생 강학에만 전념했던 백운당 지흥 대강백(1934~2020)의 1주기 추모 다례재가 봉행됐다.

전남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는 6월 7일 대웅전에서 1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를 개최하고 스님의 사상과 뜻을 이어가는 행사를 가졌다.〈사진〉

행사는 종사영반과 문도대표의 헌다, 행장소개(백양사 수좌 일수스님), 추모입정(육성법문), 추모사(범어사 주지 경선, 백양사 주지 무공), 내빈헌화 및 헌다, 문도대표(진우 스님) 인사, 파산게로 이어졌다.

진우 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큰스님의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도록 문도들이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안내사 양성해 환수 문화재 가치 알린다

## 고성옥천사, 환수문화재 도슨트 양성 교육 실시



옥천사는 6월 6일 경내 무우당에서 '환수문화재 도슨트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경남 고성 옥천사가 환수문화재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전통불교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 옥천사(주지 종성)는 6월 6일 경내 무우당에서 '환수문화재 도슨트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산사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문화재 환수의 의미 및 가치를 교육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진행됐다. '환수문화재 도슨트 양성교육'에는 주지 종성 스님, 원명 스님, 오세덕 경주대 교수와 수강생이 동참했으며 개회식에 이어 주지 종성 스님의 인사말 후 강의가 진행됐다.

이 날 강의는 오세덕 경주대 교수가 담당했으며 옥천사 사찰건축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세덕 교수는 "옥천사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고종까지 9번의 중창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왔다. 시대별 조상들의 손길을 모두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그 역사는 옥천사 사적기를 통해 자세히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수문화재 도슨트 양성교육은 △옥천사의 사찰건축(오세덕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을 시작으로 △6월 13일 대웅전과 명부전 불상을 중심으로(이희정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6월 20일 옥천사 괘불을 중심으로(김미경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6월 27일 옥천사 소장 불서의 종류와 가치(이종수 순천대 교수) 순으로 진행된다.

주지 종성 스님은 "옥천사에는 프랑스에서 돌아온 시왕도(보물 제1693호, 제2조강대왕도), 미국에서 찾아온 나한상(도유형문화재 제628호) 등이 있다. 환수문화재의 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문화재 환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나라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사랑의 바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한국전쟁 희생자 위한 수륙대재 눈길

## 함안 달전사, 제15회 천지명양 무차수륙대재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영면을 발원하는 수륙대재가 봉행됐다. 경남 함안 달전사(주지 원명)는 6월 6일 경내에서 '제15회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위한 천지명양무차수륙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수륙대재에는 달전사 주지 원명 스님, 정광 스님, 지융 스님, 윤성 스님, 만백 고봉 문도회 스님들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수륙대재는 △대령 △신중작법 △괘불이운 △영산작법 쇄수결계 △사자단 △오로단 △소청상위 △소청중위 △소청하위 △상,중진공 △하위시곡 및 하위수계 △화청 장엄염불 △봉송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원명 스님은 "수륙재는 대한민국의 많은 전란 가운데 함안지역의 영혼들을 위로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며 "수륙무차라는 말처럼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모든 산사람과 영가가 함께 공덕을 짓고 받고 베풀며 화합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안 달전사가 위치한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최종 방어선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장소이다. 당시 희생된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천지명양무차수륙대재가 봉행되고 있다. 아군과 적군, 민간인 희생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확인된 국군영가 1854인의 명단을 표기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공 고

- 대법원 임시종정 선임결정 -

**결 정**

**사 건**
2021마5232 임시총정선임

**신청인, 상대방**
1. 황의용(법명: 청암) 2. 전점주(법명: 혜공)
3. 고영욱(법명: 지혜) 4. 국순철(법명: 태성)
5. 이종도(법명: 명운) 6. 임우섭(법명: 성암)

**사건본인**
대한불교원효종

**사건본인 보조참가인, 재항고인**
1. 오양근 2. 이은우 3. 이춘근 4. 정성일
5. 이규만 6. 배재식 7. 손영채

**원심 결정**
대구고등법원 2021. 1. 12.자 2020 라3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손영채는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재항고인 손영채의 재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9조에 따라 기각하여야 한다.

나머지 재항고인들의 상고이유와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나머지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도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년 6월 1일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직인 변경 공고

대법원 임시종정 선임결정에 따라
대한불교원효종 대표권자로 유일 적법한
임시종정 이종윤(법명:원호)스님이 되었음을
알려 드리고 종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운영체제를 임시종정 이종윤(법명:원호)스님이
종단이 정상화 될 때까지 운영할 것입니다.

대표권사칭, 대표권 행사행위는
민, 형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합니다.

임시종정 새직인

불기 2565(2021)년 6월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이종윤(원호)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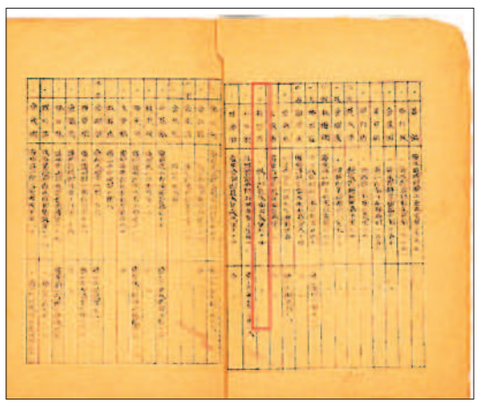
#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 병원에 입원”

## 통도사 정양원 관련 추가증언 나와 눈길

### 유창수 어르신 입원 당시 증언 “스님은없고 중상 환자들 많아” 통도사, 용화전 호국미륵불 봉안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 관계자들이 31육군병원 통도사 정양원에 입원했던 유창수 어르신의 증언을 청취하고 있다.


유창수 어르신이 육군 839부대 제1대대서 받은 제9차 상이군인명예제대장명부.

“영덕 전투에서 다리에 관통상과 팔에 파편상 그리고 귀를 다쳐 1951년 여름경 31육군병원 통도사(정양원)에 입원했습니다. 통도사에 갔더니 스님들은 다른 곳에 옮겨놓고 환자들만 있었습니다. 통도사 정양원 분위기는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중상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31육군병원 정양원)에 입원한 유창수(94)어르신이 ‘31육군병원 정양원’이 실재했음을 증언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6월 8일 유창수 어르신의 증언을 청취한 31육군병원 증언 자료를 공개했다.

유창수 어르신은 6·25 한국전쟁 발발 1년 전인 1949년 입대했다. 영덕전투에서 부상당해 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정양원)에 입원해 3개월 정도 정양을 마친 후 전투 불능상태로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839부대에서 전역했다. 면담에는 통도사 기획국장 지범 스님, 기획과장 혜덕 스님, 총무과장 정대 스님이 참여했다.

유창수 어르신은 “내가 거처한 방도 알고 있다. 내가 거처한 방에서 대웅전까지 100미터도 안됐다”며 “한방에 보통 4~5명씩 들어갔다. 당시에 공비가 통도사에 많이 내려와서 보초들이 항상 서 있었다”고 증언했다.

유창수 어르신의 조카 박동철 씨는 “10년 전 통도사에 모시고 방문했을 때 대광명전 법당에 들어가 한참 후 법당을 나와서 ‘여기서 사람이 많이 죽어 나갔다’ 고 많이 우셨다”고 증언을 덧붙였다.

통도사는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에 입원해 사망한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국가 위기 상황에 호국사찰로 역할을 다한 불교의 위상을 널리 알린다는 의지이다.

이를 위해 통도사는 6월 1일 용화전에 백옥 미륵부처님을 봉안했다. 〈미륵하생경〉에 나오는 56억 7000만년 뒤 용화세계가 실현되고 미륵 부처님이 강림한다는 의미를 담아 1000만년을  한분의 미륵 부처님으로 상징화해 567미륵불을 모셨다. 통도사가 육군병원 분원으로 사용됐다는 최초 증언이 용화전 불상 속 연기문을 통해서 확인 된 바 있어 의미가 크다. 당대 구하 스님이 쓴 연기문으로 국군 상이용사 3000여명이 입사 후 퇴거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통도사 기획국장 지범 스님은 “6월 8일 방장 스님께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 정양원에 입원한 군인 가족들이 방문했었다. 학도병으로 입대해 전사한 군인의 가족이었다.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호국정신을 기려야 한다”며 “통도사는 신속하게 호국 현충시설로 인정받아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재 등을 봉행해 순국선열과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보훈처 보훈선양팀은 “통도사 현충시설 지정을 위해 6월 4일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로 심의 자료를 보냈다”며 “현충시설 심의위원회 회의 후 결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부산 ‘우리절대법화원’ 개원하는 대풍범각 스님

# 6월19일 오전10시 점안 및 개원 법회

## “도심속 문화 힐링 도량으로 키우겠다”



### 가요교실, 다도, 꽃꽂이 등 문화프로그램 무료 개설해

“불자들의 힐링 공간은 물론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배울 수 있는 전법도량 등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찰로 운영할 것입니다. 불법만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요즘같이 코로나 정국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이 시대에 너무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힐링 콘텐츠를 개발해 편안히 와서 즐기고 힐링하며 쉬고 싶은 도심 속 힐링 문화공간으로 도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 19일 오전 10시 부산시 남구 용호동 도심상가에 ‘우리절대법화원’ 포교당을 개원하는 대풍범각 스님(밀양 사천왕사 주지 · 사진).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찰대본산 범어사서 전(前) 대각회 이사장 흥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동국대 일반대학원 석사를 취득한 후, 10년 동안 무문관 수행을 했다. 현재는 견불사, 실상선원, 사천왕사 창건주 겸 회주이며 붓다야나명상대학 학장, (사)행복한사회 이사장, 대한불교자비공덕회 대표, 부산 대각정사 및 공덕원 주지를 맡아 불법 홍포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대풍범각 스님은 마음법을 쉽게 설명한 〈진심법문〉 강의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번에 개원하는 ‘우리절대법화원’은 1993년 〈여보게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의 수필집 저자로 출간 당시 150만부 이상 팔아치우며 큰 인기를 얻었던 석용산 스님이 도심 포교를 하던 곳이다. 대풍 스님은 “당시만 해도 ‘공덕원’이란 이름으로 석용산 스님이 많은 불자들에게 전법 포교를 한 곳입니다. 하지만 스님이 열반하신 이후에는 사세가 약화되고, 근간에는 근근이 운영되었는데 때마침 지난해 법문 하러 가면서 첫 인연이 됐지요. 법문을 하면서 30년 이상 운영된 유서 깊은 도량인 이곳서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석용산 스님의 원력과 유지를 받들어 도심 포교를 해야 겠다는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대풍 범각 스님은 산속과 도심을 가리지 않고 원력과 뚝심으로 절과 포교당을 10여곳 개원한 포교 레전드이다.

법화산서 무문관 수행을 하고 나온 직후 스님은 부산 장전동 온천장 인근에 ‘법화원’을 첫 개원한 이후 지리산 경남 함양 ‘견불사’와 선방인 ‘실상선원’, 2003년에 서울 상계동 ‘사천왕사’, 부산 해운대에 ‘법화불교대학’과 ‘명상센터’ 및 대각정사, 밀양 사천왕사를 잇달아 열고 진심법문 포교에 진력해 왔다. 정확히 꼽으면 이번 부산 ‘우리절대법화원’은 스님이 창건한 10번째 도량인 셈이다.

“도심 포교를 흔히들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은 운영상 손익을 따져서 그런 겁니다. 인연따라 없으면 없는대로 부족한 상황이라도 불자들에게 전법과 포교에만 열과 성을 모두 쏟는다면 경제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지언정 포교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처럼 사찰을 위계에 의해 경직되게 운영하지 말고, 휴게실화 놀이터화 시켜 언제든 편안히 찾아와 상담 받고 쉼터 같은 열린 공간을 만든다면 도심 포교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5층 건물에 자리한 ‘우리절대법화원’은 총 250평 규모로 법당은 150평 정도다. 200~300명 정도가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마지막으로 대풍 범각 스님은 “9월부터는 한달에 한번씩 백고좌 법회를 열어 신도들에게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찬불가 및 가요 배우기교실, 국악춤과 현대무용, 다도, 꽃꽂이, 서예 사경, 건강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해 20대~70대까지 누구나 와서 무료로 즐기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버 노인 불자들을 위한 스트레스 및 화병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절대법화원’은 6월 19일 오전 10시 흥교 스님(창원 성주사 조실)을 증명 법사로 모시고 ‘부처님 점안식 및 개원 법회’를 봉행한다. (051)892-5000 부산=김주일 기자

## 선운사 전통산사 문화재활용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2021년도 전통산사 문화재활용사업 ‘도솔산 선운사 산중 기행’을 진행했다.

5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선운사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은 대웅전(보물 290호), 만세루(보물 2565호),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 279호), 영산전(시도유형문화재 277호), 석씨원류(시도유형문화재 제14호)등 천년고찰 선운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하여 진행됐다. 특히 선운사 만세루에서는 작은 음악회 ‘달빛아래 도솔천을 거닐다’ 공연이 열렸다. 또한 인경 및 탁본 체험, 일주문에서 도솔천 산책로를 따라 걷는 ‘달빛 기행’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승가교육 활성화에 역주할 것”

### [인터뷰] 대한불교선재종 총무원장 지운 스님



**습의의식과 승가교육 실시**
**2주간 전문 프로그램 제공**
**광주미륵사 선재원서 진행**

대한불교선재종(총무원장 지운)이 종단의 후학을 양성하고, 기존 승가교육과 습의를 배우지 못한 스님들을 위한 교육을 개설한다.

총무원장 지운 스님(경북 영천 용화사 주지 · 사진)은 “주위에 보면 무늬만 스님들이 너무 많다. 삭발염의는 하였지만 습의도 모르고, 은사도 없이 스스로 출가한 분들이 많아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저희 종단에 인연을 맺어 체계적 교육을 시키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선재종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재동자의 구법정신을 본받아 선지식을 찾아 자기를 점검받고, 수행정진 하는 종단이 되자’라는 취지로 교육을 진행한다. 2016년 창종한 대한불교선재종은 전문 교육공간과 2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기교육은 광주 무등산 미륵사 선재원에서 진행된다.

교육을 이끌 총무원장 지운 스님은 40년 전 순천 송광사에서 출가해 수행생활을 이어왔다. 스님은 승가교육없이 출가자가 된 스님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교육과 예법에 대해 늘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스님은 “저작거리에 있는 무수한 부처님을 친견해야 한다. 폐지를 줍고 다니는 노인 부처님 등 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분이 부처님이다”며 “그 사람들의 고뇌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과 같은 동사섭(同事攝)의 마음이 되었을 때 진정한 수행자”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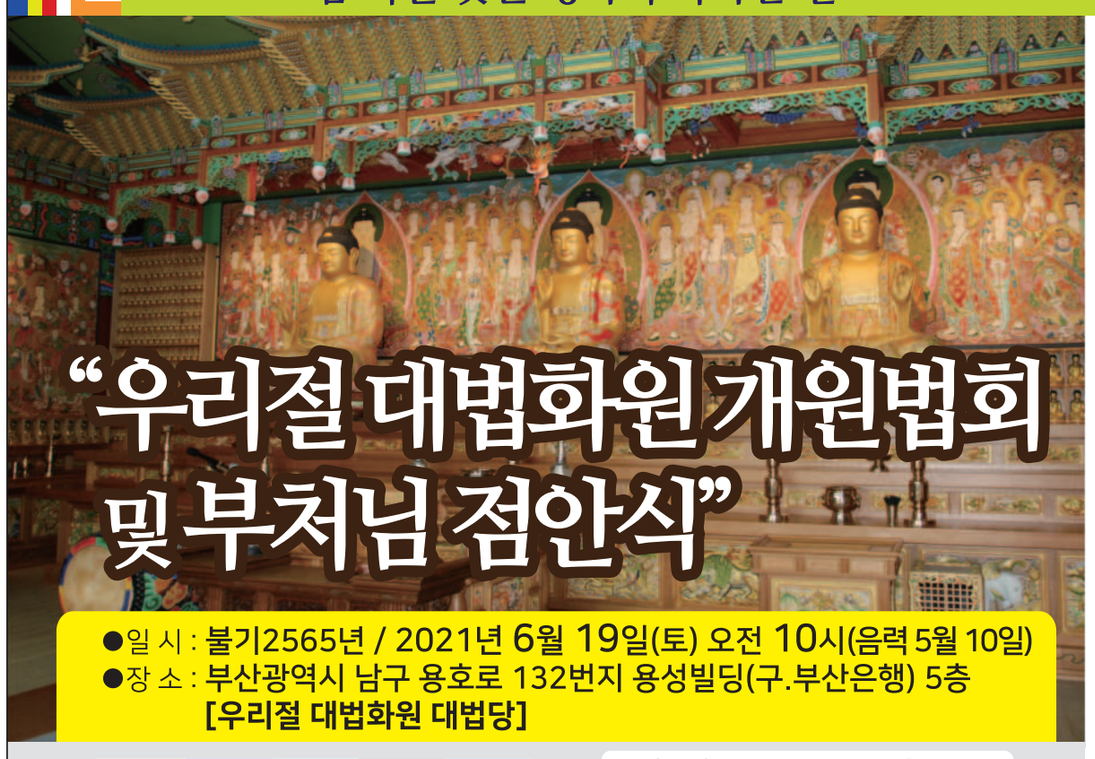
선재종은 총본산인 무등산 미륵사와 부설로 운영하는 사찰음식전문 수자타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포교 구심점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출가 이후 화두참구를 하고 있는 지운 스님은 최근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화두로 수행하고 있다. 백양사 서옹 스님이 즐겨 쓰던 ‘수처작주’를 생활 기조로 정진하고 있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 하거나 뒷꽁무니만 쫓는 것은 남들 흉내만 내는 것이니, 항상 있는 곳에서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참 나를 찾는 행복이 가득한 절




법화신행도량
우리절대법화원
BTN 불교TV 진심법문 방송 도량
상담문의 : 051) 892-5000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32번지 용성빌딩 5층 (구 부산은행)




## 불자교육 시민선방

불자여러분!
한국불교 대표방송인 BTN불교TV에서 ‘진심법문’을 인기리에 강설한 대풍범각스님께서 그동안 닦아온 수행경험과 법력으로 불자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특화된 불교 신행 전문포교원 “우리절 대법화원”을 개원합니다.

첫째, “우리절 대법화원”에서는 주지 대풍범각 스님의 진심법문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큰스님들을 초청설법을 통하여 불자여러분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절 대법화원”은 불교의 진리와 신행을 배우고 익히는 포교원일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익히는 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도, 서예, 꽃꽂이, 불화그리기, 노래, 선 체조 등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열어 불자님들의 불성과 인성계발은 물론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생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이 가득한 절’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셋째, 주지 대풍범각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방법’과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불자여러분! 오랜 신행 속에서도 깨달음이 열리지 않고 삶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세요.
‘우리절대법화원’의 주지 대풍범각 스님과 함께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신다면 분명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시게 될 것 입니다.

불자여러분! “우리절 대법화원의 개원법회” 소중한 여러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참석하는 모든 불자님들께 귀한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주지 : 대풍 범각 스님

대풍 범각스님의 진심법문
YouTube 대풍범각TV



[주지 대풍범각 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출가
● 흥교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 견불사·실상선원·사천왕사·대각정사 창건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 미국코웬대학교 명예 종교학박사
● 현)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이사장
● 현)붓다야나명상대학 학장
● 현)대한불교자비공덕회 대표
● BTN불교TV "진심법문"강의

함께 하실 가족을 모십니다.
● 공 양 주:1명
● 종무직원:1명(유경험자 우대)
문의 : 051)892-5000


정정 현대불교신문 제1340호, 제1342호, 제1343호 5면에 게재된 ‘부처님점안 및 개원법회’ 광고내용중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대법화원 대법당을 ‘우리절대법화원 대법당’으로 정정합니다.
사찰명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대법화원을 ‘우리절대법화원’으로 정정합니다

# 日천태종, 종조 사이쵸 1200주기 법요식

## 6월 4일 엔랴쿠지서 진행, 코로나로 행사 축소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고대 불교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위인이자, 일본 천태종 종조인 전교대사 사이쵸(最澄, 766-822) 스님의 입적 1,200주기인 6월 4일을 맞아 일본 천태종 총본산인 엔랴쿠지(延曆寺)가 기념 법요를 봉행했다.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교토신문' 등 일본 주요언론들은 법요 행사를 특별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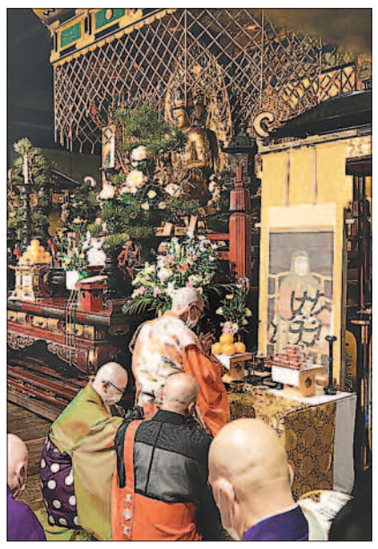
사이쵸 스님 기일인 6월 4일, 엔랴쿠지 동탑 대강당에서 봉행된 기념법요 '고쇼도 법요(御祥當法要)'는 현 일본 천태종의 종정인 천태좌주 모리카와 코에이 스님을 법주로 17명의 대중스님들이 이끌었다.

올해로 입적 1200주기를 맞이한 사이쵸 대사의 기일에 맞춰, 일본 천태종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기념사업을 준비하였으나 격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축소 및 중단됐다. 4일 봉행된 기념법요 역시 대폭 축소돼 진행됐다.

엔랴쿠지 측은 "본래 50년마다 돌아오는 기일을 대원기(大遠忌)로 삼아 평소보다 엄숙하게 기도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1,200주기와 겹쳐 더욱 장엄하게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 시국 속에 축소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대신 모든 법요를 3일에 걸쳐 진행하는 등 그 내용적인 면이 더욱 강화됐다.

첫 기념법요는 6월 3일, 종정인 천태좌주 스님이 사이쵸 대사의 진영에 차와

### 8세기 당유학 천태종 개창
### 전국순회 특별전 개최 예정



사이쵸대사의 진영에 손을 모으는 모리카와 코에이 천태좌주. 사진출처=교토신문

향을 올리는 의식으로 시작됐다. 기일 당일인 4일에는 강당의 내부를 요잡하며 염불을 외우는 상행삼매(常行三昧)가, 5일에는 태장만다라공양(胎藏曼荼羅供養) 등이 진행됐다.

4일 진행된 상행삼매에서는 1200년 전 사이쵸 대사의 손으로 직접 점등해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는 등불 '불멸의 법등'이 엔랴쿠지의 근본중당(根本中堂)에서 분등(分燈)돼 법요식장인 강당으로 이운됐다.

모든 법요 의식은 천태좌주의 집전 하에 쇼묘(聲明)라고 하는 일본식 범패와 작법으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참가하지 못한 불자들을 위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됐으며, 행사 중간에는 명사들이 영상으로 참여해 사이쵸 대사가 남긴 명언들을 낭독했다.

4일 오전에는 특히 대강당에서의 기념법요가 이뤄지기에 앞서 천태좌주와 각 천태종 본산의 주지 스님들이 모여 사이쵸 대사의 탑묘(塔廟)에 헌다했다.

엔랴쿠지 측은 "헌다된 차는 사이쵸 대사가 당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차나무 후손에서 채엽한 것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차밭에서 제다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천태교학을 이어 나간다는 뜻에서 참가자들이 〈법화경〉의 내용을 서로 문답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법요를 회향한 후 일본 천태종 아베 쇼코 종무종장 스님은 "종조께서 원하셨던, 안정과 조화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속히 코로나 19가 안정되어 많은 분들이 종조의 발자취를 느끼러 와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교대사 사이쵸는 8세기경 당으로 유학하여 천태교학을 일본으로 가져와 천태종을 개창했다. 이후 수도인 교토의 북쪽에 엔랴쿠지를 개산하였고, 이후 엔랴쿠지는 천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교사상의 산실이 됐다. 일본 천태종과 일본 문화청은 사이쵸 대사 1200주기를 기념해 '사이쵸와 천태종의 모든 것'이라는 전국 순회 특별전을 개회할 예정이다. 특별전은 오는 10월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시작되며, 내년 5월 교토 국립박물관에서 종료될 계획이다.

# 달라이라마, 티베트 청년들에 온정 전해

## 연례 티베트 청년 법회, 온라인으로 진행돼

지난 6월 3일 티베트 전문매체 '파윱'은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청년들을 위한 연례법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달라이라마는 올해 법회의 주제로 쫑카빠 대사(1357~1419)의 증도가(證道歌)를 교재로 양일간 법문을 진행했고, 질의응답을 통해 티베트 청년들에게 연민과 따듯한 온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모든 법문은 한국어를 포함해 각국의 언어로 통역되어 온라인 생중계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법회는 먼저 달라이라마가 쫑카빠 대사의 증도가를 설명하고, 이어서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티베트인 청년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달라이라마는 법문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의 불안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대처하는 법을 배우면서 분노와 갈애를 줄이고 사랑과 자비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 우리 안에 평화가 깃들 것이며, 이러한 감정들이 점차 늘어나면 세상 역시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자비심을 실천할 것을 거듭 역설했다. 질의응답시간에서 한 티베트 청년은 일상에서 유혹에 빠지지



달라이라마가 다람살라 관저에서 티베트 청년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텐진 잠펠 스님

않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달라이라마는 "마음을 단련하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내면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관찰해야 한다. 이는 갈애와 분노와 같은 불안정한 감정들을 다루는 법도 포함한다. 꼭 불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스스로 배우고 반성하고 이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선 이해하고 확신한 것을 명상을 통해 통합해야 한다"고 답했다.

달라이라마는 특히 현대의 불자들은 단지 경과 논서에 쓰여 있다고 해서 맹신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달라이라마는 "옛 경전과 논서에는 수미산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 틀린 주장이다. 우리는 논리와 이성, 과학적인 입증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 사찰에서 캠핑을…사찰 캠핑장 개업

## 템플스테이에 이어서
## 템플 캠핑 개념 도입

캠핑에 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에서 상설 사찰 캠핑장이 문을 열어 화제다. 천년고찰 다이타이지(大泰寺) 경내에 생겨난 '템플캠프'에 대해 6월 1일, 일본의 '야후뉴스', 'PR 타임즈' 등이 보도했다.

다이타이지는 2019년, 1일 2팀까지 받는 소수 템플스테이를 개시했다. 당시 사찰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과 시설, 프로그램 등으로 호평을 받은 후 본격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확대에 나섰다.

사찰 측은 "주지스님이 본래 지역의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외국인 방문객들의 응대에 익숙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사정 등에 밝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다이타이지는 경내의 여유 부지와 시설들을 정비, 확충하여 본격적인 캠핑장을 개설했다. 다이타이지의 캠핑장은 텐트를 칠 수 있는 오프사이드 4구획, 캠핑



사찰 캠핑을 개시한 다이타이지의 모습. 사진출처=템플캠프 공식홈페이지

카나 차량캠핑이 가능한 5구획으로 총 9팀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캠핑장은 2020년 11월에 시작했으나, 방문객들의 제안과 건의를 반영하여 규모와 프로그램, 제공서비스 등을 새롭게 정비하여 재개장에 나섰다. 지금까지 사찰이 경내에 캠핑을 허락하거나 이벤트성으로 캠핑장이 열린 적은 있었지만, 경내에 상설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은 일본에서 최초다.

특히 다이타이지의 '템플캠프'는 이용자가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캠핑 이용자중 신청자는 아침예불과 선방에서의 좌선, 조석예불 전의 범종 타종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주지 니시야마 쥬카이 스님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사찰에서 마음의 평온함을 얻고, 사람간의 인연을 알 수 있는 모두의 공원과 같은 장소가 되길 원한다"며 탬플캠프의 개업취지를 밝혔다.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내여행이 조금씩 다시 재개되면서 안심할 수 있는 여행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청정한 자연 속에 둘러싸인 템플캠프의 장점을 설명했다.

한편, 템플캠프를 개업한 다이타이지는 와카야마현(和歌山県)에 소재한 사찰이다. 다이타이지는 1200년 전 일본 천태종의 개조인 사이쵸(最澄)대사가 지역주민들을 괴롭히던 뱀을 퇴치하고 버드나무로 약사여래를 조성해 모신 것에서 건립됐다. 현재 다이타이지는 약사도량으로 이름이 높다.

천태종 사찰이던 다이타이지는 300년 전, 영주의 명에 의해 임제종 사찰로 변경 후 지금까지 선종사찰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천태밀교와 선종의 두 문화가 어우러진 사찰로 그 문화적 가치가 높다.

박영빈 객원기자

# 고대 인도불교 석굴사원 추가로 발견

## 인도서부 '판다브 레니 석굴군', 2세기만에 추가 발견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나시크 지구의 불교유적인 판다브 레니(Pandav leni) 석굴 근처에서 3개의 석굴이 추가로 발견되어 화제다.

지난 6월 3일 인도 매체 '인디안 익스프레스', '힌두스탄 타임즈'는 판다브 레니 석굴군 근처에서 추가로 발견된 3개의 석굴유적의 소식을 전했다.

판다브 레니 석굴군은 트리라슈미 언덕에 산재한 25개의 석굴사원 유적이다. 1823년, 영국군 제임스 델라메인 대위에 의해 발견된 이 석굴들은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3세기 사이에 조영됐으며, 6세기까지 추가적인 조각과 구조들이 추가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판다브'라는 이름은 팔리어로 황토색을 뜻하는 '판드루(Pandru)'에서 유래했으며, 이곳에 거주했던 스님들의 가사색깔에서 온 것으로 전한다. 자이나교에 봉헌된 11번 석굴을 제외하곤 모두 불교석굴로 인도 고고학 조사국(ASI)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판다브 레니 석굴군 근처에서 추가로 발견된 3개의 석굴유적. 사진출처=인디안 익스프레스

지난 5월 22일 ASI는 유적들의 배수로들을 청소하면서 새로 발견된 석굴중 2곳을 발견했다. 이후 보존팀장인 라케쉬 센데 선임연구원이 현장보존과 주변 수색을 지시하면서 세 번째 석굴도 발견했다.

30년간 판다브 레니 석굴을 연구해온 트리라슈미 불교연구소 아툴 보세카 소장은 "이 석굴은 판다브 레니 석굴 반대편에 있으며 기존 조영지들보다 20m 가량 높게 있다. 조각의 양식을 보면 판다브 레니 석굴보다 오래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구조에서 승려들의 주거지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9~6/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현실은 영원이다 : 지광스님의 삶과 죽음에 관한 법문 | 지광스님 | 위로 |
| 2 |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 아헹가/현천스님 | 선요가 |
| 3 |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자식의 크신 사랑 | 김원수 | 바른법연구원 |
| 4 |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 출간 원고 68편 수록 | 법정스님 | 불교신문사 |
| 5 | 프리스틴 마인드 : 궁극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초월 명상 안내서 | 올갠 초왕 린포체 | 운주사 |
| 6 |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 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 원빈스님 | 이층버스 |
| 7 | 불교성전 | 조계종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
| 8 | 운허 큰스님의 한산시와 남은 돌 모둠 | 운허스님 | 맑은소리맑은나라 |
| 9 | 공과 윤리 : 반야 중관에 대한 오해와 이해 | 김성철 | 오타쿠 |
| 10 |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 천시아 | 젠북 |




# 내가 아는 '불교 상식' 오류라면?



불교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0가지

이일야 지음

불광 펴냄/2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는 철학인지 종교인지에서부터 시작해 교리 · 역사 · 수행 등은 물론 돈오돈수와 돈오점수 논쟁까지, 불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반인에서부터 불교 '초보탈출'을 꿈꾸는 불교 입문자들까지, 불교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100가지 문답으로 정리한 책이다.

'부처님은 왜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인가?' '윤회는 정말 존재하는가?' '대승불교는 정말 붓다의 말씀이 아닌가' '불교는 깨침의 종교라고도 하고 자력신앙이라고 하는데 정토신앙은 타력신앙이 아닌가' '불교에서는 육식을 금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부처님께서는 고기를 먹어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등등.

일반인은 물론 불교에 입문한 지 오래됐어도 여전히 궁금하거나 아리송한 것들이다. 이처럼 불교를 어렵다고 느끼는 건 비단 방대한 교리 때문만은 아니다. 세월이 켜켜이 쌓이면서 초기불교, 아비달마불교, 대승불교 등으로 변해왔고, 지역을 거치면서 인도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 등으로 변해왔으며, 또 어떤 경전을 소의(所依)로 하느냐에 따라 불교 앞에 천태, 화엄, 법화 같은 꾸밈말이 붙기도 한다. 게다가 시대와 지역 그리고 불교를 보는 입장에 따라 강조하는 실천이 달랐으니 위빠사나, 묵조선, 간화선, 염불, 주력 같은 수행들이 그렇다.

우선 이 책은 앞에 언급한 교리, 역사, 수행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룬다. 교리와 역사는 씨줄 역할을 하고 수행은 날줄 역할을 한다.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와 같이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들에 대한 문답이 있고, 불교의 탄생과 초기불교를 거쳐 아비달마, 대승에 이르는 역사가 이어진다. 이것이 씨줄이라면 불교 수행에 대한 물음과 답은 날줄이다. 붓다를 깨침으로 이끈 위빠사나 수행을 시작으로, 사섭법, 육바라밀, 간화선, 묵조선, 염불, 주력 같은 다양한 불교 수행에 대한 문답이 이어진다.

사실 앞에서 얘기한 교리와 역사 수행에 대한 '대강'만 알아도 일단 '초보' 딱지는 떼는 셈이다. '미륵'이라는 이름을 공유하는 미륵보살과 미륵불이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 정도는 알 수 있다. 미륵보살이 수행을 완성하여 성불하면 미륵불이 되는 것이다. 아미타불, 약사여래, 관음보살, 지장보살 등 다양한 부처님의 이름도 설명해 낼 수 있고, 불교의 핵심 개념인 무상 · 고 · 무아 등 핵심 교리도 이해는 할 수 있다. 불교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 바라밀이나 정진, 보시 같은 단어도 기억하기 쉽게 정리한다.

그런데 불교 교리와 수행 그리고 역사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넘쳐난다. 네이버나 다음 그리고 구글 검색만 이용해도 '대강'은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에도 '불교 상식'에 대해 설명해주는 콘텐츠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 책이 빛나는 이유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오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꼭 집어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100가지 질문과 대답 통해 본 불교 교리 역사 등 주내용 빠짐없이 다뤄**

여전히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포털에는 불교가 버젓이 힌두교의 한 분파로 설명되어 있는 곳도 있다. 이런 초보적인 오류뿐 아니다. 마치 대나무 구멍으로 세상을 보는 듯한 불교 해설도 넘쳐난다. 남방불교를 '소승'으로 폄훼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팽배하며 거꾸로 대승불교는 불설과는 거리가 멀고 또 심지어 이단이라고까지 하는 주장도 있다. 모두 불교의 한쪽 측면만을 강조한다. 마치 눈 먼 이 여럿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품평을 하는 격이다.

여기에 각자의 입맛에 따라 혹은 관념에 따라 만들어진 불교도 넘쳐난다. 오직 선(禪)만이 수승한 수행법이라든가 부처님이 깨달았던 수행법인 위빠사나만이 최고라는 주장도 있다. 오직 명상만이 '불교'인 것처럼 얘기하며 주력이나 염불은 하열하니 '멀리 하라'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모든 주장은 역사적으로 살펴보거나 개인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분명 어떤 부분은 '불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교리와 역사 그리고 수행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자신이 알고 있는 불교만 불교라고 주장하며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제목 낚시'를 하는 누리꾼이나 유튜버들만 따라가다 보면 불교를 '오해' 하기 쉽다.

저자 이일야<사진>는 '종교'와 '불교'로 석사와 박사를 마치고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지금도 불교 입문자들을 위한 강의에 여전히 매진하고 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불교는 앎의 종교이자 삶의 종교'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경전과 불교 역사를 통한 불교적인 해석뿐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이런 거짓된 정보나 애매한 문제 혹은 한쪽 측면만이 강조된 내용들을 낱낱이 벼려낸다.

이 책은 교리와 역사 수행에 대해 알고 싶은 초보자뿐 아니라 불교에 대한 기초 지식은 없지만 인문학을 좋아하는 여러 독자들이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책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좋지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때때로 꺼내놓고 읽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책이다. '불교 초보 탈출'을 위한 '소장용 도서'다.

▲저자 **이일야**는?

본명은 이창구이며, 일야(一也)는 법명이자 필명이다. 전북대 철학과서 학부와 석 · 박사과정을 마쳤다. 전북대와 전주교육대, 송광사승가대학서 철학과 종교학, 동양사상 등을 강의했으며 보조사상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현재 전북불교대학 학장과 (사)부처님세상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아홉 개의 산문이 열리다〉와 〈동화가 있는 철학 서재〉 〈안다는 것, 산다는 것〉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불교학의 해석과 실천〉(공저) 등이 있고, 〈Hegel의 중국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나옹선의 실천체계〉 〈진심과 오수의 구조〉 〈조선 중기 보조선의 영향〉 등을 비롯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불교의 외연을 넓혀 이를 종교학이나 철학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연구 및 저술에 집중하고 있다.

# 하루하루 단단해 지는 엄마 조언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박윤미 지음

메이킹북스 펴냄/1만 4800원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내 자신보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기꺼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세상 모든 엄마들이다. 그처럼 이 책은 삶과 세상에 대한 고민을 엄마의 따뜻한 마음으로 어루만지고, 용기를 전해준다. 때로는 따끔한 말 한마디와 조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정확한 시선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포옹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안아준다.

저자 박윤미는 결혼 후 수년간 전업주부로 살다가 뜻한 바 있어 한의대에 뒤늦게 입학해 한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 세 아이의 어머니로 살면서, 보건소 한방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한의사로 살면서, 그동안 겪은 현실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경험을 통해 하루하루 단단해지는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

20대에 대승불교양우회에 입문해 부처님 법문을 배웠고, 부처님 가르침을 삶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서 알게 된 위대한 불교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고자 저술하게 되었다. 불교는 비현실적이고, 허무적이며, 정적이고, 역동적인 종교라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는게 저자의 출간 취지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저자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은 저 멀리 산속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현실의 삶 속에 공부하고 실천하는 과정서 만날 수 있음을 책 속의 모든 문장서 확인할 수 있다.

책에서 나오는 엄마의 말은 이렇다. "맞아. 대부분 사람들은 각자 마음 쓰면서 살아온 방식이 굳어져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니까, 행위 저변에 깔린 마음을 의식하지 못해. 그래서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의 만남을 떠올리면서 네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말이야. 처음에는 네가 했던 모든 언행이 완벽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 심지어 상대의 잘못만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해. 엄마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매일 하다 보면 미처 몰랐던 네 마음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거야."

또다른 엄마의 말이다. "엄마가 학생 시절, 장애인 시설에 의료 봉사를 다닌 적이 있어. 당시에 부모, 형제가 있는데 버려진 사람들은 법적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더욱 열악한 시설에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런 시설 이름엔 꼭 '희망, 소망, 사랑, 행복'과 같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세상 가장 밑바닥에 행복이라곤 털끝만치도 없어 보이는 곳에 정반대의 뜻을 지닌 이름들이 붙어 있었던 거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가 앞으로 말이나 단어에 속지 않고 살았으면 해서야. 진짜 희망은 정확하게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야."

엄마인 저자의 주옥같은 경험과 깨달음을 눈높이를 자녀에게 맞춰 삶의 지혜를 정리해 놓아 이해하기 쉬운 것은 물론 마치 우리 엄마가 곁에서 조언해주는 것 같은 친근감도 느껴진다.

이 책은 이처럼 총 4개의 장에서 청춘들의 삶과 고민을 담아낸다. 삶을 살아내느라 진짜 살 시간이 없어진 현대인의 모습, 온갖 불합리한 현상들이 난무하는 사회,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관계들…. 이토록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청춘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고 길을 제시한다. 또한 이 책은 엄마와 자녀들이 나누는 대화 형식으로 구성돼 있고, 현실적이고 쉬운 언어로 서술돼 불교에 관심 있는 초보자들에게 권하기 좋다. 이 책에 수록된 30편의 글은 아이들이 세상을 마주하며 궁금했던 이야기를 질문하고,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삶을 탐색하고 불법을 알아가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누구나 읽어도 세상살이에 유용할 것 같다. 젊은 세대에게는 살면서 직면한 문제들을 깊이 사유하고, 그 답을 얻는 과정에 큰 도움을 주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자녀에게 불교를 전해주고 싶은 부모 세대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불교를 먼저 공부한 선배로서, 세상의 풍랑을 앞에 둔 청춘들에게 부처님 법을 소개하고 싶었다. 나에게 젊은날의 병고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 불교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라며 "불교는 세상속에서 사랑과 청취를 즐기면서도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종교였다. 이토록 경이로운 불법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저자 **박윤미**는?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수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결혼 후 수년간 전업주부로 살다가, 다시 한의학 공부를 시작해 대전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보건서 한방진료실 한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 교육에 관심이 있어 다년간 진로지도 교육 강사로 활동했고, 4년간 중고등학교서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서 '바람직한 언어생활'과 '소중한 생명 건강 정신'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금연 프로그램 강사로 일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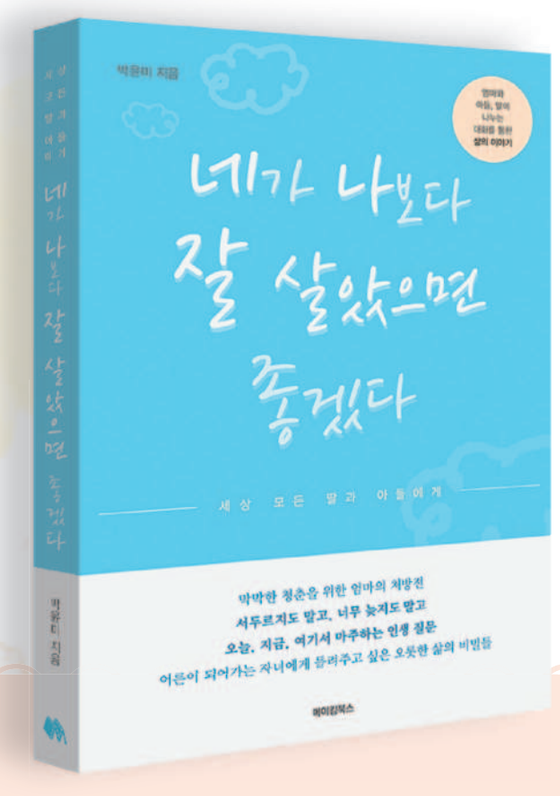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2020년 신간

천만 불자(佛子)들의 필독서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한 무수한 의문, 살아야 할 이유,
모든 해답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 존재합니다.

불자로서, 어머니로서,
청춘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부모님께는 자녀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줄 힘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그윽한 자비를 누리시길 빕니다.

이 책 한권으로,
부처님 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박윤미 지음 | 220쪽 | 1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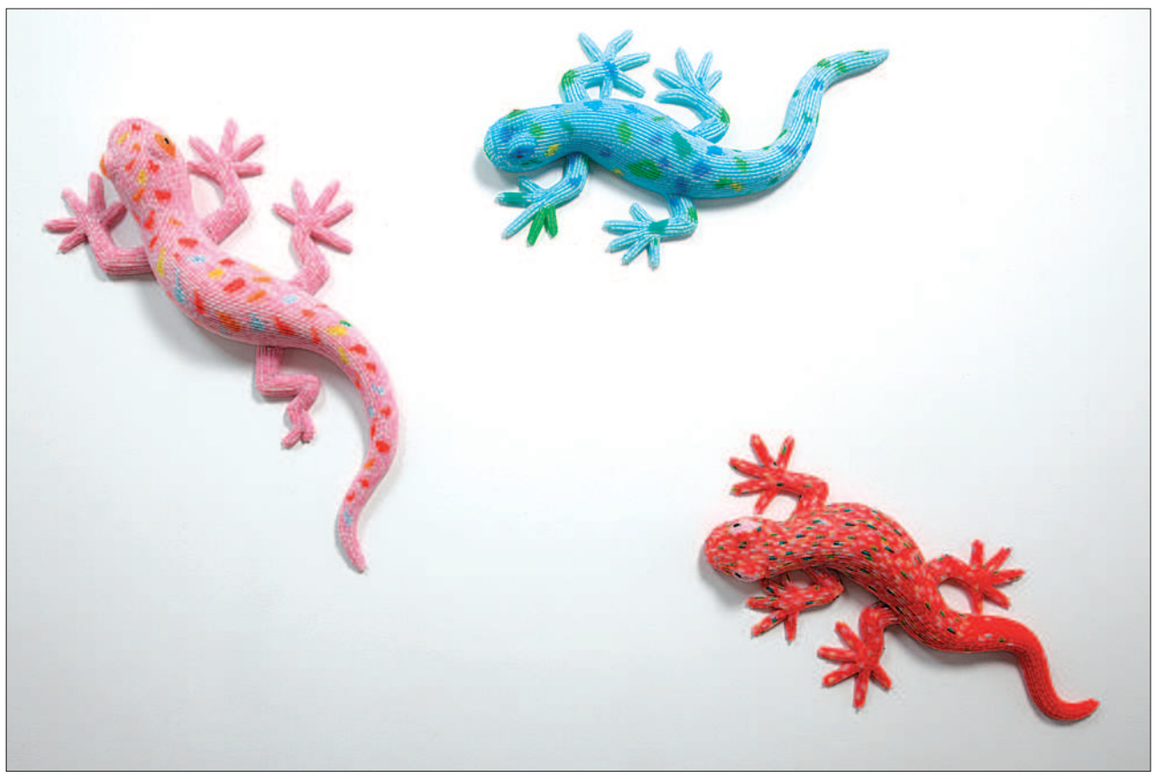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모든 존재의 '쓰임'과 '쓸모'에 대하여

## 프로젝트 공 '어떤 쓰임' 展

**종로 탑골미술관 7월 7일까지**
**김태연 · 정찬부 작가 참여해**
**일회용품서 사물 '가치' 발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일회용 빨대를 이용해 만든 정찬부 作, Antibarometer.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은 7월 7일까지 탑골미술관 '프로젝트 공'의 첫 번째 전시 '어떤 쓰임'을 개최한다.

탑골미술관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프로젝트 공'은 전문 작가와 함께 공감, 공유, 공생의 키워드 '공'을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기획프로젝트이다. 탑골미술관은 '새로운 시대 속 일상으로의 연결'이라는 운영 주제를 반영하여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아가 일상 속 사물과 사람에게 주어진 쓰임과 역할이 가진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함께(共)'의 의미를 담아 '어떤 쓰임'을 준비했다.

이번 전시 '어떤 쓰임'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탄생했지만 순간의 소명을 다하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의 쓰임에 대한 생태적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일상 속 사물과 사람에게 주어진 쓰임과 역할이 가진 의미를 재정의한다. 성별, 연령, 장애 등 사람에게도 단선적으로 역할을 규정하고 선을 긋는 것에 대해 사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어진 기능에 따라 무언가의 쓸모를 정하고, 사물과 사람에게 주어진 쓰임과 역할을 피상적 조건으로만 가치를 부여하곤 한다. 하지만 어떤 존재든 '쓰임'이 있고, 어떤 방법이든 그것만의 쓸모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김태연 작가, 정찬부 작가는 버려지고 폐기된 비닐과 빨대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쓰임을 잃어버린 각각의 존재의 고유한 가치를 담아내 예술로 승화시켰다.

김태연 작가는 쓸모가 있음에도 단 한 번의 쓰임으로 버려지는 비닐봉지를 작품의 소재로 사용한다. 폐비닐을 자르고 늘이며 실을 만들고 텍스타일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며 사물의 가치에 대해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찬부 작가는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되는 무수히 많은 빨대를 조각조각 이어 붙여 바위와 동식물로 만들어 도심 속 자연을 만들어낸다. 화려한 색상의 빨대는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모습과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만들어져 인간에 의해 사라지고 있는 자연의 모습으로 만들어간다.

이번 전시는 사람에게 단선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편견을 깨는 '다양성의 힘'을 더해 관람객의 목소리로 작품이 완성되는 참여형 코너도 준비되어 있다. 일차방정식(y=ax+b)에서 착안한 이 작품은 '지금의 내(a)'가 '내가 바라는 나(y)'의 모습을 위해 필요한 '무엇(b)'에 답하는 관람객의 이야기로 채워나간다. 링크를 통해 모인 답변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우리의 존재에 부여하는 역할을 해석한다.

참여형 전시 코너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의 나(a)를 답하고(https://www.menti.com/ogyuc47hks), 내가 바라는 나를 위해 필요한 것(b)을 적으면 된다.(https://www.menti.com/y9ddx61rnx)

전시를 관람한 한 어르신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나(a)이지만 뭔가 배우고 익히면(b) 언젠가 휴대폰만 들고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꿈(y)을 각고 있다"며 해당 코너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어르신을 통해 다른 쓰임을 갖게 된 업사이클링 작품을 받아볼 수 있는 특별한 SNS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주변에 있는 사소한 사물의 인증사진을 찍고 그 사물의 쓰임과 거기에 얽혀있는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어떤쓰임 #탑골미술관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시니어공방 어르신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업사이클링 작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SNS 이벤트는 7월 2일까지 진행한다.

'어떤 쓰임'은 쓰임을 다한 사물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작품처럼 외적인 조건이나 능력으로 한정되어 해석되는 사람의 역할과 쓸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특히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어떤 형태나 마음을 가지고 각기 다른 속도로 세월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 고유한 역할과 가치가 있음을 관람객에게 전한다.

탑골미술관 관장 희유 스님은 "이번 전시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의 쓰임이 예술을 통해 또 다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곁으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며 "작품을 보면 볼수록 '어떤 쓰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존재의 고유한 역할과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02)6220-8692

# 사경장이 보여주는 사경의 진면목


융복합사경1-천부경 만다라-자색지, 금니, 녹교, 명반, 석채, 호분, 채묵, 청묵

## 김경호 사경장 보유자 인정 회향전

**전북예술회관 차오름 6월 12~24일**

**전통, 융복합사경 등 40여 점 전시**
**2020년 첫 사경장 보유자로 인정**

지난해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 첫 보유자로 인정된 김경호 사경장이 보유자 인정 회향전을 연다.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전북예술회관 차오름 1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경호 사경장은 백지묵서 〈화엄경 보현행원품〉 〈반야심경〉 등의 전통사경과 〈10음절만트라(십상자재도)〉 등의 융복합사경, 〈이승엽 아시아 홈런 신기록 작성 공로패〉 등의 사경을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전통사경의 영역을 확장한 생활 속의 사경, 그리고 기타 서화까지 자신의 사경세계를 망라하는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20일 불교 경전을 널리 전하기 위해 옮겨 적는 기술인 '사경장(寫經匠)'을 국가무형문화(제141호)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김경호 화엄사 전통사경원장을 보유자로 인정했다. 사경은 고려 시대에 불교가 성행하면서 전성기를 맞았으며 충렬왕 때는 중국에 수백 명의 사경승을 파견하는 등 대외적으로 고려사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조선 시대에 접어들어 억불숭유의 기조로 인해 쇠퇴했으나 일부 왕실과 사찰에 의해 명맥이 유지되어 왔다.

김경호 사경장은 지난 40여 년간 사경작업에 매달려온 장인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금니사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금분과 종이를 연구하고 각 시대별 사경을 연구해 우리 사경의 전통방식을 되살려냈다.

김경호 사경장은 김경호 원장은 1963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다.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동국대학교 대학원미술사학과(사경 전공, 문학 석사)를 졸업했다. 2010년 전통사경 기능전승자(고용노동부지정 제2010-5호)로 지정됐다. 2000년 서울 동국대문화관에서 첫 번째 개인전(외길 김경호 사경전)을 시작으로 20여 회의 개인전 및 초대개인전을 열었다.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과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사경지도자과정 강사를 지냈다. 제1회 불교사경대회 대상 등 다수 수상했으며, 시집 〈학의 울음〉과 한국 최초의 사경 개론서 〈한국의 사경〉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한국전통사경연구원과 화엄사 전통사경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2020년 국가무형문화(제141호) 사경장 보유자로 인정됐다.

(063)230-7405

박재완 기자

## 박물관 휴르 '사막에 핀 꽃' 展

**박성규 유리공예 소장품 기획전**
**특별전시실 6월 27일까지 전시**


사리함 장엄구 추정 로만글라스.

박물관 휴르는 6월 27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박성규 유리공예 소장품전 '사막에 핀 꽃'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박성규 소장가가 20여 년 동안 해외에서 수집한 소장품 중 유리공예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품으로는 로마가 통치했던 동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로만글라스(로마 유리)와 시리아,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사막도시에서 직접 수집한 유리공예품이 전시되며 사리장엄구로 추정되는 공예품도 함께 전시된다.

8000여 년 전 지중해 연안 페니키아 모래 위, 화산에 의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유리는 기원전 1500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만들기 시작했으며, 로마인들은 기원전 3세기 경부터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유리는 단순한 물질이 아닌 인류문화의 귀중한 부분이며 고대인들의 '미(美)'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문화, 예술적 역사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유리는 삼국시대 육로로는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과 한반도로 전해졌고, 해로로는 아라비아해를 따라 인도, 광저우를 지나 경주로 전해졌다. 고급 장식품으로 왕실에서 사용되거나 사리장엄구 등 불교 공양구로도 사용됐다. 익산의 왕궁리 5층석탑 사리장엄구(국보 제123호)와 칠곡의 송림사 5층전탑 등에서 나온 사리장엄구(보물 제325호)가 각각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소장가 박성규는 "불연 있는 유리공예품이 재조명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전시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053)759-3902

박재완 기자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불기 2565(2021) 십시일반 이주민 돕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법보신문 공동 캠페인



두 다리는 잘렸지만
희망마저 잃을 수 없어요

스리랑카 출신 이주민 노민다씨 쓰레기 분쇄기 수리 중 두 다리 잘려
고액의 양쪽 의족 비용에 또 좌절… 통증과 사고 악몽에 잠도 못 이뤄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2-725-701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 “명상, 질병 면역력 강화 효과 있다”

## 불교학계, ‘코로나19’ 주제 춘계학술대회 잇달아 개최

### 불교상담학회, 치유법을 조명
### 사띠 · 번뇌 뇌 담당영역 달라
### 한국 선학회, 불교 역할 살펴

신성민 · 하성미 기자

장기화된 코로나19 대유행은 세계인의 일상을 바꿔 놓았다. 비대면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우울), 코로나 레드(분노) 등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적 치유법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 등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잇달아 개최됐다.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는 6월 5일 제15회 학술대회 ‘코로나 시대 질병과 불교적 치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웨벡스(webex)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문일수 교수(동국대 의과대)가 ‘싸띠명상의 뇌과학’을 발표했으며 효록 스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 ‘몸에 기반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대처하는 불교심리치료’, 능인 스님(동국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이 ‘코로나19와 호스피스’를 각각 발표했다. 논평은 현암 스님(동국대), 우명주 교수(동국대), 자재 스님(동국대)이 담당했다.

문일수 동국대 의과대 교수는 “코로나는 돌연변이로 흔히 변종이 자주 일어나기에 앞으로 미래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야하는 바이러스로 의학계는 보고 있다”며 “바버라 프레드릭슨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수의 말에 따르면 명상은 면역력을 크게 증가시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기를 수 있게 한다”고 명상이 끼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이어 “명상 수행을 하면 뇌 영역 중 중앙관리망(CEN)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고, 중앙관리망 신경이 활성화 되면 망상을 일으키는 기본모드신경망(DMN)이 활성화 되지 못한다. 즉, 상관관계가 있어 한 쪽 신경망을 강화하면 다른 신경망은 약해진다”고 정리했다.

문 교수는 “사람은 1분 당 6~7개 정도 생각을 한다. 활동하는 16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루 6500여 개의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은 사띠의 반대 상관 관계가 있는 기본모드 신경망에서 일어난다. 알아차림, 사띠를 하지 않으면 망상과 번뇌를 일으키는 기본모드신경망이 강화되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상담학회는 6월 5일 제15회 학술대회 ‘코로나 시대 질병과 불교적 치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웨벡스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효록 스님은 “코로나 기간에 어떤 사람은 정부의 지침을 따르면서도 평상심을 유지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며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려 괴로워한다. 이러한 차이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몸을 살피지 않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효록 스님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건강한 대응 방식을 강조하며 “명상을 활용해 성장기에 해소 못한 감정의 찌꺼기를 해소하도록 해야하고 트라우마는 대에 걸쳐 유전되기에 가족사를 살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선학회**(회장 정도)는 6월 4일 ‘코로나 시대, 선과 불교의 의미 · 역할 · 대응을 묻다’를 주제로 온 · 오프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 시대와 위빠사나 수행(김재성, 능인대학원대) △코로나19 시대, 선불교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오용석, 원광대) △불교의학(이은영, 경희대) △포스트 코로나, 사회적 삼재팔난 시기 불교의 역할 찾기(이명호, 중앙승가대)가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일중 스님(동국대), 최용운(서강대), 양영순(동국대), 이상호(동국대)가 맡았다.

김재성 교수는 초기불교 위빠사나 수행이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 증상을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조명했다. 그가 소개한 ‘코로나19와 마음챙김’ 관련 외국 연구의 경우 “명상과 마음챙김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세계적인 유행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 전문가, 환자, 간병인 및 일반대중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이며 “대유행 동안 마음챙김과 명상 수련을 도입하는 것은 치료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테라와다불교의 위빠사나 수행을 통한 신체 건강을 담마 치료(Dhamma therapy)라고 하며, 위빠사나 수행이 몸의 질병 치유에 직접 효과가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면서 “현대 서양에서는 마음챙김명상으로 알려진 위빠사나 수행이 1970년대 이후 알려지면서 심신의 치유에 대한 과학적, 임상적 연구가 진행돼 그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시대에는 의료전문가, 환자, 간병인, 일반대중, 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위해 마음챙김 명상 즉 위빠사나 수행의 필요성이 더욱 간절해지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 일본불교 특성 · 실상 조명

### 불교평론 여름호 발간




한국불교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 여름호(통권 86호)가 발간됐다.

〈불교평론〉 여름호 특집 주제는 ‘일본불교의 특성과 실상’으로 일본불교 교단 현황부터 신불습합, 교토학파 등 일본불교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논문들이 게재됐다.

주요 논문으로는 △천황제, 군국주의 그리고 선(이찬수) △일본불교 교단의 현황(재점숙) △신불습합과 불교계의 신종교(권동우) △교토학파의 사상과 교학적 성과(최용운) △모노(物)공양: 불교문화콘텐츠의 일본적 변용(박규태) △21세기 장식불교는 엄존하는가(김성순) △동일대진재 이후 일본 참여불교와 시민운동(이현경) 등이 실렸다.

논단으로는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의 ‘기후위기 시대, 불교적 해법 찾기’가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 제11회 반야학술상 후보자 찾습니다

### 반야불교문화硏, 7월15일까지 공모

한국불교학 진흥을 위해 제정된 제11회 반야학술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제11회 반야학술상 공모 요강을 발표했다.

학술상 후보자는 최근 5년간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연구 성과물이 있어야 하며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의 연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연구지원금 1000만 원이 수여된다. 후보자 추천 방법은 7월15일까지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www.banyaresearch.org)에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 1명에게는 상패와 1000만 원의 연구비가 지급된다. 시상일과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 나홍 선사 위상 · 법맥 조명된다

### 송광사 · 보조사상연구원 6월 24일 특별학술대회

### 방장 현봉 스님 기획해
### 보조硏 외연 확대 기대

나옹 선사(1320~1376, 사진)는 고려 후기 고승이다. 회암사에서 견성한 나옹 선사는 중국 연경으로 건너가 천축승 지공 선사에게서 법을 받았으며, 귀국해서는 무학에게 법을 전해 조선불교의 초석을 놓았다. 나옹 선사의 주요 주석처는 양주 회암사로 알려져 있지만,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3년간 주지로 지내기도 했다. 여말선초 송광사의 위상과 나옹 선사 법맥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자공)와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방룡)은 오는 6월 24일 송광사 사자루에서 ‘여말선초 송광사의 위상과 나옹의 법맥’을 주제로 특별기획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이 직접 기획한 것으로, 나옹 선사가 송광사 주지를 역임했던 역사적 의의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기점으로 송광사는 나옹 선사를 추승해 나갈 계획이다.

학술대회는 총 3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식전 행사에서는 현봉 스님이 직접 법어를 내리며, 주지 자공 스님의 환영사, 강건기 전북대 철학과 명예교수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송광사의 위상과 지공의 고려불교 영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2부 학술대회는 나옹 선사에게 법을 전했던 스승 지공 선사를 조명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된다.

황인규 동국대 교수는 ‘고려 말 송광사의 위상과 나옹계의 주석’을, 문소윤 씨(동국대 박사과정)는 ‘지공의 고려불교에 대한 영향 검토’를,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지공의 대도 귀국 후 행보와 화장 후 영골 전래’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계표(전남대), 이병욱 보조사상연구원 부원장, 이종수 순천대 교수가 참여한다.



3부는 ‘나옹의 위상 및 나옹 문도와 조선 초 법맥’을 주제로 진행되며, 나옹 스님과 그 문도들을 살핀다.

이철현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나옹의 고려불교 주도와 여말선초 나옹 문도의 역할’을, 강호선 성신여대 교수는 ‘나옹 계승자로서의 혼수와 무학 및 조선 초 법맥’을,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은 ‘증명화상의 형성과 불교적 위상’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창구 전북불교대학장,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동방대학원대학 인경 스님이 참여한다.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은 “그간 지눌 스님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연구를 나옹 선사의 법맥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눌 스님의 목우가풍이 어떻게 송광사에 지속적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옹 선사와 송광사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스님과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보조사상연구원도 연구 주제의 외연을 넓히는 시도이기도 하다. 1987년 창립된 보조사상연구원은 그동안 보조 지눌 스님의 연구가 중심이 돼 왔기 때문이다.

김방룡 보조사상연구원장은 “그동안 송광사의 후원 속에 지눌 스님의 연구가 지속돼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는 연구 주제가 확대되고 있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연구 주제 외연을 역대 송광사의 고승들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한국선학회 ‘선학’ 58호 발간




한국선학회(회장 정도)가 학술지 〈선학〉 제58호를 발간했다.

심사논문으로 △연담의 행적과 사상(이복희 · 정도 스님) △‘산시산수시수’에 대한 출전과 의미 고찰(지은 스님) △현대적 행복론에 대한 선불교적 접근(덕산 스님) △불교수행체계와 현대 명상 연구 고찰(서광 스님) △〈직심직설〉에서 ‘진심식망’의 작용과 공부(한선옥) △삼론종의 변증법적 중도사상(조윤경) 등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힐링하는
자비의 한 걸음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최첨단 특수극세사원단을 사용합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관절과 무릎을 보호하고
피로도 감소 및 미끄럼 방지 등 안전 보행을 약속합니다.
에르코스의 최첨단 기술과 자비의 마음을 담아
내구성이 뛰어나고 편안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er ercohs 에르코스 포행화

무료주문전화 080-848-7777
불교신문 기획사업부 02-730-4489(단체주문)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2

▶ 23회 예고
변방 웃자인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빈두사라는 신경을 곤두세운다. 방치하면 주변 소국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빈두사라는 대신과 다르마 왕비를 통해서 아쇼까를 설득한다. 결국 아쇼까는 웃자인으로 떠날 것을 결심한다.



# 요리별실 궁녀들을 처형하다

내성 성벽 순시를 마친 친위대장은 죄인을 다스리는 감옥의 우두머리 전옥(典獄)을 찾아가 만났다. 마침 전옥은 왕자독살 미수사건으로 잡혀온 궁녀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나오는 길이었다. 전옥은 큰 사건인데도 범인을 잡아내지 못한 것에 혀를 차고 있었다. 왕명이 떨어지면 처음부터 조사를 다시 해봐야겠다는 태도였다. 친위대장이 말했다.

"대왕께서는 감옥에 있는 궁녀 전원을 처형하라는 명을 내리었소."

"누가 사주했는지 조사해야 하지 않겠소?"

"연루자가 자살해 버렸으니 어려운 일이오."

"모두 처형해버리면 영원히 미궁에 빠져버리지 않겠소?"

"대왕께서 모두 처형하라는 이유가 있소. 왕자님의 음식에 독을 탄 궁녀도 궁녀지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죄를 궁녀들 모두가 지었기 때문이오."

"궁녀들을 처형 직전까지 조사하겠소. 그래야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소."

"그렇다면 처형 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대왕님께 건의할 테니 기다려 보시오."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소."

"대왕님의 명이니 조사하다가 궁녀들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겠소."

친위대장은 전옥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여기어 자신의 직권으로 궁녀들의 처형시기를 늦추었다. 궁으로 돌아가 빈두사라왕의 허락도 받아냈다.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과 관원이 따로 있으나 전옥은 나라의 중요사건에 대해서 왕명을 받아 죄인을 수사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친위대장을 통해 빈두사라왕으로부터 궁녀들의 수사권을 위임받은 전옥은 잔인하고 인정사정없는 옥졸 10명을 선발해 수사요원으로 명했다. 첫 번째로 불려온 궁녀는 라따나 왕자 음식에 독을 탄 궁녀와 한 방에서 잠을 자던 수드라였다. 고문실에 불려온 어린 궁녀는 수사하는 옥졸들 앞에 서자마자 부들부들 떨었다. 늙은 옥졸이 어린 궁녀를 타이르듯 말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살려주겠다. 누가 왕자님 음식에 독을 타라고 지시했느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죽은 궁녀와 한 방에서 잠을 자는 사이인데도 전혀 모른단 말이냐?"

"인드라 신께 맹세합니다. 언니궁녀가 왕자님을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음식에 독을 타겠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낌새를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감히 수드라 주제에 왕자님을 사모했다고? 자살한 궁녀가 너에게 무어라고 말하더냐?"

"라따나 왕자님의 모습만 봐도 가슴이 콩콩 뛴다고 저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젊은 옥졸이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왕자님을 사모했던 궁녀가 왕자님 음식에 독을 탔다고? 그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언니궁녀가 음식에 독을 탔다가 그 음식을 먼저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늙은 옥졸이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단 말이지. 좋아. 그럼 궁녀에게 독을 타라고 사주한 범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 범인만 실토하면 살려주겠다."

"옥졸님, 저는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늙은 옥졸이 젊은 옥졸에게 눈짓을 하자 궁녀를 또 다른 고문실로 데리고 갔다. 그 고문실에는 수십 마리의 뱀이 스멀스멀 기어 다니고 있었다. 어린 궁녀가 뱀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뱀을 더 넣어라!"

지시를 받은 젊은 옥졸이 밖으로 나갔다가 자루를 들고 왔다. 그런 뒤 고문실 문을 열고 자루를 던졌다. 자루에서 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겁에 질린 어린 궁녀가 울부짖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젊은 옥졸이 문 옆의 들창문을 열고 말했다.

"살고 싶으면 자백하거라."

어린 궁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뱀들이 다가오자 비명만 질러댔다. 늙은 옥졸이 말했다.

"독이 없는 뱀이니 죽지는 않을 것이지만 곧 혼절한 것이다. 이번에는 우두머리궁녀를 데리고 오너라."

우두머리궁녀는 옥졸의 부축을 받고 고문실로 들어왔다. 어느 새 고문실에는 새로운 고문기구가 놓여 있었다. 시커먼 솥 밑에서는 유황불이 활활 탔다. 유황불 불빛에 옥졸들의 얼굴이 번들거렸다. 솥 안에서는 물이 금세 끓기 시작했다. 우두머리궁녀는 모진 고문을 당했는지 얼굴은 상처투성이였고 옷자락에는 여기저기 피가 묻어 있었다. 늙은 옥졸이 엄하게 말했다.

"네가 음식을 요리하는 우두머리궁녀냐?"

"그렇습니다."

"어찌 감독하였길래 라따나 왕자님 음식에 독이 들어간 것이냐?"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제가 죽을 것이니 다른 궁녀들은 살려주십시오."

"누가 사주했는지 말하라. 그러면 네 뜻을 받아들여 궁녀들을 살려달라고 건의하겠다."

"맹세컨대 나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살한 궁녀와 자주 만났던 사람은 누구냐?"

"요리하는 별실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셨으니 한 분만 지목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두머리궁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하게 말했다.

"네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늙은 옥졸이 젊은 옥졸에게 턱짓을 했다. 그러자 젊은 옥졸이 우두머리궁녀의 오른팔을 낚아채더니 펄펄 끓는 솥물에 집어넣었다. 우두머리궁녀가 발작하듯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다.



"이래도 실토하지 않겠느냐!"

"나는 누구에게도 누명을 씌우고 싶지 않습니다."

"협조할 생각이 아예 없구나!"

늙은 옥졸이 자신의 왼팔을 들자 젊은 옥졸이 이번에는 우두머리궁녀의 왼팔을 잡아당기더니 솥물에 담갔다. 우두머리궁녀의 오른팔은 뼈가 녹아버린 듯 덜렁덜렁 움직였다. 늙은 옥졸이 악마처럼 소리쳤다.

"요리별실에 다녀간 사람들을 모두 대거라. 대지 않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두 다리마저 잃을 것이니라."

"차라리 죽여주시오."

늙은 옥졸은 자신이 협박한 대로 우두머리궁녀의 오른발을 솥물에 넣도록 지시했다. 그래도 입을 다물고 있자 그녀의 왼발까지 담그도록 했다. 이번에는 젊은 옥졸이 소리쳤다.

"요리별실을 출입한 사람을 대거라."

"저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말하지 않겠소."

"참으로 독한 궁녀다."

늙은 옥졸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도리질했다.

"끌고 나가거라."

사지가 벌겋게 익어버린 우두머리궁녀는 혼절한 상태로 들것에 실려 나갔다. 뱀들이 기어 다니는 고문실에 든 어린 궁녀는 실성해버렸다. 갑자기 히죽히죽 웃으며 젊은 옥졸 손에 끌려 나갔다. 젊은 옥졸이 말했다.

"궁녀를 또 데리고 올까요?"

"나이 많은 늙은 궁녀를 조사해보자."

어쩌면 나이 많은 궁녀는 실토할지도 몰랐다. 궁에서 오래 살아남았으므로 요령이 많을 것 같았다. 늙은 옥졸의 생각은 맞아떨어졌다. 고문실에 들어온 늙은 궁녀는 살려달라고 애원부터 했다.

"살려만 준다면 무슨 말이든 다 하겠소. 무엇을 알고 싶소?"

"궁녀가 죽은 날 요리별실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큰 화로에 국자 모양의 쇠붙이가 벌겋게 달궈지고 있었다. 쇠붙이는 죄인의 살을 지지는 고문 기구였다. 고문 기구를 보자마자 늙은 궁녀는 교활한 표정으로 말했다.

"왕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왕비님이라고? 잘 생각해 보시오."

"아, 생각이 납니다. 저녁식사 전 요리별실에서 본 사람이 빠빠 왕비님 같기도 했습니다."

"빠빠 왕비님?"

"뒷모습이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빠빠 왕비님 같았습니다."

"조사해 보면 알겠지."

늙은 옥졸은 그 궁녀를 옥으로 돌려보낸 뒤 전옥을 찾아갔다. 그런데 빠빠 왕비는 그녀의 입에서 튀어 나온 말일 뿐이었다. 빠빠 왕비가 자신에게 어린 궁녀들 앞에서 욕을 하고 발길질까지 하는 등 함부로 대했던 것이다. 때가 되면 언제든 복수하려고 했던 참에 빠빠 왕비가 문득 떠올랐을 뿐이었다. 전옥은 늙은 옥졸을 보고 말했다.

"실마리를 찾아냈소?"

"늙은 궁녀가 빠빠 왕비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빠빠 왕비가 왕자님 음식에 독을 타라고 사주했을까, 하는 의심이 드오."

"어째서 그렇습니까?"

"빠빠 왕비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석녀요. 대왕님 총애를 받는 왕자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으면 했지 그럴 이유가 없다는 말이오."

"궁녀가 한 말이니 빠빠 왕비님을 조사는 해봐야겠습니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친위대장의 은근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옥은 빠빠 왕비를 감옥으로 연행해서 조사했다. 빠빠 왕비는 흥분해서 날뛰었다. 감옥으로 연행해 가는 동안 옥졸들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연행하는 옥졸의 손을 물어뜯기도 했다. 전옥집무실에 들어서 전옥을 보자마자 큰소리로 항의했다.

"왕비에게 모욕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오!"

"궁녀가 자살한 날 오후식사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누가 나를 모함했소?"

"모함으로 알려지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남을 모함한 죄까지 더해져 극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궁녀들 중에 누군가의 모함이오."

빠빠 왕비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분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그런 뒤 전옥을 보면서 표독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에게 당할 차례야, 하는 그런 표정이었다. 빠빠 왕비가 저주하듯 말했다.

"그날 나는 내 별궁에서 대왕님과 함께 있었소. 저녁식사를 함께 했소. 자, 이제 됐소?"

"사실입니까?"

"대왕님께 직접 물어 보시오.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소?"

전옥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다. 그런 전옥을 보면서 빠빠 왕비는 전옥집무실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옥졸들 모두가 아무도 빠빠 왕비를 제지하지 못했다. 그때 옥졸 하나가 다급하게 다가와 전옥에게 보고했다.

"어젯밤에 들것에 실려 나갔던 궁녀가 죽었습니다. 화기가 온몸에 퍼져 퉁퉁 부은 채 죽었습니다."

"친위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니 그대로 두거라."

"실성한 궁녀는 어찌 됐느냐?"

"아예 미쳐버렸습니다. 벽에 머리를 찧고 뒹굴어 온몸을 포승줄로 묶어 놓았습니다."

전옥은 궁녀들을 더 조사하지 못하게 지시했는데, 그날 오후 빠빠 왕비를 이유 없이 연행했다는 불경죄로 전옥직을 박탈당했다. 결국 그는 빠딸리뿌뜨라를 떠나라는 벌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요리별실에서 음식을 만들던 궁녀들은 원래대로 모두 사형을 당했다. 산 채로 묶여져 장작더미 불길 속에 던져졌다. 〈계속〉




혜암
미술 공예품
개·점·안·내

5월 10일, 불상·불화·만다라·도자기등을 전시 판매하고자 **경북 포항시 기북면 불원사 경내에 혜암 미술 공예품 매장을 오픈** 하였습니다. 불상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소장성이 많은 희귀불상, 티벳 불상, 현대불상 불화는 티벳, 네팔에서 직접 구입한 여러 가지 만다라를 전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혜암 미술 공예품을 찾아 주시는 스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찾는 불화나 불상이 있으시면 찾아 드리겠습니다.

혜암 미술 공예품 대표 **신 재 훈** 배상

네비게이션에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855번지 불원사"** 로 검색 하십시오.

**문의 010-5652-0174, 010-4504-0174**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사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석정수 스님
**010-2766-7677**

뻐꾹새 우는 북한산성 약사선원(명상센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11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 한줄 요약
보시공덕조차 머무를 곳 없는 바를 깨치자.

# 마음법 전하니, 세상을 편케하다

부처님이 깨치고 첫 설법을 할 때 꼰단냐를 비롯 다섯 수행자가 모두 깨달아 인가받은 기록은 〈초전법륜경〉과 〈무아상경〉에 나온다. 이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친 이들이 수없이 나왔는데, 부처님은 그중에서도 마하가섭을 당신의 수제자로 삼았다. 마하가섭은 부처님 열반 이후 그 말씀을 결집할 때 좌장 역할로 그 소임을 다하고 아난존자에게 그 법을 부촉한다. 이 전법의 기록은 초기경전에도 나오고 남방과 북방 불교에서도 공히 인정하는 전등 법맥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1천 년이 되는 무렵에 27대 제자 반야다라 존자가 있었다. 반야다라 존자는 인도 남쪽 향지국 왕의 초청으로 왕궁에 갔는데, 이때 왕의 셋째 아들 달마를 만난다. 동아시아에서 달마도로 널리 알려진 달마는 본래 인도 남부(지금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에서 부처님처럼 왕자로 태어나 깨치고 조사의 법맥을 이어 동쪽으로 와서 선을 전한 전설적인 인물이다.

### 선종의 초조, 달마는 누구인가?

달마대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많지 않아 여기에서는 고려 후기 백운경한 선사가 지은 〈직지심체요절〉(세계기록문화유산) 달마조사 편을 근거로 말하고자 한다.

달마대사는 본래 인도 향지국 국왕의 아들로 반야다라 존자를 만나 교류하던 중 마음을 깨치고 28대 제자가 된다. 반야다라는 달마가 불법을 크게 일으킬 인물이라 보고 동쪽으로 가서 전법하기를 권한다. 달마대사는 국왕의 후원으로 큰 배를 타고 3년 동안 항해하여 중국 남해(지금 광동성)에 도착하니 이때가 양나라 무제가 통치하던 서기 527년이다.

중국에는 서력 기원 전후에 실크로드를 통해서 불교가 전래되었고 이후 신장 출신의 구마라습(344~413) 같은 대역경사들의 노력으로 〈금강경〉 등 대승 경전이 한문으로 번역되어 불교가 정착한다. 대승 경전의 한역과 유통으로 중국 불교는 한 단계 발전하게 되는데,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는 〈금강경〉을 공부하기 편하게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새로 붙였다. 하지만, 당시 중국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공부하는 교학과 계율을 연구하고 지키는 율학뿐이어서 마음을 바로 깨쳐 부처가 되는 선을 알지 못했다.

### 달마대사와 양무제와 문답과 무아 법문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온 6세기 중국에는 남북조시대였고, 한국은 삼국시대였다. 중국 남쪽은 양나라 무제(武帝, 464~549)가 통치하였는데, 그는 불심천자로 불리운 황제였다. 양무제는 많은 스님들께 공양을 베풀고 불경 역경과 편찬을 후원하면서 큰 불사를 하여 기록에 의하면 2500여 절을 짓고 탑을 세우는 선업 공덕으로 황제 자신의 무병장수와 국운 융성을 빌었다. 그런데, 이 큰 불사 공덕에도 마음은 불안하였던 모양이다. 양무제는 인도에서 조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마대사를 황궁으로 초청하여 융성한 공양을 하고는 이렇게 물었다.

"짐이 오늘까지 절을 짓고 불상을 조성했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공덕이 없습니다"

"어째서 공덕이 없습니까?"

"이는 인간과 하늘의 작은 과보요 번뇌의 인연이니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아서 비록 선한 인이 있다고는 하나 실상(實相)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거룩한 진리입니까?"

"성스러운 진리는 결코 없습니다."

"그럼 짐과 마주한 당신은 누구요?"

"모르겠습니다(不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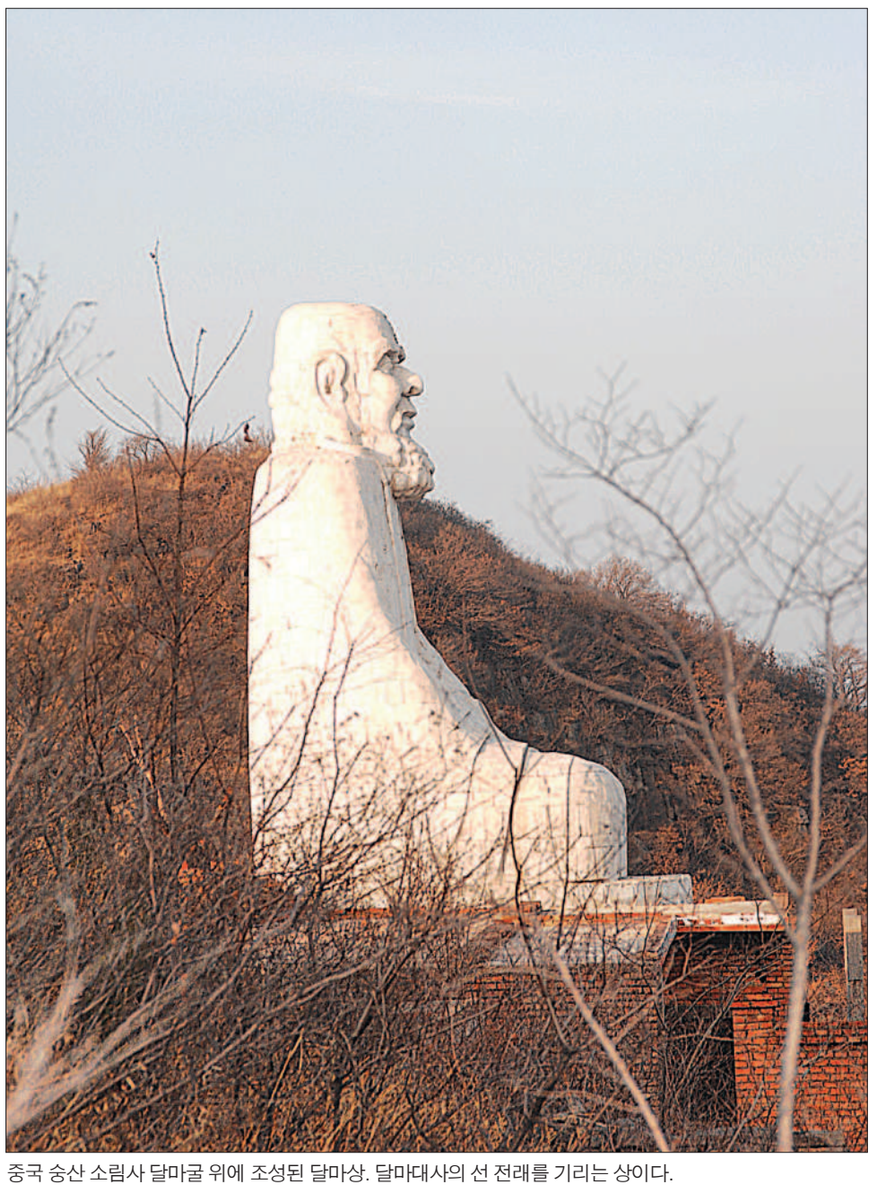
양무제와 달마대사의 문답은 이러했다. 무제는 '내가 있다' 는 입장에서 불사 공덕과 그 과보를 말한다. 양무제가 공부하고 믿은 불교는 이처럼 내가 있고, 부처님과 부처님 법도 있다고 보는 불교를 믿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불사 공덕을 지으면 그 복을 받아 무병장수하고 죽어서는 극락에서 태어날 것이라 믿는 불교다.

**마음깨치는 선 전래**
**무아법문 속 깨달음**
**공한 진리를 알리다**

그런데, 달마대사는 이런 견해를 완전히 부정해 버렸다. '내가 있다' 는 입장에서 아무리 많고 좋은 불사 공덕을 쌓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변에 머물고 집착하는 상대 분별의 세계이니 생사 해탈의 불교가 아닌 것이다. 결국 양무제가 믿었던 불교는 중생이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깨달음의 불교가 아니라 중생이 선행하고 불사 공덕을 지어 복 받아 다음 생에 잘 태어나는 방편의 가르침을 믿었던 것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머무는 바 없는(無住相) 보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내가 있고 받을 공덕도 있다는 머무름이 있는 보시는 선한 복이 있을지라도 생사윤회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 불심천자 양무제의 비참한 과보

양무제는 달마대사의 법문을 알아듣지 못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의 무아 법문을 들었으나 자기가 있다는 견해에 집착하여 삿된 소견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다. 그리하여 양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엄청난 불사 공덕을 지었으나 부하 장수의 반란으로 황제의 지위에서 쫓겨나 민가에 유배되었다가 굶어죽는다. 양무제가 그토록 바라던 장수와 국운융성은 오지 않고



중국 숭산 소림사 달마굴 위에 조성된 달마상. 달마대사의 선 전래를 기리는 상이다.

비참한 과보를 받았으니 우리는 이 불사 시주 공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양무제의 불행한 과보는 부처님이 깨치고 말씀하신 연기 즉 인과의 법칙이 그대로 증명된 사례였다. 왜냐하면 양무제는 불교를 믿었으나 정견을 갖추지 못하고 삿된 견해에 집착하여 엄청난 불사를 일으켰는데, 황제의 자비(自費)가 아니라 백성들의 혈세를 짜내어 불사에 시주한 것이니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고 민심이 흉흉하여 반란을 자초한 것이다. 결국 양무제는 어질고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여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황제의 본분을 버리고 불교에 집착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황제의 권력을 앞세워 백성들의 혈세로 불사 공덕을 지어 받고자 하였으니 황제의 지위에 쫓겨나 굶어죽는 지옥행의 과보를 스스로 지은 것이다.

달마대사는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공덕이 없다"는 법문을 해주어도 삿된 소견에 집착하여 어리석은 행을 하다가 급기야 준엄한 과보를 받은 것이다.

### 달마대사, 2조 혜가에게 선법을 전하다

달마대사는 불교의 정견과 무아법을 설해도 불심천자라는 황제조차 자기에 집착하여 알아듣지 못하자 아직은 때가 아니라 판단하고 양자강을 건너 북쪽 숭산 소림사로 가서 9년 동안 은둔한다.

어떤 분들은 달마대사의 9년 면벽을 '9년 동안 참선 수도해서 깨달았다' 고 말하는데, 이것은 선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달마대사는 이미 인도에서 27조 반야다라 존자에게 깨달음을 인가 받고 동쪽으로 왔다.

그럼 9년 동안 면벽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법을 설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설법하지 않고 9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무아의 선 법문을 알아들을 발심 구도자를 기다린 것이다.

이때 신광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부유한 가문에 태어나 유교와 노장의 경전을 두루 공부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했는데, 불경을 보니 마음이 편해져 출가하였다. 그런데, 출가하여 경전을 볼 때는 마음이 편했으나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여전히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이에 신광스님은 초조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고자 인도에서 온 대선지식 달마대사를 찾아가 만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달마대사는 만나주지 않았다. 이에 신광은 마지막으로 굳은 결심을 하고는 어느 겨울 눈 내리는 날 소림사 조사전 앞에서 만남을 청했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차올라도 달마대사는 아무런 기척이 없자 신광스님은 법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는 위법망구(爲法忘軀)의 굳센 의지를 보여주고자 칼로 자신의 팔을 잘랐다. 이를 본 달마대사는 비로소 도를 구하는 발심 수행자가 왔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사당으로 불러 문답한다.

"어찌 왔느냐?"

"화상께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편안케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편안케 해 주리라."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네 마음을 편안케 하였다."

혜가는 이 말 끝에 확철대오하고 이렇게 말한다.

"오늘에야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하고 깨달음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달마대사와 문답과 신광스님의 깨달음도 결국 무아 공을 깨친 것이다. 내가 본래 무아이듯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이 아니다. 있다고 착각하고 집착하고 있을 뿐이다. 이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이 무아의 깨달음이다. 무아의 깨달음은 생사윤회에서 영원히 해탈하여 대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달마대사는 신광의 깨달음을 인가하면서 스승에게 받은 가사를 전하고 혜가(慧可)라 새 법명을 주었으니 바로 선종의 2조 혜가대사이다.

달마대사는 혜가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등(傳燈)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땅에 온 뒤 여러 번 독약을 받았는데 가려내었다. 이제 법을 전했으니 갈 때가 되었다."

말끝에 단정히 앉아서 가셨다. 선종의 초조 달마대사는 독살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 승단의 율사와 강사들의 소행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형상을 떠나 마음을 바로 깨치는 달마의 선법문을 마구니 말이라 시비하며 악행을 저질렀다(이것은 해동 초조 도의스님이 조사가 되어 신라로 돌아왔을 때 마구니 말을 한다고 배척받은 상황과 똑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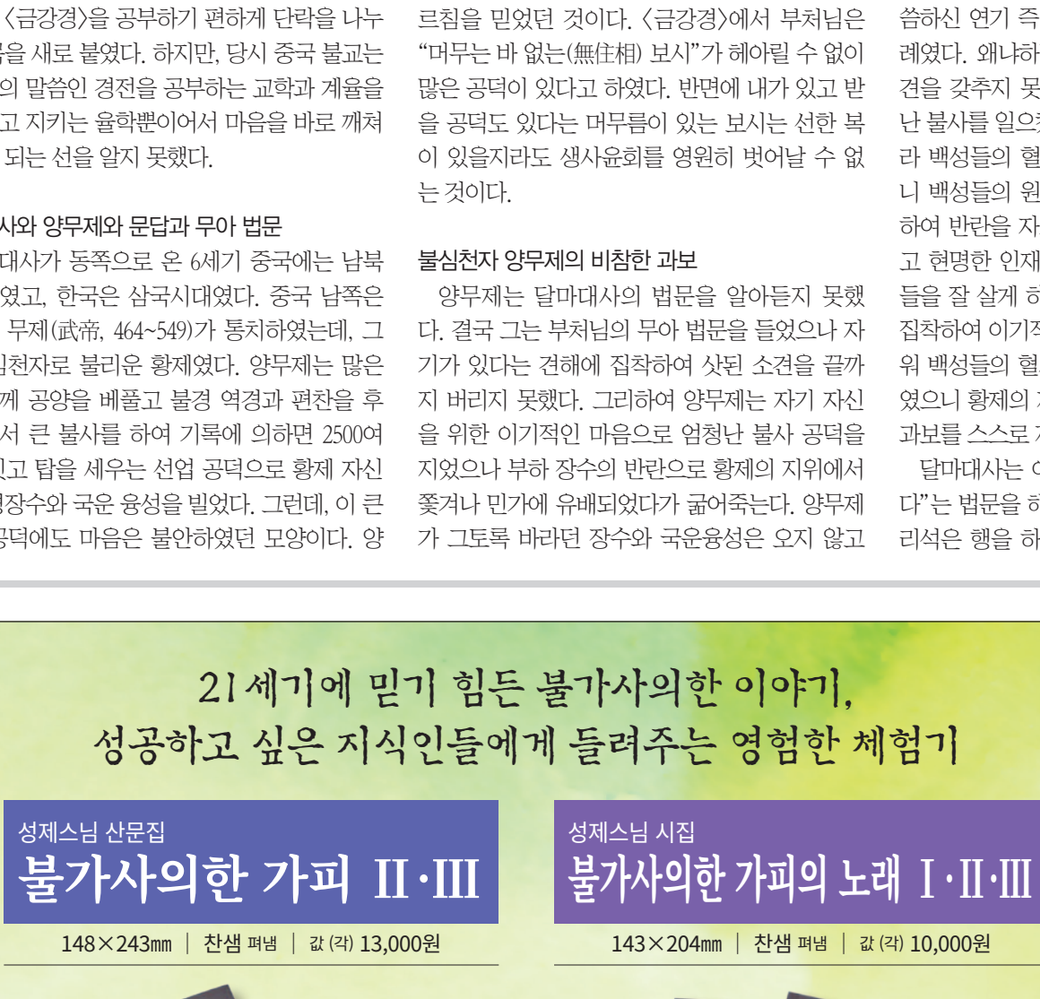
달마대사는 머나먼 동쪽으로 와서 부처님 무아법을 전하며 무아 도리를 증명하듯이 몸소 독약을 마시고 그렇게 갔다. 법을 이은 이조 혜가대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불교인재원 교수〉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3-2212-8655-3 (예금주 : 윤순례)

왜! 스타급 가수들의
전용 마이크가 일억이 넘을까요?....

그것은 저급한 시설에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소리가 매우 고급스럽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형편! 마이크 하나만 바꿈므로 소리를 몇배의 성능으로 높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본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3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58만원

시중에 없음



마이크만 구입 가능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⑪ 병듦과 죽음에 대하여



▶ 한줄요약
싯달타 태자는 남문 밖에서 병든 사람이 길가에 누워 있는 것을 본다. 서문 밖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한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다. 싯달타 태자의 고뇌는 깊어져 간다.

# 식탐·과식, 몸을 병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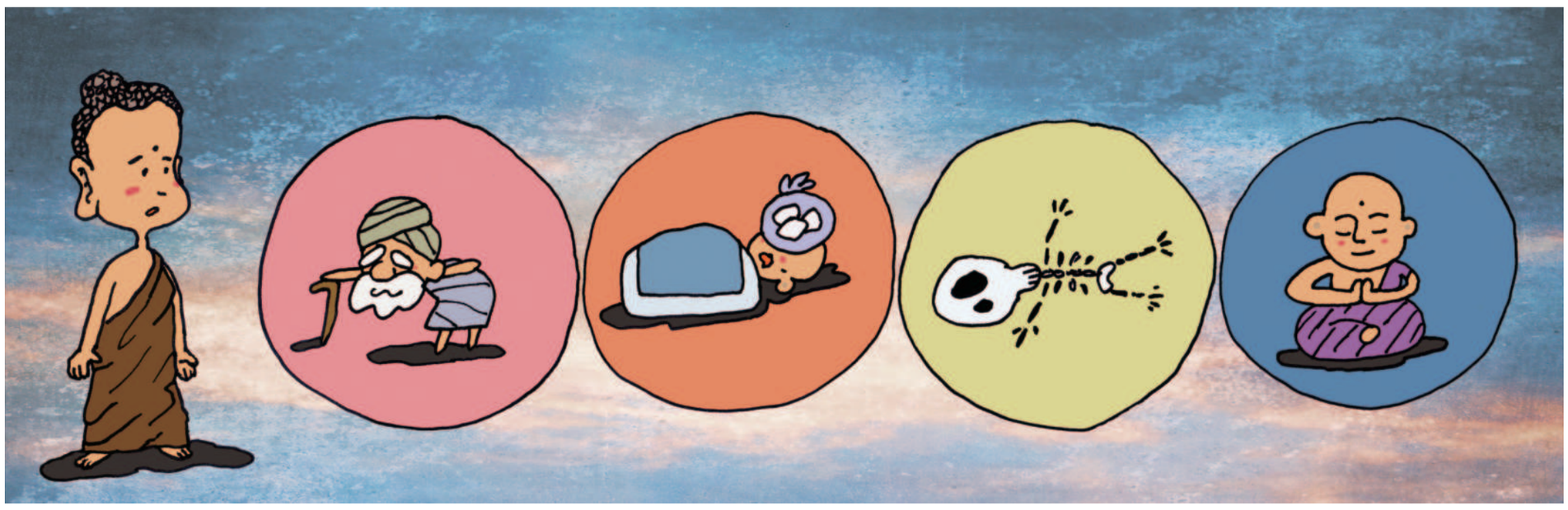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석보상절 24권 중 10권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 그 첫 권인 3권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이 사대문 밖 이야기 중 '병듦에 대하여'를 꼽을 것이다. 내가 40대 초반일 때 내 어머니는 당뇨 말기 합병증으로 복막투석과 녹내장으로 앉지도 눕지도 걷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계셨다. 나는 당시 한 자 한 자 사경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으며 그야말로 전율이 일었다. 인간이 병드는 원인을 이렇게 단순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최초의 조선 불교 대장경 속으로 들어가 보자.

남문 밖 병든 사람을 관하다

**다음에 남문 밖에 나가시니 정거천이 병든 사람이 되어 길가에 누웠거늘 태자께서 물으셨다. 모시던 신하가 대답하였다.**

**"이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입의 번뇌를 못 참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나는 것이니 인생에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太子又問 何謂爲病 答曰 夫謂病者 皆由嗜欲飮食無度 〈석가보〉 21c25)**

**태자가 말씀하셨다.**

**"몸이라는 것이 있으면 괴로움을 받는 수고로운 일이 있는 것이니 나도 저러할 것이로다."**

**하시고 궁으로 돌아가 들어앉아 시름겨워 하셨다.**

'입의 번뇌를 못 참아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나도 어느새 당뇨 환자 몇 년 차이다. 봐도 봐도 뜨끔한 이 한 마디. 우리 어머니가 전 생애를 들여 온몸으로 가르쳐주신 이 한 줄을 나도 어쩌지 못하고 걸려들었다. 엄마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한국전쟁을 겪고 남녀차별이 극심한 시대를 관통하며 21세기 시작 즈음까지 사셨다. 가난한 시집과 친정의 대소사와 우리집 대식구들을 위해 뼈가 부서지게 일하셨다. 그리곤 나이 마흔에 그 당시 이름도 생소했던 '한국형 당뇨'라는 병에 걸렸다.

못 먹고 못 배우고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겨우 먹고 살만해진 나이에 걸린 이 병은 '먹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는 병이었다. 엄마는 너무나 억울해 하며 '먹고나 죽겠다'고 하셨다. 우리는 엄마의 간난신고의 시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말릴 수가 없었다. 결과는 참혹하였다. 갖은 합병증 끝에 60대에 돌아가셨다. 그러나 이럴 줄 알았다면 다시 돌아가 죽기 살기로 말렸을까. 아마 그러지 못하였을 것이다. '몸이라는 것이 있으면 괴로움을 받는 것'이 철리이니 결국 나 또한 조심하였지만 그 길에 동참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인생에 면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과거현재인과경〉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병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병이라 함은 모두가 탐하며 욕심내고 음식에 절도가 없는 탓인데 사대육신이 고르지 못하다가 점점 변하여 병이 됩니다, 온 뼈마디가 고통스럽고 기력이 없어지며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잠자리가 편안하지 못하옵니다. 비록 몸과 손이 있기는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남의 힘을 빌린 연후에야 앉고 일어납니다.(夫謂病者 皆由嗜欲飮食無度 四大不調 轉變成病 百節苦痛 氣力虛微 飮食寡少 眠臥不安 雖有身手 不能自運 要假他力 然後坐起)"**

병의 원인은 음식을 너무 탐하고 욕심껏 과도하게 먹는 데 있다. 명심하고 명심할 일이다.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나의 몸을 조절하기 위하여 운동을 하고 최대한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민폐가 되지 않도록 나의 손발을 움직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일이다. 우리는 이제 거의 독거하다가 고독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으셨다. "길을 깨끗하게 하라 하였더니 어찌 병든 사람을 또 보게 하였느냐."**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살피는 일이야 가장 극진히 하였지만 어디서 온 지 모르는 사람이 문득 앞에 내달아 나타나니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왕이 하늘의 일인 줄 아시고 벌을 주지 않으셨다.**

아버지 정반왕이 아들 싯달타를 출가시키지 않으려고 갖은 방편으로 애면글면하는 모습이 눈물겹다. 하지만 이미 하늘의 뜻이라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체념하는 모습 또한 애잔하다. 인간으로 태어나 늙고 병드는 자연의 이치를 누구인들 거스를 수 있겠는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가 우리를 철학자로 만드는 것이다.

남문 밖서 병자 만난 싯달타
병듦 원인, 식탐 · 과식 지목
서문 밖서 장례식 광경 목도
생로 병사 순환 싯달타 고민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자기의 깜냥만큼 근기만큼 가볍든 무겁든 그 무게의 등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석보상절〉 원문에는 신하들이 '우리의 죄'가 아니라 강변하니 왕은 '죄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쓰여 있다. 똑같은 '죄'가 두 번 쓰이고 있는데 '죄와 벌'의 의미이다. 우리는 지금도 종종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보면 그러다 '죄 받는다'라는 말을 쓴다. 사전에는 '죄에 대하여 벌을 받다'로 풀이되어 있다. '죄 주다'라는 말은 '죄에 대하여 벌을 주다'로 풀이한다. 우리의 심리 속에 나쁜 일을 저지르고 난 뒤 받는 벌보다 나쁜 일을 하는 자체를 저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투영된 표현이 아닐까. 어쩌면 죄를 저지르는 상황에 처해진 것 자체가 벌인 것이다. 600년 전 글을 읽으며 우리 낱말의 어원과 쓰임새에 대해서 곰곰이 사유하게 된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나의 죄와 벌도 상기하게 된다.

서문 밖에서 죽음을 관하다

**한 바라문의 아들 우다이라 하는 이가 총명하며 말을 잘 하였는데 정반왕이 불러다가 태자의 벗을 삼으셔서 항상 곁에 있게 하여 시름을 풀게 하셨다.**

**태자가 또 서문 밖에 나가시니 정거천이 죽은 사람이 되어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모두 울면서 좇아가거늘 태자께서 물으셨다. 우다이가 대답하였다.**

**"죽은 사람이니 인생에서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

**태자가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을 보니 넋은 없지 아니 하도다. 죽으락 살락하며 다섯 길에 다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니 나는 내 정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고 돌아오셔서 더욱 시름에 차 계셨다.**

다섯 길은 지옥과 아귀, 축생, 천도, 인도이다. 천도는 하늘에 가서 태어나는 길이요 인도는 사람이 되어서 오는 길이다. 정신(精神)은 마음이니 넋이라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마지막 관문인 죽음을 관찰하는 태자. 그의 말벗은 이제 신하가 아니라 아버지가 골라준 우다이란 친구이다. 우다이(優陀夷, Udāyi)는 정반왕(淨飯王)의 참모 우타야나의 아들인데 총명하고 지혜로웠다고 한다.

네 사람이 죽은 사람을 들쳐 메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본 둘의 문답이 예사롭지 않다. '죽음은 인생에서 면할 사람이 없다'는 명제. 2500년 전의 죽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현재 살아있음이 당연하지만 2500년 후 이 글이 남아 있다면 누군가는 이 글을 읽으며 '이 사람 또한 죽은지 오래건만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마음으로 번역을 했네'라고 할 것이다. 누구도 면할 수 없는 죽음, 다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기의 보폭으로 걸어갈 뿐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은 사람이 윤회하는 것을 죽으락 살락 한다고 하는 것이다. 현재는 '할락 말락, 보일락 말락' 등으로 남아 있지만 '~락'은 '상대되는 두 동작이나 상태가 번갈아 되풀이'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인간으로 살았다가 죽고 짐승으로 살았다가 죽고 하기를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석보상절〉 3권이 초간본이 아니라 중간본이라서 '죽으락 살락'이라고 잘못 판각된 부분이 있다. '죽으락 살락'으로 고쳐 번역한다.

흔히 말하는 육도 윤회가 아니라 '오도(五道) 윤회'를 한다고 갈파한다. 오도란 '지옥과 아귀, 축생, 천도, 인도'이다 여기에 '아수라'를 더하면 육도가 된다. 첫째 지옥도(地獄道)는 가장 육체적 고통이 심한 세상이다. 둘째 아귀도(餓鬼道)는 지옥보다 육체적인 고통을 덜 받으나 반면에 굶주림의 고통을 심하게 받는다. 셋째 축생도(畜生道)는 네 발 달린 짐승을 비롯하여 새 · 고기 · 벌레 · 뱀까지도 모두 포함되는 세상이다. 넷째 인간이 사는 인도(人道)이고, 다섯째는 행복이 두루 갖추어진 하늘 세계의 천도(天道)이다. 곧 인간은 현세에서 저지른 업에 따라 죽은 뒤에 다시 여섯 세계 중의 한 곳에서 내세를 누리며, 다시 그 내세에 사는 동안 저지른 업에 따라 다음 내세에 태어나는 윤회를 계속하는 것이다.

여기서 싯달타의 통찰이 돋보인다. 죽은 사람에게 '넋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넋과 정신, 마음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죽은 이의 무엇을 보고 넋이 있다고 한 것일까.

나의 경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엄마의 넋을 믿게 되었다. 엄마의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듯이 정신도 마음도 나에게 전해지고 있고 힘이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 그저 그 마음뿐이다.

그러나 태자는 여기서 한 소식하고 있다. 범부인 나와 다른 점이다. 자신의 정신을 오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리라는 결심이 그것이다. 이제 그 결심을 실천할 일만 남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사문유관의 마지막 북문 밖의 이야기에 그 해답이 나타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문서번호 (2021-01-18)

공 고

(분한신청 / 승려증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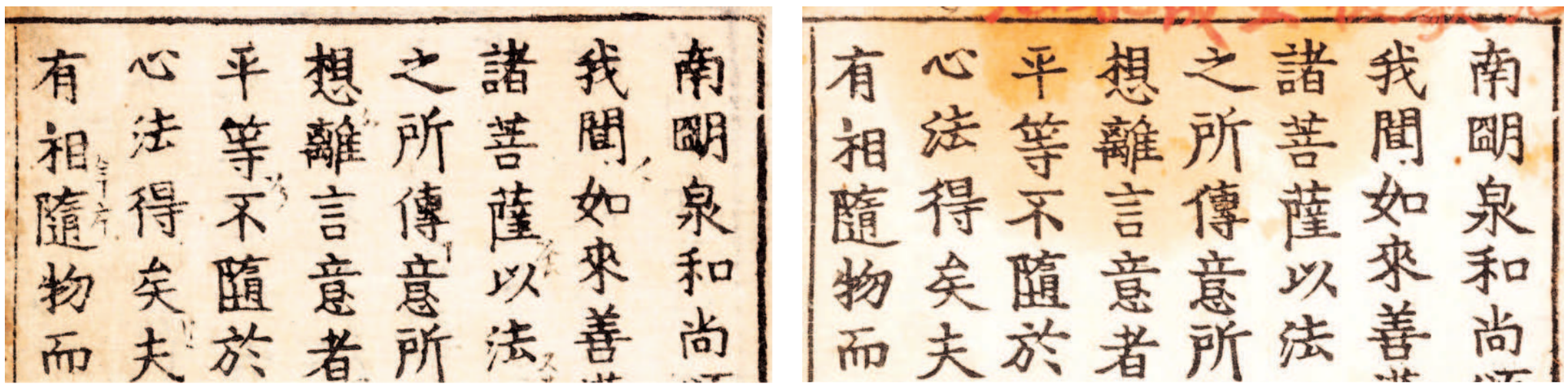
삼보에 귀의 하옵고
대한불교 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 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와해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 되었는바, 이런 역경을 딛고 대한불교 원효종에 전통성을 되찾고 원효성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신심을 내어 주신 스님들의 원력으로(2017카합10083대한불교원효종종정직무대행, 2019비합3003, 대한불교원효종임시종정결정, 대구고등법원2020라388임시종정선임결정), 2021년 1월 12일자로 이종윤(원호)스님을 대한불교원효종임시종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종단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종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스님들의 위촉, 임명 또는 임원, 의원 등 모든 직책은 법적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종무행정의 질서를 재정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갱신업무를 시행하오니 착오 없이 갱신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스님 측의 갱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하지 않으신 스님들께서도 아래 기간에 맞추어 속히 갱신을 완료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기간 내에 갱신발급을 신청을 하지 않은 종도들은 공고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다 음

◉ **갱신범위** : 사암등록증 ·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 승려증
◉ **갱신기간** : **2021년 6월 ~ 7월** (※공고일 부터 1개월)
◉ **주 소** : 경북 경주시 배리2길 34-7
◉ **문 의 처** : 총무원 054)745-3400 / 팩스 054)745-3400 / H.P 010-9388-3883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이종윤(원호)**



공인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사진 왼쪽)와 삼성박물관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사진 오른쪽)의 모습. 공인본은 농담 차이가 많지만, 삼성본은 인쇄가 가지런하다. 초기 금속활자는 기술 문제로 가지런하지 못하고 조잡한 경우가 많다. 특히, 개인이나 지방 사찰에서 주조해서 한계가 있었다. 사진 제공= 박상국

# 공인본 남명증도가, 재조명 시급하다

## 남명증도가 진위 파악에 관심을

### 고려, 最古 인쇄기술 보유국

1999년 미국 타임사는 지난 천 년 세계를 움직인 100대 사건을 선정하여 발표했는데, 1위가 1455년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찍어낸 '42행 성서'를 최대 사건으로 뽑았다.

금속활자는 지식정보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보급할 수 있는 3차 지식정보 혁명이다. 이후 유럽은 종교혁명,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민주주의를 탄생시켰고, 오늘날 현대문명을 일으킨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

1972년 프랑스 파리도서관 지하 수장고에 묻혀 있던 〈직지〉가 박병선 선생에 의해서 발굴되어 '세계 도서의 해'를 기념하는 책 전시전에 출현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직지〉의 책 말미에 "1377년(고려 우왕)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하여 보급하다"라는 간행 기록이 있어서 세계 인쇄사에서 공인을 받았고, 2001년에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려 때의 문헌에 나온 금속활자에 대한 기록이 모두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고려가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사용한 문화민족이고, 책의 나라임을 세계만방에 입증하였다.

당시 〈직지〉의 발견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하나의 쾌거이다. 그러나 사실 고려는 금속활자 발명국은 맞지만 사용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반 대중이 독서를 하기 위한 책의 간행이 아니라 특정집단과 국가에서 필요한 소량의 책을 인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751년)과 초조고려대장경과 의천대사의 교장(속장경), 그리고 팔만대장경의 우수한 인쇄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고려는 불교나라로 우수한 인재가 동원되어 범종, 불상(철불), 향로, 당간지주 등 최고로 금속을 다루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숙종 때는 송나라에 유학을 한 대각국사 의천(義天)의 건의에 따라 '해동통보'란 주전화폐(鑄錢貨幣)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고려인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 〈남명천화상송증도가〉 최초 금속활자본

2015년 보조사상연구원 세미나에서 박상국 선생이 발표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남명증도가(공인본)'는 국내의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을 보완하여 지난해 〈남명천화상송증도가,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였다. 경천동지할 세계 인쇄문화사를 다시 써야할 대사건이다. 1377년에 간행한 〈직지〉보다 138년 앞선 1239년에 간행된 것으로 책의 끝에 붙은 간기(刊記)에서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박상국 선생은 평생을 문화재청에서 재직한 전문위원, 문화재위원을 역임하였고 전국 사찰 소장 목판조사를 수행하여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의천(義天)의 교장(敎藏), 고려대장경 등의 진실을 밝힌 불교서지학의 최고 전문가이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 현존하는 13권의 〈남명천화상송증도가〉 책 끝에 수록된 '최이(崔怡, 崔瑀?~1249)의 지(誌)'를 삼성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간행 발문으로 잘못 이해했음을 지적하였다. 이 지문이 목판본과 활자본을 구별하는 첫 번째 열쇠이다.

그 내용 가운데 핵심 지문인 "중조주자본(重彫鑄字本)"에 대해 삼성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보물로 지정할 때 "주자본(금속활자본)을 목판본으로 다시 새겨"라고 해석했다. 그 이후 삼성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 외 12종이 모두 목판본으로 해석되었다.

박상국 선생은 공인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에서 "중조주자본(重彫鑄字本)"의 해석은 "공인(工人)을 모아 주자(금속활자)로 다시 간행하여 오래도록 전하고자 한다. 때는 기해(己亥, 1239년) 9월 상순 중서령 진양공 최이 삼가 기록한다"라고 해석해야 함을 5명의 저명한 한문학자에게 해석을 의뢰한 것을 들어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이(崔怡) 지(誌)"는 삼성본의 간행 발문이 아니라고 발표한 것이 동아일보에 보도되었다.

무신정권의 권력자인 최이가 써준 지문은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인쇄가 성공했기 때문이지, 주자본을 저본으로 다시 번각(飜刻, 원판의 책을 그대로 다시 새김)한 허접한 목판본 책에다 지문을 써주지 않았을 것이고, 최근에 최이의 발문은 삼성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간행 발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둘째, 삼성본(삼성출판박물관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에 나타나는 목판본의 특징과 공인본(공인박물관 소장) 〈남명천화상송증도가〉에 나타나는 금속활자의 특성을 대조 비교해가며 전문가 입장에서 명확하게 분석하여 지적하고 있다.

"공인본은 금속활자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주조 기술의 미비로 생긴 너덜이, 획의 탈락, 가필이 많고, 농담(濃淡)의 차이가 크다. 반면에 삼성본은 판면이 평평한 목판에서 인출(印出)한 것이므로 농담의 차이가 없다. 다만 할렬(割裂, 목재의 결에 따라 발생하는 파괴현상, 목판본에서 보이는 특징)이 많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상국 "남명증도가, 最古" 주장**
**기존 '공인본=목판본' 결정 잘못**
**목판아닌 금속활자본 특성 가져**
**남명증도가, 직지보다 138년 앞서**
**인정되면 세계 인쇄사 다시 쓸 것**

이 부분에서 박상국 선생은 전국 사찰의 목판 경판을 조사하여 500여 책에 대한 문화재 지정 조사와 5만여 책에 대한 해외 전적(典籍) 조사를 주관한 국내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이다.

원래 〈증도가(證道歌)〉는 중국 당나라 육조 혜능(慧能)대사의 제자인 영가 현각(永嘉 玄覺, 665~713)대사가 자신이 깨달은 경지를 시로 읊은 운문(韻文) 형식(7언시)으로 총 267구의 선시집(禪詩集)이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중국 송나라 때 남명 법천(南明 法泉) 화상이 영가대사의 〈증도가〉를 찬송하여 기리는 송(頌, 문체의 하나)을 붙인 책이다. 이 책이 고려에 전해져서 1239년에 송나라 본(本)을 금속활자(주자본)로 다시 간행하였다(重彫鑄字本). 그 후 이 주자본(鑄字本)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목판본으로 번각(飜刻)한 판본이 삼성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 대구 개인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 반야사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 등이다.

삼성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목판본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 목판본으로 분류되어 1984년에 보물758-1호로 지정되었다. 그 후 2012년에 공인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이 나와 삼성본과 동일본이라 하여 보물758-2호로 지정되었다.

박상국 선생에 의하여 공인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가 목판본이 아니라 금속활자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동안 문화재청에서 공인본을 삼성본의 후쇄본으로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힌 새로운 연구 논문이다. 목판본으로 보물 지정된 것이 잘못되었으니 금속활자본으로 다시 심의하여 진위를 밝혀달라는 내용이다.

### 새로 써야 할 세계 인쇄역사

문헌 기록에 있는 유물은 언젠가는 나타난다. 땅 속이든지, 바다 속이든지 역사의 현장으로 드러난다. 중국 청나라 말기 1899년, 왕의영(王懿榮)에게 한약재로 쓰이던 것이 갑골문자임을 우연히 알게 되어, 은나라 수도 은허(殷墟)가 발굴되고, 은(殷)나라가 중국의 역사 속에서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의 〈직지〉도 그렇고, 신안 앞바다 속에서 송나라 때 도자기를 실은 운반선이 침몰했다가 천 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천신만고 끝에 1940년에 나타난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과 똑같은 책이 현재 경북 상주(상주본)에서 2008년 나타나 고서수집가 배익기의 수중에 은익되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나 유물을 찾고 발굴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킨 선진국가가 일제히 문화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인류의 정신문화사는 책, 즉 인쇄문화가 주도해 왔다. 우리 민족은 책을 좋아하고 기록을 잘 하는 책의 나라 국민이다.

박상국 선생의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금속활자로 밝혀지면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세계기록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만방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종주국으로서 인쇄문화국의 자리를 확고히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서지학(書誌學)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서지학의 수준이 목판본인지, 금속활자본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금속활자는 금속세공기술, 서법예술, 서각예술, 종이제작 기술, 먹(번지지 않는 잉크)제조 기술, 거푸집 만드는 흙과 불을 다루는 기술, 등 다방면의 종합적인 전문기술과 엄청난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당시 도자기(陶瓷器) 기술과 함께 최첨단 기술의 총아였다.

당시 금속활자본은 초창기 기술 문제로 조잡할 수밖에 없다. 조선 초기 태종 이후는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하여 왕명으로 계미자(癸未字)를 국가가 주조(鑄造)하였고, 세종의 갑인자(甲寅字)에서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활자가 탄생했다. 그러나 개인이나 지방 사찰에서 주조한 활자본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234년에 〈상정고금예문〉을 50권,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고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에 기록에만 되어 있고, 실제로 책이 없지만 공인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보물로 지정되어 현물로 존재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검증하고 판결을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제 국가와 학계에서는 공인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가 박상국 선생의 주장대로 금속활자본인지, 목판본인 삼성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후쇄본인지를 다각적 분야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연구하고 금속활자본의 진위를 검증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불교계는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또 다른 직지의 발견을 위하여 공인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금속활자본 진위를 밝히기 위한 공론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과 불자들의 관심이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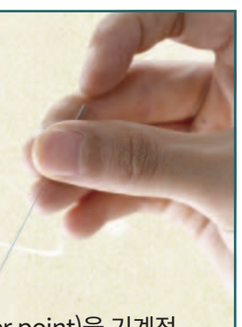


김형중(前 동대부여고 교장)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우공침술 개인지도

우공침술의 TLS 침법은 근육의 통증유발점(trigger point)을 기계적으로 자극하여 몸의 통증을 멈추게 하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통증유발점을 기술적으로 자극하는 침법이므로 경락의 경혈들과는 무관한 과학화된 침법입니다. 따라서 통증치료에 관한한 TLS 침법이 단연 으뜸임을 자부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TLS 침법을 개인지도를 통해서 딱 6일 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딱! 6일 동안만 시간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TLS 침법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침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딱 6일 동안만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딱 6일 만에 고통스러운 통증은 물론, 많은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고 멋진 전문 침술인으로 변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우공침술원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완벽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지방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서 '신보선의 침의학과 건강·의학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10-4054-7110
우 공 침 술 연 구 원

# 석가모니 분신불의 출현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㉒ 다불설(多佛說)

그때 석가모니불의 분신인 여러 부처님들이 한량없는 천만억의 다른 국토에서 오셔서 팔방의 여러 보배나무 아래의 사자좌 위에 가부좌를 하고 계셨다. 그 부처님들 시자들도 각기 이 보살 대중이 삼천대천세계 사방의 땅으로부터 솟아나와 허공에 머무름을 보고 각자 그가 모시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한량없고 가없는 아승지의 보살 대중은 어디서 왔나이까?"

그때 여러 부처님들이 시자들에게 이르셨다.

"선남자들이여, 잠시만 기다려라. 여기 미륵이라는 보살마하살 있어, 석가모니불께서 수기하셨으니 다음에 부처님이 될 분이니라. 그가 이미 이를 여쭈었으니 부처님께서 이제 곧 답하시리니, 그대들은 스스로 이로 인하여 듣게 되리라."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아일다여, 그대가 능히 나에게 이런 큰일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마땅히 함께 일심으로 정진의 갑옷을 입고 견고한 뜻 일으켜라. 여래가 이제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모든 부처님의 자재한 신통력과 모든 부처님의 사자분신의 힘과 모든 부처님의 위엄 있고 용맹한 큰 세력을 나타내어 보이려 하노라."

"내 이제 이 대중 그 속에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아일다여, 이 모든 대보살마하살의 한량없고 가없는 아승지 수가 땅에서 솟아난 것은 그대들이 예전에 보지 못한 바이지만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얻고 나서 이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그 마음 조복해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였니라. 이 모든 보살들이 다 사바세계 아래 허공 속에 머물러, 모든 경전을 독송하고 통달하며, 사유 분별해 바르게 이를 기억하고 있느니라. 아일다여, 이 모든 선남자들은 대중 속에 있으면서 말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항상 고요한 곳에 있기를 바라서, 부지런히 정진해 쉼이 없으며, 또 인간과 천상을 의지해 머물지 않고 늘 깊은 지혜를 즐겨 걸림이 없으며, 또한 언제나 모든 부처님의 법 즐겨서, 일심으로 정진해 위없는 지혜를 구했느니라."

대승불교의 특징 중 하나는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하는 다불설(多佛說)이다. 법신을 주불로 하여 삼세제불설(三世諸佛說), 시방제불설(十方諸佛說)이 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이나 모두 부처님이 있다는 말이다. 부처님은 법을 설하는 설주(說主)이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법이 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상설(常說)이라 한다. 〈법화경〉에서는 법화법문이 상설의 법문임을 강조한다. 이 장(章)에 석가모니 분신불이 출현했다는 말이 나온다. 한 불신이 나누어져 수많은 불신이 생겼다는 말이다. 분신불의 시자들이 땅에서 솟아 나와 허공에 있는 보살들을 보고 놀란다. 부처님은 이 보살들이 자신이 교화하여 보리심을 일으키게 한 보살들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한 가지 명기할 점은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교화를 받은 이들은 성문이나 연각이 아닌 보살들이라는 점이다. 〈법화경〉은 소승법을 배격한다. 대승경전은 인간 석가모니의 역사적 행적을 알아내어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다. 의인화된 법신의 활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법신의 활동을 보살들이 대행한다. 중생교화의 임무를 띠고 부처님이 설한 경전을 독송하고 통달하여 바르게 기억하고 있다고 경문에서 말했다. 부처님이 본래 설하신 〈법화경〉을 독송하고 통달해 있다는 말이다. 보살은 일승법(一乘法)에 의거하여 불사(佛事)를 하는 이들이다. '인간과 천상에 머물지 않고 지혜를 즐겨하여 걸림이 없다'는 말은 인천교(人天敎)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이다.

인천교란 선업을 지어 다음 생에 인간에 다시 태어나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기를 희망하고 또 천상에 태어나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인과법에 의지해 기복(祈福)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깨달음을 얻는 궁극적인 신행이 아니고 삼계를 벗어나는 해탈을 얻지 못하는 소승법보다 아래에 있는 불교다. 삼악도의 고통을 모면하는 선과(善果)를 얻지만, 소승이나 대승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본다. 규봉 종밀(圭峰 宗密, 780~841)의 오교설 가운데 맨 아래에 있는 판교(判敎)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 안으로 간직한 청정·유연한 마음 중요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㉒ 보살도와 사십칠계

온갖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아름다운 산의 풍경을 감상하게 된다면, 누구나 등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 마음이 조금 더 간절해지면 간단하게 짐을 챙겨 산으로 향할 것이다. 그런데 처음 산에 오르는 이라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몰라서 한참 동안 두리번거릴 것이다. 어떤 이는 길을 잃어 중도에 산행을 포기할 것이며, 어떤 이는 잠시 길을 헤매다가 산행을 계속할 것이다. 가령 처음부터 꿋꿋이 산에 오른 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쳐버릴 것이다.

처음 대승불교에 뜻을 일으킨 보살, 즉 초발의(初發意)보살 또는 신발의(新發意)보살도 처음 산을 오르는 이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대승불교의 이념에 매료되어 대승보살이 되기로 마음먹었지만, 막상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바로 보살도(菩薩道)이다. 초기 대승경전에서의 보살도는 6가지 바라밀을 닦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과 중생의 제도(濟度)를 원만히 해야 한다. 또 보살은 보살도가 성불의 바른 원인이며, 성불은 보살도의 결과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살도를 보살이 실천해야 할 정계(正戒)로 설하는 〈보살내계경(菩薩內戒經)〉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전은 송(宋)의 구나발마(求那跋摩)가 한역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한역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여하튼 이 경전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앞부분이 십이시설법부(十二時說法部)이다. 여기에서는 보살의 6가지 바라밀행을 설하지만, 설법 형식은 15일의 설계회(說戒會)에서 십이시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형식은 대승불교 이전에 행해졌던 반월(半月)의 포살설계회(布薩說戒會)이지만, 실은 보살행 전체가 계경(戒經)으로 온종일 설해지는 것이다. 각 시(時)에는 수계(受戒)의 형상(形相)으로 보살행을 설하는데, 시라(尸羅) 바라밀 부분에 47계(戒)가 나온다.

일본의 불교학자인 오노호도(大野法道)는 이 47계를 대승계조(大乘戒條)의 오래된 형태로 간주하면서 내용에 따라 6종류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오계 및 십선계에 해당하는 16가지 조목이다. 보살은 살생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하지 말아야 하며, 사람을 속이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며,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또 보살은 이간하는 말, 욕설, 거짓말, 꾸미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질투하지 말아야 하며, 화내지 말아야 하며, 어리석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하며, 그릇된 마도(魔道)를 믿지 말아야 한다. 또 보살은 간탐(慳貪)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이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야 하며, 남녀 간에 서로 음란한 놀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부정한 계량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6가지)이며, 세 번째는 사람이나 가축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8가지)이며, 네 번째는 타인 침해를 금지하는 것(7가지)이며, 다섯 번째는 부정한 이의 집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7가지)이며, 여섯 번째는 자비로 베푸는 것(3가지)이다.

언뜻 보면 마지막의 3가지 조목을 제외한 44가지 조목은 금계(禁戒)의 형식을 띠는 듯하다. 그렇지만 제1계에서 강조하듯이, 살생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입·뜻으로 살생을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단순히 행동으로 드러나는 몸과 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마음속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 이런 까닭에 경전에서는 "보살은 안을 경계하고 밖을 경계하지 않는다"고 설한다. 보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안으로 간직하는 청정하고 유연한 마음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㉒ 빨리어

## 빨리어 석가모니 당시 언어일까

석가모니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이에 대해 온전한 근거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례는 아직 없으며, 국내 학계나 해외 학계에서도 석가모니가 사용한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불교의 기록은 석가모니 이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등장하기 때문에 본래 석가모니의 언어를 증명하는 단서로 인정하기 힘들다. 인도에서 기록문화가 다른 문명처럼 일찍 정착했더라면 이러한 고민거리는 쉽게 해소되었을지 모른다. 기록문화 대신에, 인도는 그 어떤 문명보다도 구전(口傳) 전통이 정교하게 발달한 곳이다. 하지만 초기 인도의 베다 전통과 달리, 불교는 일방적으로 하나의 구전언어를 성스러운 언어로 지정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베다와 같은 엄격한 구전 전통을 따르지도 않았다. 언어('소리')에 성스러움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도문화사의 특수성 때문에 석가모니가 본래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더욱 어렵게 만든다.

혹자들은 석가모니가 중세 인도-아리아어의 한가지로 분류되는 빨리어(Palī)를 사용했노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빨리어로 기록된 불경들 특히 동남아 상좌불교에서 전승되는 빨리어 장경이 불설의 초기 형태를 가장 잘 담고 있다는 주장도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20세기 초반에 일부 불교학자들이 만들어놓은 판타지에 지나지 않는다. 또는 전설적인 동남아의 전승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같이 비판 없이 설정된 전제 때문에 빨리어경전이 초기불교를 대변하게 되는 오류를 낳게 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정보가 범람하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으나, 과도하면 자신의 신념이나 신앙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석가모니의 언어가 빨리어라는 확증편향이 현재 한국의 불교계에 널리 퍼져있는 이유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불교는 오랫동안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인식근거를 존중한 종교였으며, 불교계도 이러한 편향적 정보에 대해 언젠가는 합리적 판단에 임할 것이라 기대한다.

해외 불교학계나 국내 불교학계에서는 오랫동안 합리적 비판을 거쳐 석가모니의 언어와 관련해 꽤 설득력 있는 합의에 도달한 것들도 있다. 첫째는 우리가 아직 석가모니가 어떤 언어로 말했는지 모른다는 점이며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은 앞으로도 매우 적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불교혼성범어(Buddhist Hybrid Sanskrit)와 간다리어(Gandharī), 빨리어 등은 석가모니의 사멸 후에 등장한 어떤 공동의 가상적 모어(母語)에서 파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불교중세인도어(Buddhist Middle Indic)라고 부를 수 있다. 셋째는, 이 불교중세어 가운데 특히 빨리어는 어떤 한 지역에서 발생해서 통용되었던 자연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을 뛰어넘어 여러 지역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인공언어라는 점이다.

빨리어가 석가모니의 언어가 아닐 것이라는 오랜 학계의 합의가 다소 실망스러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직설에 가까운 언어는 빨리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하며, 그것은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불경은 간다리(Gandhari)로 적은 것이다.

빨리 문헌이 붓다의 직설을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텍스트라는 전제 역시 20세기 후반에 부정되었다. 그것은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지에서 유출되거나 발견된 필사본 단편들 때문이다. 스코이엔 콜렉션이나 바주어 콜렉션 등의 다수의 불경 필사본들은 빠르게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까지 작성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교사본들이다. 이 필사본들은 빨리어가 아니라 같은 중기 인도아리아어 범주에 해당하는 간다리어로 작성된 것으로 빨리어텍스트 편집에 사용된 스리랑카의 필사본보다도 적어도 1500여 년 이상 앞선 것이다. 빨리어 니까야가 불설을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불경이라는 전제는 20세기 후반에 간다리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의심을 받게 되었다. 가장 오래된 빨리어 필사본이 오래되어봐야 A.D. 700년 정도라고 해도(그것도 카투만두의 빨리어 필사본), 간다리 사본은 A.D. 1세기 전반까지 소급되기 때문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생활 안내

1344호 | 17 | 전면광고

악의 결과는 오직 자신만이 받게 될 뿐
부모나 형제가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항상 덕스럽고 깨끗한 행동을 한다면
결과에 대해 두려워할 것은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출요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법당,신당,무료철거**

퇴송의식
스님 항시 대기
모시던 부처님 어려운 스님들께 이운시켜 드립니다
세계불교 지장종 종정 운산 합장
(폐기물 처리비, 소각비만 받습니다)
010-2395-3333

**수강생 모집**

명리학기초부터
길흉판단 · 작명
단시일내
* 삼송정사 *
010-9323-5693

**요양원에 끌려가기 싫은 분**

❖ 노인끼리 뭉치면 행복, 흩어지면 불행
❖ 건강, 주거정보 공유, 전국 70세 이상
❖ 남녀 회원 접수, 미래를 아는 사람
부부 문제와 신경성 질환
❖ 의처증, 의부증, 우울증의 제증상
❖ 심리학, 철학, 한의학의 심리치유
출장상담교육 010-4078-7810

**★검 색★**

GP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사주명리학 강의 수강생 모집**

❊ 3개월 완성 ❊
❊ 왕초보자 환영 ❊
3개월 후에는 술술 잘 풀도록 해드립니다.
강의 장소 : 부산시 또는 경주시
010-2185-1727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 • •
노전스님 모십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암
• • •
010-3525-9919

**易(역) 수강생 모집**

• 왕초보반 : 명리 · 육효 · 영가 찾는 법
YouTube 백암TV 구독 누른 후 시청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오시는 곳 : 2, 4호선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가 피**

손에 잡히는 기도법을 전수 (승려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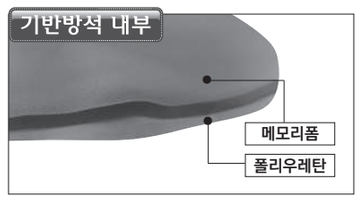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 종류 | | 크기 | | | 수량 |
|---|---|---|---|---|---|
| 향로(스텐) | 特大 | 지름: 20cm | 높이: 18.5cm | 내부: 13cm | 5kg |
| 향로(스텐) | 大 | 지름: 17.5cm | 높이: 18.5cm | 내부: 11.5cm | 3kg |
| 향로(스텐) | 中 | 지름: 13.5cm | 높이: 16cm | 내부: 10cm | 1.5kg |
| 향로(스텐) | 小 | 지름: 12cm | 높이: 12.5cm | 내부: 8.5cm | 1kg |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 | |
|---|---|
| 가로 | 45cm |
| 세로 | 32cm |
| 높이(뒷면) | 8cm |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 | |
|---|---|
|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br>◆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br>◆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
|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br>◆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br>◆**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br>◆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br>◆**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br>◆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br>◆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불자정보

1344호 | 18 | 전면광고

바른 법 보아 남에게 보시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남의 이익 좋아하며 남을 이익 되게 하되
공평하게 하면 많은 사람이 친하게 따르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비유경》에서

## 광 진 불 사

◎위치 : 경기
◎부지 : 5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26억
◎위치 : 대전서구포교당
◎면적 : 35평
◎보증금1000/30만원
◎시설비1000조정가
◎APT상가, 포교용이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납골당 5000개 가능
●가액 : 12억(가격절충)

010-5421-1536

## 전통 암자 안내

●위치 : 충북 괴산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학교, 시장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단청, 공원같은곳(종교용지 900평)
●은행대출 1억5천안고, 2억4천5백만 합계 3억9천5백만(공원같은곳)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010-3535-7906

##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진주시내
●대지:100평 ●건물:법당25평.요사채 30평(방3개.큰다락방.다용도실.공양간.화장실2개) ●해수 관세음보살 입불상(7m) ●부처님 진신사리 3과(기증) ●가액:2억8천만원(대출6천만원 포함)절충가능 ●전.월세가능
●시내지만 조용하고 즉시 법회가능

010-2807-0509

## 사찰(급)안내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창, 편백나무 5천그루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산청군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 청정토굴 안내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남면 온천리514
●대지 85평
●법당 16평, 요사채 12평
●가액 : 6천5백만원
●오염되지않은 청정도량
●개인사정상 양도함

010-4911-4570

##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사천시 곤양면 와티길 212, 총평수 대략500평
●바다가보이고 넓은잔디밭에 조경 잘되어있음, 대웅전, 요사채2층
●사천읍15분거리 축동IC 5분거리
●매매가 4억, 대출 1억가능
●월.전세 문의불문 꼭사실분만 전화 (사찰구입시 몸만오시면됨)

010-5430-4672

##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대지 230 평
●법당 20평, 산신각, 공양간, 찻방, 아담한 산밑자락
●가액 : 3억(대출5천만원) 절충가능

010-9389-7457

## 15년 기반 포교원 안내

●위치 :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대전역 인접
●제반시설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 60평
●2층건물, 옥상 60평 사용
●보증금 1000만, 월세 50만원
●일체 인수 가능하신 분

010-3452-1123

##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체(1,2층)1동, 기도방(연가 및 납골용)
●특징 : 전설속의 백병산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입주조건 :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로 분활상환 가능)
●가액 : 21억(계약과 동시 입주 사용등 협의절충가)

주인직접 010-4225-0012

##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가액 : 11억

010-4547-0023

## 인천 사찰안내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건물 : 지하1층:창고형, 1층: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방3, 화장실, 3층: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가액 : 3억 5천 (시세이하, 급양도함, 사찰연력 40여년)
●답사 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 사찰(급)안내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대지 84평 / 국유지 70평(사용가) 법당 / 요사채 76평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불화등)
●가액 12억

010-6325-5112

## 사 찰 안 내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가액 : 5억(절충가능)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7473-2399

##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 전망좋은 사찰
●대지 : 280평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
●많은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가액 : 10억 5천만원

010-3269-1023

## 기도 도량 안내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체, 공양간
●가액 : 4억(협의가능)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 구서동 이마트 주차장 바로 앞, 롯데캐슬 4500세대 후문 앞 중, 소형아파트 밀집지역, 평지, 탁트인 남향(영구조망인 천하 명당자리)
●일반3종 대300㎡, 건602㎡ 5층건물(증축가능), 고급자재, 유명건축가 작품 건물, 역세권, 투자가치 좋음
●양도가 : 33억(주인직)

051-644-4600

##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2층 독채 40평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금 1천3백만원
●시설완비

010-8567-3667

##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법당 70평 외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가격절충)

010-9015-4040
010-2077-7820

## 토 굴 구 함

산속에 수행정진
토굴을 구합니다.
연락주십시오.
(단산에 있는 도량)
혜성스님

010-5466-3321

##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대지 235평. 법당 25평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가액 : 3억8천5백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 포 교 원 안 내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1층 : 93.3725㎡(방음시공)
●법당, 방1, 공양실
●보증금 1000만 / 월 61만
●권리금 2000만원

010-8752-9477
010-9459-9477

##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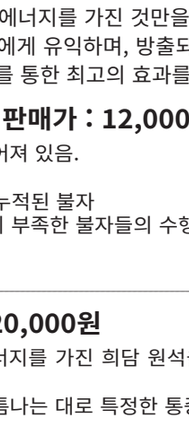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 현대불교
##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사명 | 지사장 | 연락처 | |
|---|---|---|---|
| 부산지사 | 이도경 | T 051-405-9402 | H 010-5640-8883 |
| 경남지사 | 성낙두 | T 051-512-1761 | H 010-3860-7008 |
| 대구지사 | 손문철 | T 053-768-8008 | H 010-2813-8008 |
| 광주전남지사 | 양행선 | T 062-512-5003 | H 010-2629-1508 |
| 전북지사 | 조동제 | T 063-910-8977 | H 010-8642-7733 |
| 영주지국 | 박영애 | T 054-634-3429 | H 010-9373-3778 |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 고통과 알아차림

고통이란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업에서 헤어나지 못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고요함을 찾아야 해요. 생각을 느리게 해야 해요. 이 순간에 깨어 있을수록 마음이 유연해지고 여유로워져요. 자신의 업이 보여서 자유로워져요.

나타나는 현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고통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이에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해요. 생각에 잠긴 것과 생각에서 깨어나는 것, 이 차이를 알고 깨어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불만족과 우울과 불안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아요. 자유와 평화와 알아차림에 기준을 둘 수 있어요. 명상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으세요. 늙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후회하지 마세요.





##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⑪ 아포차

# 천년 야생 차나무 싹눈으로 만든 차

백 년을 살지 못하는 인간이 천 년된 차나무와 사귐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 년 야생 차나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른 봄에 정성스럽게 만든 아포차와 보이차를 우립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천연 원시림 새벽의 맑은 공기, 숲내음. 옹달샘의 신선하고 달콤한 향을 음미하며 천 년 차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귀울여 봅니다.

차나무는 신성한 대지의 아들딸입니다. 천연 원시림 다원에서 차를 만들다 보면 나무만 나무가 아니라 사람도 나무이구나, 풀벌레도 나무이고 들꽃도 나무이고 살아있는 것은 모두 나무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애틀 인디언 추장의 편지'를 읽고 크게 공감을 하였습니다. 시애틀은 원래 인디언 추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슭,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속에 흐르는 수액은 인간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내가 만일 차나무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나무만 그릴 것이 아니라 뿌리도 같이 그리겠습니다. 차나무는 하늘로 한 뼘을 자라면 땅 밑으로 뿌리도 한 뼘을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나무는 위로는 광합성으로 태양의 에너지를 품고, 아래로는 한 때는 바다였다가 산이 된 수억 년 지구의 노래를 농축하여 찻잎으로 피워냅니다. 백년 된 차나무는 백년의 시간만큼, 천년 된 차나무는 천년의 세월만큼.

천 년 차나무에도 재배 차나무가 있고 야생 차나무가 있습니다. 학명이 '카멜리아 시넨시스(Camelliaslnensis)'인 차나무는 3000년 전부터 인류가 재배해 온 재배형 차나무에요. 재배형 차나무는 수형에 따라 키가 큰 교목종, 키가 작은 관목종이 있고, 잎의 크기에 따라 대엽종, 중엽종, 소엽종 등 30여 종이 있어요. 잎이 큰 대엽종은 보이차를 만들고, 잎이 중간인 중엽종은 우롱차를 만들고, 잎이 작은 소엽종은 녹차를 만들지요. 그런데 야생 차나무는 카멜리아 시넨시스의 30 여 종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카멜리아 시넨시스와 조상관계의 나무에요.

야생 차나무의 사전적 정의는 '천연 원시림 속에서 자라는 백년에서 천년이 넘은 수령의 차나무로, 인간에 의해 재배된 적인 없는, 재배형 차나무와 친연관계에 있는 차나무이다.' 입니다.

야생 차나무는 재배형 차나무와 모습도 다릅니다. 수형(나무의 형태)으로 보면 직립형으로 곧장 위로 높이 자라서 가지를 뻗습니다. 찻잎도 거치(가장자리 톱니바퀴)가 발달하지 않았으며 찻잎 뒷면에 백호(흰털: 아주 마세한 가시로 벌레들로부터 자신을 보호)가 없고 꽃잎, 꽃술등이 재배형 차나무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야생종 야생차는 차를 만들면 백호가 없어 검게 보입니다.



2021년 대설산 아포차(좌)와 2009년 천가채 아포차(우).

**수색 맑고 차향은 풍부해**
**시간 흐를수록 향 깊어져**

윈난의 홍토고원 일대에는 다양한 야생차 군락지가 희귀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생종 차나무는 대부분 차성이 강해서 차를 만들어 음용하기 적합치 않으나 그 가운데 10여 종은 맛과 향과 영양성분이 뛰어나서 명차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야생 차나무는 키가 십 미터에서 삼십 미터가 넘으니 차나무의 뿌리는 얼마나 깊을까요. 천 년의 세월동안 어떤 이야기를 품었을까요. 오늘은 윈난 홍토고원의 천 년 야생 차나무로 만든 아포차와 야생보이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포차(芽苞茶)'입니다. 아(芽)는 차싹이고 포(苞)는 차싹을 보호하는 떡잎입니다. 아포차는 이른 봄 2월 초 입춘 즈음에 떡잎 속에 차싹이 올라왔을 때, 그 떡잎에 싸인 싹을 따서 만든 차입니다. 재배형 차나무는 고차수라고 해도 떡잎이 빨리 탈리되는 반면, 야생 차나무는 대자연에서 자생하는 관계로 떡잎이 오랫동안 싹을 감싸고 있습니다. 차 한 모금으로 아! 하는 감탄을 하여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색이 너무 맑아서 순수한 물인지 차인지, 차가 우려졌는지 안 우려졌는지 구분이 가지도 않는데 한 모금을 입안에 머금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차, 수수한 모습 뒤에 화려한 향기의 반전매력을 품고 있는 차. 눈으로 보면 찻잎이 피기 전에 돌돌 말려있는 차싹을 닮았는데 향기는 꽃과 같아서, 복숭화꽃 오렌지꽃 난초꽃 온갖 꽃향이 터져나오는 것이 어찌나 상쾌한지, 차를 마시는 분들은 대부분 눈이 휘둥그레져서 '너는 누구니?' 하고 찻잎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차향이 너무 풍부해서 인공향을 조제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인공향이라면 두 세 번 우리면 맛이 싱거워지지만 이 차는 열 번을 우려도 맛과 향이 변치 않으니 내포성 면에서도 최상입니다.

아포차의 진짜 매력은 시간에 있습니다. 2021년 대설산 아포차가 젊은 맛, 복숭아빛으로 뺨이 물든 아가의 맛이라면 2009년 천가채 아포차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윽함, 천 년 고목의 산기운, 흙과 뿌리와 줄기와 잎이 조화를 이룬 향기, 그 뒤에 밀려오는 야생차만의 상쾌함.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향기로워지는 월진월향(越陳越香)의 마법이 천년 야생 아포차에서 드러납니다. (다음호에서 계속)

〈잇다it茶 대표〉


# 영혼의 세계 빙의

##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굿바이, 분노

▶ 한줄 요약
일체유심조. 고통은 행복을 느끼게 하는 장치다.

# '고통'은 행복의 영양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과연 그럴까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잘 먹고 잘살게 되나요, 아니면 굶게 되나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고통의 흐름과 행복의 흐름 중 무엇이 더 우세한지 알아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극락처럼 행복의 원인이 넘친다면 가만히 있어도 행복해질 것이고, 반대인 경우라면 가만히 있어도 점점 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할 때 고통의 진리를 가장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여 수행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배부른 철학자들처럼 형이상학적 진리를 찾기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삶에서 경험되는 생사의 고통을 비롯한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인 〈니까야〉 속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탁상공론의 느낌보다는 지극히 실존적인 처절함이 묻어납니다. 뼈만 남을 정도로 수행했던 6년의 고행처럼 말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고통의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외면한다고 해서 시간이 멈추지 않듯, 고통 또한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통에 직면해서 원인을 분명히 알고, 그에 걸맞은 올바른 치료법으로 고통을 해결할 때 비로소 자유와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행의 시작은 항상 자신에게 놓여 있는 고통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원인은 드물게 생기고**
**고통의 원인은 너무나 많은데**
**하지만 고통이 없으면 출리심(出離心)도**
**생기지 않나니**
**그러므로 마음이여,**
**고통을 참으며 확고부동하여라.** [6:12]

분노가 일어나기 전 적색경보는 걱정에 흔들리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안감은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고통에 대한 반응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반응을 바꾸는 훈련에는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과 고통을 견디는 힘을 키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 관점을 바꾸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고통은 과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물론 이성적 판단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은 지옥의 형벌과도 같습니다. 이런 경우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수위가 조금 낮은 고통은 자신의 악행에 대한 반성과 선에 대한 욕구, 그리고 쾌락의 대상인 현실에 대한 출리심을 불러오는 등의 긍정적 작용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고통은 일종의 신호로서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줍니다. 이 신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바세계에 넘쳐 나는 고통을 무조건 싫어하거나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고통이 보내는 세상의 신호를 알아차려 삶의 방향을 올바로 교정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수행과 배움 그리고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욕구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건강한 욕구를 서원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욕구가 비대해지면 탐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탐욕이 증폭되면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 거의 모든 일에서 불만족이라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집이 있어도 불만족스럽고, 더 좋은 집을 사도 불만족스럽습니다. 끝없이 증폭되는 탐욕이 정신적 고통을 끝없이 재생산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방향성의 끝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파멸이 존재할 뿐입니다. 파멸의 길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고통은 우리에게 강렬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을 해결하고 싶다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만약 이 신호를 알아듣고 발보리심하여 삶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마법처럼 고통이 사라질까요? 물론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올바른 서원을 실천하는 길 위에도 당연히 고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자는 고통을 증폭시키는 고통이고, 후자는 고통을 해결하는 고통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듯 수행자는 삶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을 소화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수행은 고통과의 직면 과정**
**삶의 방향 제시하는 신호등**
**고통 책임지는 수행자 되자**

**힌두교의 두르가 여신을 믿는**
**까르나빠(Karnapa) 외도는**
**쓸데없이 몸을 태우고 칼에 베이는**
**고통도 견디는데**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큰 이익을 얻기를**
**바라면서**
**인내하지 않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6:13]

논에서는 열반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고통을 코끼리처럼 인내하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따라 인내의 허용량이 달라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랑을 얻기 위해, 명예를 가지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참고 견디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대상보다 위대한 가치를 지닌 것은 바로 최상의 행복인 열반으로의 회귀입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서원하는 이들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고통을 당당히 받아 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삶을 바꾸기 위한 고통을 용감하게 받아들이기로 다짐한다면, 고통이 다가올까 전전긍긍하는 불안감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미 예상했던 아픔이 다가오면 우리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고행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다가올 고통이라면 겁쟁이처럼 도망가서 마음이 흔들리게 두는 것보다, 듬직한 용사처럼 스스로 만든 그 고통을 책임지는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고통은 지옥이 아닌 행복의 꽃을 피우는 영양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 익숙함의 힘으로 고통을 뛰어넘기

세상에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낯선 일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밀히 살펴보면 결국 어려움은 익숙한 정도에 따라 변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낯설어서 어렵지만,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쉬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말 대신 익숙하지 않다는 말을 쓰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커집니다.

익숙함의 힘을 활용하면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고통과 통증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통증은 순수한 육체적 느낌이고, 고통은 이 통증을 포함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통증은 넘어져서 느껴지는 아픔이지만, 고통은 이 통증에다 넘어진 이런 자신에게 화나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더해지기에 강도가 더 셉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처음 예방주사를 맞을 때 우리는 줄을 서는 동안 그 고통을 상상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세월이 지나 주사 맞는 것이 익숙해지면 이 두려움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몸에 주삿바늘을 꽂기도 하니 익숙함은 고통을 뛰어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익숙하게 습관을 들이면**
**쉽게 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나니**
**그러므로 작은 어려움을 참는 것에**
**익숙해지면**
**큰 어려움도 참을 수 있게 된다네.** [6:14]

인내심이 늘어난다는 것은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광대해지면 이에 반비례하여 사건이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인내심이 늘어나면 불안감과 분노가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삶을 바꾸고 싶은 이들에게 이 인내력은 필수적으로 익혀 두어야 하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주관적 행복 지수와 인내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간단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얼음물에 손을 집어넣게 하고 인내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행복 지수가 높을수록 통증을 견디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사람은 인내력이 좋고, 불안에 노출되는 빈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뱀이나 모기, 파리에 물리거나**
**배고픔과 목마름 또는 피부에 난 발진**
**이런 것들은 하찮은 고통이 아닌가.**
**추위와 더위, 비바람과 질병, 감금과 구타 등에도**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해로움은 도리어 늘어만 난다네.** [6:15-6:16]

삶을 바꾸고자 하는 수행자에게 정당한 분노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올바른 견해를 배웠기에 분노는 집착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진실을 분명하게 압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감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지 못하고 화에 사로잡힐 수도 있겠지만, 이는 자기 자신의 실책임을 분명히 알기에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열반으로 나아가는 목표를 추구하는 수행자가 모기에 물린 사소한 일을 참지 못하고 분노한다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심지어 우리는 질병, 감금, 구타, 욕설, 모함 등에도 분노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저울질해보세요. 분노의 교묘한 전략에 속아서 정당한 분노를 뿜어낼 때의 시원한 느낌과 분노 때문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분노의 감옥에 가두어서 생겨나는 고통이 둘 중 어느 곳으로 추가 기우는지 말입니다. 만약 분노의 감옥에서 경험할 큰 고통이 두렵다면 이 작은 고통을 참아 내는 인내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석혜능 역 〈입보살행론〉 '인욕품' 원문 인용
저자 : 원빈 스님 〈이층버스 펴냄〉

AIR BLASTING
BY WOOD POWDER
에어대패 鉋
목분(木粉)을 이용한
신기술 건식공법!
* 목구조 건축물 복원의 신기술 "우드(목분)공법"은 원형복원과 목재의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특화개발된 신공법입니다
* 문화재, 사찰, 단청, 한옥, 목구조물, 조경시설물, 특수건축물, 금속이나 비금속, 수지, 석재 등의 소재에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천년옻칠 黍
천연 옻나무에서 추출한
친환경 인증 천년옻칠
* 해충으로 부터 보호합니다 (방충, 방의, 방부)
* 목재의 크랙 및 변색방지 (방수성/방오성)
* 목재의 고유한색상을 더욱아름답게 유지합니다.
*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통기성)
동화특수산업(주)
031-451-6232 / 010-3747-2111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서울 범패 1기생 : 교육과정 1년 ❖
사물다루는 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시식
천도의식 — 천도재, 49재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각종 바라작법 —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
* 개강일시 :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교육원장 : 대광스님) ※경우에 따라 요일 변경
* 자 격 : 승, 속 관계없음
* 장 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 설법전 (경북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302번지 (모서별봉길 52-33))
* 수 업 료 : 교재비포함 3개월 30만원
* 연 락 처 : 054-762-5888 (종무원)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종무원





대행 스님



# 남을 원망하기 이전에 자기 탓으로 돌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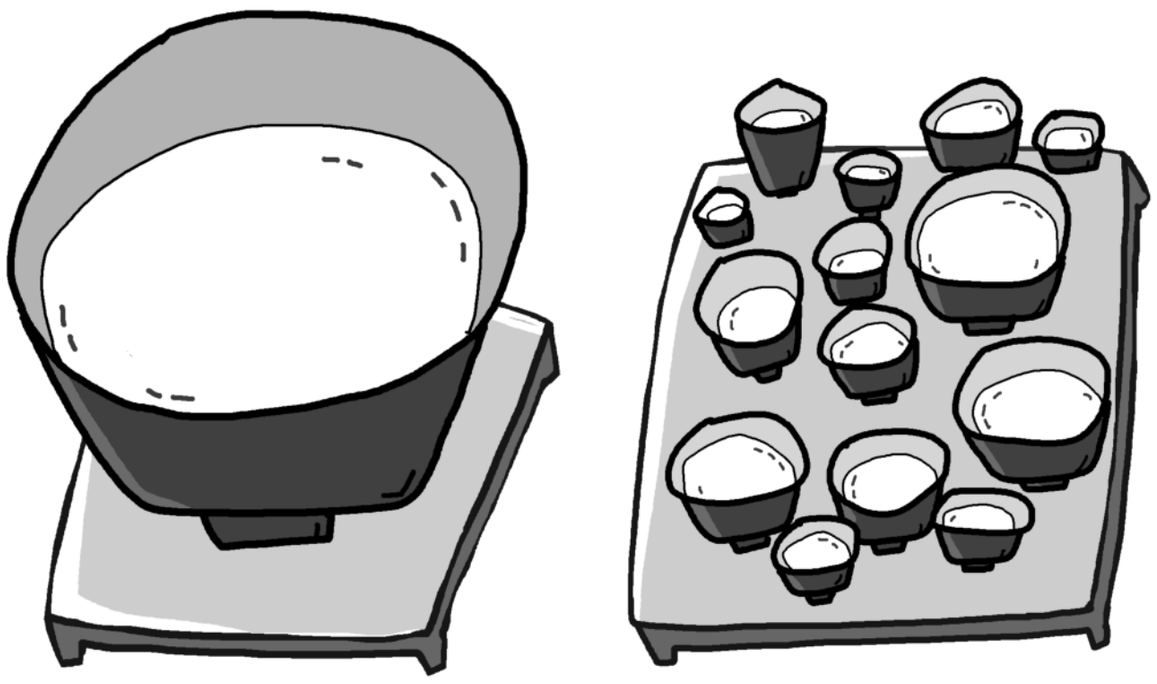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한마음, 주인공과 불성의 의미

**질문** 큰스님께서는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불성'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지요.

**답변** '한마음!' 한다면…, 이게 말을 하자면 길지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악업이나 선업이나 업식이 뭉쳐서, 사람으로 태어나든 뭘로 태어나든 태어나기만 하면 '고(苦)'거든요. 인연에 따라서 다 업식이 돼서 몸 안에 전부 부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된 이 많은 업식의 문제들을 어떡하면 한데 합쳐서 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업식이라는 거나, 마음이라는 자체, 의식이라는 자체가 체가 없는 것입니다. 체가 없죠? 체가 없는 것을 한마음이라고 한다면 고정됨이 없이 돌아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이라는 건 평등(平等), 평등성을 말하죠.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한마음 속에서 병이 난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하는 마음을 냈다면 그건 자연적이죠, 아프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마음을 냈을 때는 바로 불성으로 돌아가죠, 불성으로. 그 마음을 한데 합친, 그러니까 불기둥이라고 해도 되죠.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불(佛)이니까요. 마음들이 한데 모아지는 그 자체가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이 나로부터 있는 거니까 주인공이라고 그런 겁니다. 나로부터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념은 조금조금씩 달라도 한 얼굴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렇듯이 말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다 한 얼굴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듣고 동시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끄달리지 마시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주인공이다 하는 것은, 즉 고정됨이 없이 나로부터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나로부터. 그러니까 나로부터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변함없이, 나 자체 불성은 꿈쩍도 하지 않고 더하고 덜함도 없는데, 돌아가는 마음 자체가 그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고 있죠. 그거를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그런 게 둘이 아닌 까닭에 주인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론으로 헤아리기 이전에, '아버지!' 하고 불렀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지 따로 있습니까?' 하고선 그렇게 '아버지!' 하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름은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전체 포괄적인 뜻으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게 부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부처가 아니라, 이 무생실참의 도리, 이걸로써 자기가 자기를 자극하면서 자문자답하면서 오직…. "밥 먹었나?" "예, 그릇 닦았습니다." 하하하…. 자기가 불러 놓고 자기가 "밥 먹었나?" "예, 그릇 닦았습니다." 하는데,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릇 닦았습니다" 이럴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실참의 도리를 아마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연구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나가면서 닥치는 대로 '아, 바로 나는 지금 유생(有生)이 아니라 무생(無生)이다. 무생이 있음으로써 유생이 있는 거지, 유생이 있어 가지고 무생이 있는 게 아니다. 무생은 바로 귀신 방귀씨와 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하하하…. 씨는 없으면서도 여전히 있고, 여전히 있으면서 그렇게 천차만별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심봉으로 탁 꽂아서 움쩍 안 하면서도, 조금도 어김없이 돌아가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참 묘한 도리입니까?

### 산속의 절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질문** 큰스님께서는 생활 속의 참선을 가르쳐 주셨지만 생활에 찌들리며 살다 보면 가끔은 산속의 조용한 절에 가서 참선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조용한 곳에서의 참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 사람들이 참선을 한다 하면 그저 몸을 조아리고 앉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몸을 수행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수행시키는 공부를 합니다. 딴 데서 하는 게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어느 스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스님네들이 좌선, 참선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계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좌선을, 앉아서 하는 걸 가르치고 가는 것만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앉았다가 일어나면 선(禪)은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이란 앉아 있는 것도 아니요,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앉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마조(馬祖)가 앉아 있으니까 회양(懷讓)은 기왓장을 갈았다 하지 않습니까? "넌 뭐를 하려고 그렇게 앉았느냐?" 하고 묻자 부처를 이루려고 앉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일어나지도 먹지도 누지도 말아야지 선이 끊어지지 않지, 그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선이 끊어지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니 거기에서 그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앉았다 일어나면 선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앉았다 하면 아주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게 목석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해 보시고 '아, 이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 수행이로구나.' 해서 그 후로는 마음의 수행을 중시하셨고 힌두교도에게 수행하는 방법도 일러 주셨죠. 우리가 지금 망상이 일어난다 이러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망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망상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 생각 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이런 게 안 난다면 어떻게 부처를 이룹니까? 그러니 부처 가운데서 중생이 나왔고 중생 가운데서 부처를 이루었다 했습니다. 어찌 그것이 둘이라고 봅니까?

그런 반면에 참선이라는 이 자체는 바로, 첫째, 주인공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거다. 둘째, 증명을 해 줌으로써 둘이 아니게 돌아감을 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들이고 내는 그 능한 도리를 알게 해 줄 것이다 이겁니다. 바로 그렇게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그것을 아는 까닭에, 세 번째는 바로, 둘이 아니게 이 모든 일체 생명과 더불어 같이 나툰다고 하는 도리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상이다, 망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 놓으라 하는 겁니다. "선으로 돌아간다면 악이 붙고, 악으로 돌아간다면 선이 붙으니 어찌 벗어날 길을 찾으랴. 악도 놓고 선도 놔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이 자체에서 그대로 묘하게, 인간을 첨단으로 이루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용솟음치고 나옵니다. 그 마음을 좀 더 넓혀서 생각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마음이 얼마나 묘합니까? 그 마음은 여러분의 보배인 것입니다. 즐거운 것도 가져올 수 있고 슬픔도 미움도, 또 선의적인 마음도 악한 마음도 듣고 보는 대로 생기니 그 얼마나 묘합니까?

그것을 망상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아하, 이런 것이 전부 죽 솥에서 끓는 죽 방울 나오듯이 그 많은 생명의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왜 거기 말리랴.' 라고 해야죠. 죽 방울이 '그냥 그렇게 해!' 그렇게 나와도, '네가 했으니까 네가 모든 것을 그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라.' 하면 '야, 내가 네 속을 썩이려고 그냥 막 이랬는데 너는 유유하게 말이야, 내가 그러는지 벌써 알고 있으니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니 속이 터지던 것도 그만 가라앉는 겁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니 눈물만이, 아무 상관 없이 눈물만 흐르는 거지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다면, 정말이지 앞으로 머지않아서 정말 우죽 쏟아지듯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보세요, 우리 마음의 뿌리가 칡뿌리라면 하여튼 굵고 깊이 박혔어야 그 가지마다 굵게 뻗어 나가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 되나 사철 그 칡꽃은 어김없이 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 22면으로 계속



# 말로만 배우고 행을 못 하고 가신다면 아무 소용 없어요

☞ 21면에서 계속

꽃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궁무진하며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그것은 뽑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몸 안에서 마음이 벗어나야 할 텐데요, 첫째는 몸 안에서 벗어나야겠다. 이 몸 안에서 나오는 그 모두를 다 스릴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지요. 내 몸이 있으니까 그 중생들이 있는 겁니다. 내 몸이 없다면 그 중생도 없고 바로 상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됐든지 내 몸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내 몸의 중생들이 어떻게 놀든지 모든 것을 내버려 둘 수 있는, 들으면서도 행하면서도 자기 마음이 자기 그 많은 마음을 다 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지배인이 된단 얘기입니다. 그 모든 의식 속에서 지배인이 되죠. 그 지배인이 돼야만이 그 모두를 이끌고 나가는 선두자가 되죠. 그럼으로써 그것이 직접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참선을 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선을 한다 하면서 진짜 참선은 못 하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의식들이 헤아릴 수가 없이 있는데, 주인공을 용광로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대로 모든 것을 그냥 거기에 넣어라. 이건 자동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는 그 작업만 한다면, 놓기만 하면 거기서 새 쇠로 재생이 돼서 나간다." 그럼 그게 거죽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앉아서 참선? 산골에 들어가서 참선? 아니, 산골에 들어가면 거기 부처가 있고 산골에 안 들어가면 부처가 없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즉, 여러분부터 알아야 부처님의 마음을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모르는데 어찌 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자기 마음부터 알아야 깨달은 부처님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안방에 앉아 보세요. 자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부처가 거기 있지 아, 자기가 없는데 무슨 부처가 있습니까? 자기가 없는데 부처가 어딨으며, 또는 내 몸뚱이를 끌고 저 산골로 들어가 본다 하더라도…, 나도 한바탕 웃었습니다마는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도 끌고 다닌 자체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좌선은 마음 편안한 걸 말하고 참선이라는 거는 마음 편안한 데서 참진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좌선과 참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용광로에 넣고 내가 편안하게 '아, 내 주인공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지.' 하고선 관할 때, 마음이 한군데로 몰아져 편안할 때, 그 진리가 거기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또 여러분이 집에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아하, 내 주인공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지. 내가 주인공 심부름꾼인데 그저 당신만이 해 줄 수 있어.' 하고선 거기다 놓아야 편안하게 앉아서 관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나오는 대로 일일이 생각하고, 몸뚱인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온통 그러다 보면 그게 무슨 좌선이며 참선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안정됐을 때, 가게에서 장사를 해도 그건 꿈쩍 안 합니다. 여전히 웃고 부드럽게, 장사하면서도 그 심봉은 꿈쩍 안 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어떤 때는 야, 텔레비전을 보고도 그렇고, 세상을 보고도 그렇고, 사람들 그 울부짖는 거를 보고도 그렇고, "스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그냥 울 때도 그렇고 이거는 뭐, 이렇게 듣는 것만 해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머물렀던 40일 동안에 몇 사람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걸 수효를 따진다면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합니다. 그걸 남으로 안다면 한 사람에게도 이익을 못 준단 말입니다. 그저 높이 보지도 말고 낮추어 보지도 말고 자기같이만, 못난 자기같이만 보면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이익을 줄 수 있고, 그래야만이 공덕이 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전에 제가 그렇게 산골로 다녀도, 목신도 있고…, 뭐 없는 게 있습니까, 어디? 다 있지. 그 생명의 의식들이 다 친구가 되고 벗이 되니까 무서운 게 어딨습니까? 아, 보세요. 모두가 친구인데 어떻게 무서울 게 있습니까? 너 나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머저리 같아도 좋다 하는 겁니다. 좀 모르는 듯한 것이 그럴 땐 조금 낫더라 하는 거죠. 내가 약았으면 그렇게 못 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밝고 밝은 세상에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세계는 전파를 통해서 두루 하는데, 앞으로 마음공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이겁니다. 물질은 무상(無常)하다 이 소립니다.

### 아이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요

**질문** 요즘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딸 둘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제 딴에는 열심히 애들 뒷바라지하면서 아이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데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한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여러분이 그냥 '내 주인공에 놓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행을 못 한다면 그거는 말하나 마나 건성 도는 일입니다.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 사이에 위로나 아래로나 항상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평등한 행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서로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말 없는 무심(無心)의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 자비심으로써 어떠한 악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맡겨 놓고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만이 정말이지 부모 된 자격이 있는 겁니다. 부모 된 자격이 있어야 부처 될 자격도 있죠.

우리가 항상 집안에서 조그마한 꼬투리를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서로 싸우고 자식들한테도 부적당한 말을 하는 한편,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어긋나고 흩어져서 춥고 배가 고픈 것입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그릇이 아니라 종지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차원의 그릇이지만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하고 제가끔들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옳다고 그러는 걸 그르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옳다고 할 수도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잘하시려면 평등한 마음으로써 항상 부드럽게 말해 줄 수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을 항상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고 할 수 있게끔 하셔야만 말 없는 데를 통해서 서로 접견이 되는 겁니다. 말로 해서 말로 듣게 하지 말고, 뜻으로 해서 뜻으로 듣게 한다면 무심으로써 바로, 그 전달 없는 전달이 됨으로써 가정은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이 마음속 생명들도 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감으로써 모두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먹기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말로만 배워서 행을 못 하고 가신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기면 벌써 '아이구, 속상해.'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를 단호히 없애려고 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백 명, 스무 명, 만 명이 온다 하더라도 그 귀신은 '나'이기 때문에 귀신이 두렵지 않다 이 소립니다.

> 선으로 돌아간다면 악이 불고 악으로 돌아간다면 선이 불으니
> 어찌 벗어날 길을 찾으랴.
> 악도 놓고 선도 놔라.

여러분은 그게 이해가 안 가실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귀신이든 귀신이 아니든, 선이든지 악이든지, 부처든지 마구니든지 불성은 누구나 똑같으니까, 악하게 생각을 했다가도 다 준다면 그냥 부처가 되는 겁니다. 다 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주는 도리를 배우십시오. 모든 거를 갖는 도리를 배우지 마시고 주는 도리만 배운다면, 철저하게 100% 준다면 100%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지 다 버려야 내가 다 얻을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어야 항복을 받을 수 있고, 항복을 받아서 모두가 내 도량 아님이 없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다, 한생각에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 건질 수 있고, 내 나라를 건질 수 있고, 앞으로 자라나는 애들한테 물리가 터지게끔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것입니다.

### 저의 남편이 주사가 심한데

**질문** 저의 남편이 주사가 심해서 살기가 너무 힘들지만 애들 보고 참고 살고 있습니다. 관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변화가 안 보여 팔자타령이 절로 나옵니다. 이런 남편, 변할 수 있을까요?

**답변** 여러분한테 오신통이라는 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 숙명통이라는 것은 컴퓨터와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바로 거기에 입력이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 있어서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왜 나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내 팔자가 이래? 운명이 이래? 왜 나는 되는 일마다 안 돼?' 이런 한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탓으로 돌려라. 남을 원망하기 이전에 자기 탓으로 돌리라.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한테 맡겨 놓고, 거기서 잘못된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믿을 때에 비로소 지금 현재의 입력이 들어가니까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모든 게 한생각이 빛보다 더 빨라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으면서 다른 데 좀 가 보십시오. 집에 좀 가 보십시오. 갔다 오실 수 있겠죠? 마음이라는 건 내놓을 수 없으면서도 그렇게 무한의 능력을 가졌다고요. 체가 없는 마음은 어디라도, 이 지구 바깥의 꼭대기 우주까지도 탐험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집에 지금 가서 어디 뭐가 놓이고 뭐가 놓였다 하는 거를 한번 보고 와 보세요. 그와 같은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란 것은 그렇게 값싼 게 마음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분한텐 보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없다. 여러분으로 그럼 비유해 보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손자가 왔을 때 할머니가 되고, 금방 남편이 들어오니깐 아내가 됐습니다. 자동적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하니까 금방 어머니가 돼 버렸죠. 그래서 어떤 것이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듯이 여러분이 애기 적이 납니까, 젊었을 때가 납니까, 늙었을 때가 납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름해서 부처라고도 하고 이름해서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놓고선 상표처럼 내 거니 네 거니 그런 싸움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 속에 진짜 알맹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때리고 온통 집안을 부숴 놓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진짜로 건지려면 말로 하지 말고 이 마음 주인공 자체에 모든 것은 주인공, 너도 주인공이 있고 나도 주인공이 있으니 주인공에 모두 스위치를 눌러 놓으면, '거기에서밖에 해결 못 한다.' 하고 맡겨 놓고 평등한 마음으로서 웃으면서 받아들여 주고, 또는 부드러운 말로 해 줄 때, 한번 두번 세번 자꾸 이럭할 때는 그 사람 마음은 슬그머니 봄눈 녹듯이, 아니 추운 겨울의 얼음이 녹아서 봄이 되듯이 그렇게 녹아 버립니다. 녹아 버리고 '내가 왜 이럭하지?' 하면서 그 모든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서로 전기가 들어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나쁘게 해도 '저놈의 새끼, 나가서 뒈지지도 않아?' 이런 욕들을 하는가 하면, 남편이 나가서 저거 한다면 '저놈 저놈, 오다가 저 차에라도 치여 죽지 않아?' 이런 소릴 하는 걸 내 많이 들었거든요.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는 것은,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소립니다. 이 마음 하나가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일 수도 있고, 사랑을 가져오고 구덩이에서 건져 낼 수도 있는 이런 위력을 가진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누구가 잘못했다 잘했다 하기 이전에 자기부터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잘되게 할 수 있고 또는 남편도 잘되게 할 수 있고, 부모한테도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고 자식들한테도 햇빛을 영원히 줄 수 있는 것입니다.


# 漢文·한글(겸용) 종합의식집

**성묵스님의 漢文/한글(겸용)종합의식집 한권으로 7가지의 염불을 할수있는 ⑨권과 ⑨-1번, ⑨-2번으로 분류하여 선택할수 있도록 두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십구재 입재 → 사십구재 → 일반 천도재 → 생축불공 → 한문염불 → 한글염불 → 경전공부까지 해결됩니다.



**신권소개 ⑨번, ⑨-1번, ⑨-2번**

⑨ 漢文/한글(겸용) 종합의식집 (50,000원)
⑨-1 漢文/한글(겸용) 의식집 (25,000원)
⑨-2 漢文/한글(겸용) 의식집 (25,000원)

☜ 한권의 경전으로

**성묵스님의 스테디셀러 소개 (스프링 제본)**

① 漢文/한글(겸용) 예경/각청 (20,000원)
② 漢文/한글(겸용) 천도/시식 (20,000원)
③ 漢文/한글(겸용) 수계/방생 (20,000원)
④ 漢文/한글(겸용) 장 의 (20,000원)
⑤ 漢文 점 안 (20,000원)
⑥ 漢文/한글(겸용) 독 송 집 (20,000원)
⑦ 漢文/한글(겸용) 토속 모음 (20,000원)
⑧ 漢文/한글(겸용) 지 장 경 (20,000원)

**구 입 처** 총무보살 010-7144-7339 · 성묵스님 010-5277-8024
**계좌번호** 농협 735091-52-058288 (예금주 : 박명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 현불 논단 |

#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中불교 발전 견인했던 구법승들**
**법현 스님 63세에 인도 유학길**
**79세 中서 전법활동 한 불도징**
**선무외 삼장, 80세에 밀교 전해**

**고령화 사회 진입… 승속 동일**
**출가자의 감소 · 고령화 '심각'**

**최고령에도 전법매진한 구법승**
**현실 개탄만 말고 다시 전법을**

중국에 불교가 발전된 경우는 두 가지이다. 먼저는 인도와 서역 승려가 중국으로 들어와 경전을 한역하며 전법하였고, 다음은 중국의 승려가 법을 구하고자 인도로 구법을 다녀와 경전을 한역한 경우이다. 중국에서 인도로 구법을 다녀온 최초의 승려가 법현(法顯, 337~422) 스님이다.

법현 스님은 어느 날, 세수를 하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하릴없이 늙어감을 한탄했다. 스님이 인도행을 결심한 것은 당시 중국에 율장이 한역되어 있지 않아 율장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법현 스님 이전에도 수많은 스님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로 구법을 떠났으나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길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법현은 399년, 4명(혜경 · 도정 · 혜응 · 혜외)의 스님과 인도를 향해 떠났다. 스님이 인도로 떠날 때가 세납 63세였다. 법현 스님 일행은 타클라마칸 사막을 횡단하였다. 이 사막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 는 뜻으로 험난한 곳이다. 법현 스님이 이 사막을 건너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막에는 악귀와 열풍이 있는데, 이들을 만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 풀과 나무는커녕 하늘에는 새 한 마리 없고, 땅에는 짐승 한 마리 없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막뿐이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막막한 여로에서 오롯이 지표가 되어주는 것은 언제 죽었는지 모를 죽은 자의 해골이 길잡이가 되어주었다."-〈법현전〉**

험난한 길을 걸은 지 3년 만에 북인도에 도착했다. 법현 스님은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고, 인도 및 스리랑카를 경유해 공부해 마쳤다. 법현은 중국을 떠난 지 14년 만에 바닷길을 통해 귀국했다. 이후 법현은 수년간 〈대반열반경〉 · 〈마하승지율〉 등을 한역하였고, 〈불국기(佛國記)〉를 저술하였다. 그런데 이보다 더 열정의 승려가 있다. 중국불교의 기반을 다진 동진 도안(道安, 312~385)의 스승인 불도징(佛圖澄, 233~348)스님이다.

불도징은 구마라집과 같은 고향인 귀자국 출신으로 79세에 전법의 뜻을 품고 중국으로 들어왔다. 불도징은 낙양에 오자마자 사찰을 세우려는 즈음, 후조(後趙, 흉노족이 세운 나라)의 석륵왕의 귀의를 받았다. 이후 석호왕(석륵의 조카)의 절대적 존경을 받으며, 20여년 간 국사 역할을 하였다. 또 한분을 소개한다. 선무외(善無畏, 637~735) 삼장이다. 진언(眞言) 계통의 밀교 경전이 유입되어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선무외 삼장에 의해서다. 선무외는 중인도 오리샤(Orissa)의 국왕으로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했다. 선무외가 서역을 거쳐 천산북로를 통해 장안으로 들어왔을 때가 세납 80세였다. 중국에 밀교를 전하고자 하는 일념이었다. 선무외는 현종의 영접을 받았고, 흥복사(興福寺)와 서명사(西明寺)에 거주하며 밀교경전을 한역하였다.

이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당연히 불교계도 유사한 현상인데다 젊은 출가자마저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기도 · 경전읽기 · 법회참석 않는 '3무(無) 불자' 가 증가 추세라고 한다.(〈현대불교〉 5월 21일자) 이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승속을 막론하고, 60대만 되어도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고 한다. 법현 스님은 60대 초반에 구법을 떠나 70대에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했고, 80대에 경전을 번역했다. 불도징은 불교도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중국에 포교 원력을 세우고, 타국에 들어왔을 때가 79세였다. 선무외는 중국에 밀교가 전해지지 않음을 한탄하고 왕위를 버리고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들어왔을 때가 80세였다. 세 스님들은 현대의 신체 나이로 보면, 최고령이다. 최고령에도 전도의 뜻을 품고, 타향에서 전도했던 스님들을 귀감으로 삼아보자.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 한국 속 작은 스리랑카

아산에 마하위하라 사찰이 건립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대외 활동은 못하지만 개별적으로 수행과 부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많은 행사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에 지역과 국가라는 공간의 경계를 넘어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하위하라는 오롯이 스리랑카 및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끼리' 가 아닌 '함께' 하는 곳으로 한국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하위하라에는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온실이 있습니다. 이 곳에 바나나, 파파야, 망고 등의 열대과일나무를 재배하고 있어 독특한 풍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하위하라에는 불교의 성스러운 나무인 보리수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아누라다푸라에 있는 스리마하보디 사원에서 가지를 수여 받아 한국에 모셨기에 더욱 의미가 있고 뿌듯합니다.

이 마하위하라 보리수는 2017년 한국 ·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동안 마땅한 공간이 없어 대법당 화분에 보리수를 모셨지만, 이번 4월 18일 포살일을 맞아 온실로 이전 식재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마하위하라 보리수' 가 온실에서 잘 자리 잡고 튼튼히 뿌리 내려, 무럭무럭 커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불자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보리수 참배를 통해 더욱 정진에 매진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근에는 마하위하라 사원의 명품 '걷기 명상길' 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원을 한 바퀴 두루 둘러보면서 한발 한발 알아차림의 길로 걸어가는 사색에 적합한 모랫길로 되어 있습니다. 사원에 방문하시어 반드시 명품 '걷기 명상길' 을 걸어 보시길 권유합니다.

마하위하라 사원은 스리랑카인들 및 이주민들 중심으로 포살법회를 매월 셋째 일요일에 지냅니다. 그리고 한국분들을 위한 포살법회는 매주 셋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계정혜(戒定慧)를 중심으로 8계를 지키면서 하루를 보내는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날입니다. 이는 불법승과 함께하는 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본인이 하던 일상의 행위를 금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보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하여 온라인 빠알리어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온라인 수업(ZOOM)으로 진행됩니다.

6월 9일 시작했고,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진행하며, 강의 총 기간은 10개월이 될 것입니다. 강의에 사용되는 교재는 스리랑카에 유명한 빠알리어 교수이신 아상가(Asangar) 교수의 새로운 빠알리어 교재를 담마끼띠 스님께서 번역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2021년 6월 9일 저녁 8시 전에 아래 줌 회의 링크로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마하위하라는 국경을 넘어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부처님의 사상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길 기원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불자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후원을 바랍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社 說

# '애국가' 표준수화 개선 시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인 '애국가' 가 청각장애인들에게는 특정 종교에 편향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지적이다. 애국가 1절의 '하느님이 보우하사' 라는 구절에 대한 수화통역 때문이다.

'하늘(天)' 에 어원을 둔 보통명사이자, 전통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이 단어가 수화통역을 거치고 나면 기독교 신앙의 유일신인 '하나님' 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종교계나 일부 지역, 혹은 일부 단체만이 사용하는 수화가 아니라, 한국 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의 '수화로 하는 애국가' ,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가 발간한 '한국수화사전' 에 근거한 문제제기여서 더욱 우려스럽다.

불자 청각장애인들은 이미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참담하다. 우리나라는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이 제정된 후 공식 정부행사에 수화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행사에서 애국가 통역이 진행될 때마다 불자 청각장애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표준수화 제정 이전인 1900년대 후반 농아학교에서 애국가 수화를 배운 청각장애인들은 애국가의 '하느님' 을 '하늘' + '님' 으로 배우고 사용해 왔다는 점도 심각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이미 사용되고 있던 바람직한 표현이 특정종교의 색채를 지닌 단어로 왜곡된 셈이기 때문이다.

공식 수화통역으로 애국가를 접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종교자유를 침해당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 기후위기 대안, 불교에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대대적이고 급격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삶의 대대적인 전환은 결국 대국민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며 이는 정책과 제도화를 통해 산업의 전환, 사회적 전환을 이끄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발표한 담화문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사회적이고 대국민적인 차원의 실천 방향이 담겼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환경위원회가 제시한 전환, 지족, 순환, 참여 4가지 전략기조는 향후 10년간 종교계와 국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대안이 불교적 세계관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해 왔던 지점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우리 불교계가 이끌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후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불교적 세계관의 핵심은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며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라는 인드라망의 가르침이다. 이제는 부처님의 살아있는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고 구체적인 대안의 형태로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인류에 제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조계종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우리 불자들도 보다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불자들의 실천이야말로 지구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사회참여를 이끌어 내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담화문을 계기로 더 많은 불자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각기 자리한 상황에서 삶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문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불교TV
BTN불국토상조
불국토 450 불자전용
불교식 장례의 표본을 추구하는 고품격 장례서비스
불국토 330 불자전용
영가의 상품상생을 위한 탁월한 선택
열 반 300 스님전용
전륜성왕의 예법으로 극락가는 구름 길



부처님의 품안으로 극락왕생!
내가족에게 가피를 내리소서
불교식 장례를 통한
아름다운 마무리
불교식 장례로 극락왕생을 인도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가입상담 02)3270-3377 장례접수 1661-2353
BTN불국토상조
● 당사는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이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고객 환급의무액 15,455,450,000원, 상조 관련 자산 19,991,320,000원입니다. ● 대표이사 : 구본일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 홈페이지 : www.btnlife.co.kr ● 선불식 할부거래업등록 : 서울-2011-제6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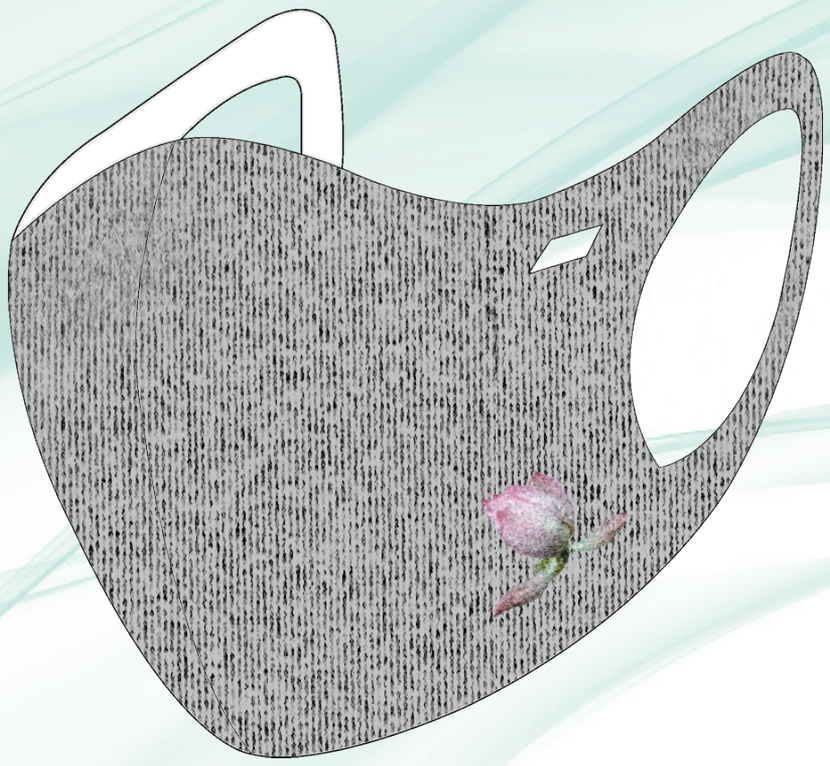
ANTI-BACTERIAL·DEODORIZATION·항균&소취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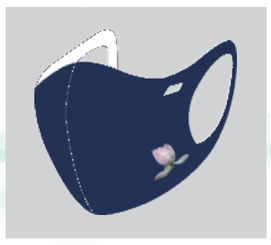
#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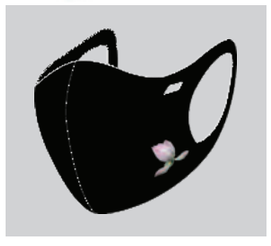
# KOVI 기능성

#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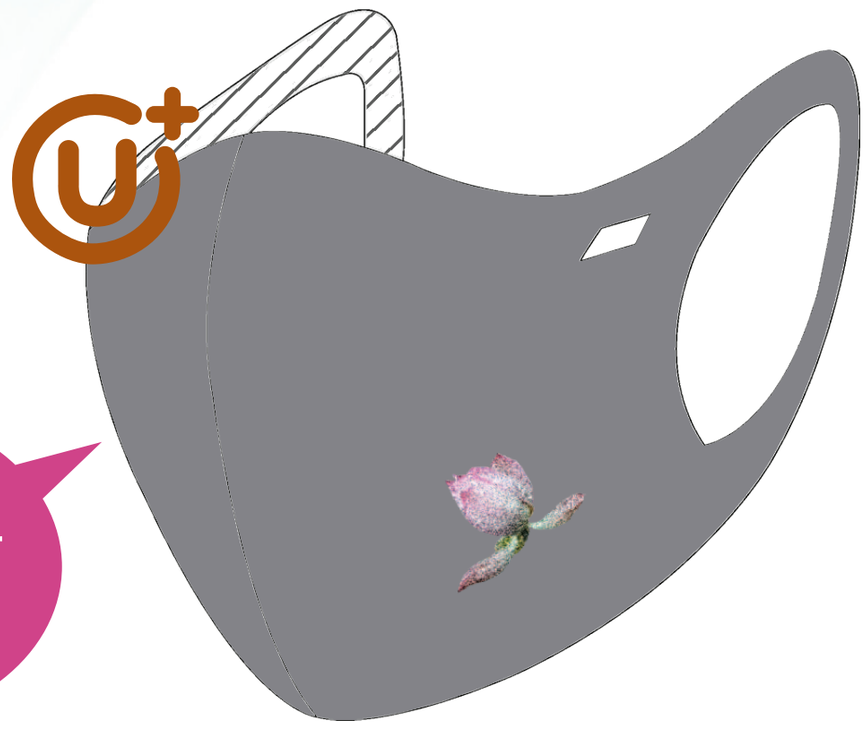




##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 100개 | 300개 | 500개 | 1,000개 | 2,000개 |
|---|---|---|---|---|
| (개당) 2,500원 | (개당) 2,400원 | (개당) 2,300원 | (개당) 2,200원 | (개당) 2,000원 |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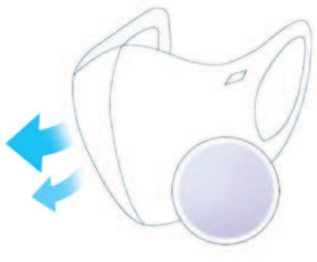
##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 100개 | 300개 | 500개 | 1,000개 | 2,000개 |
|---|---|---|---|---|
| (개당) 3,500원 | (개당) 3,400원 | (개당) 3,300원 | (개당) 3,200원 | (개당) 3,000원 |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